

이치재집(二恥齋集)

신정모(申正模)

2022-11-11

鵝洲申氏 시조바로세우기 協議會

申有植(신유식)

이치재집(二恥齋集) 신정모(申正模)

형태서지

권수제	이치재선생문집(二恥齋先生文集)
판심제	이치재집(二恥齋集)
간종	목판본(木版本)
간행년	1899 년 간행
권책	6 권 3 책
행자	11 행 20 자
규격	20.9×18.0(cm)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강경훈(姜景勳)
소장도서번호	없음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속 70

저자

성명	신정모(申正模)
생년	1691 년(숙종 17)
몰년	1742 년(영조 18)
자	경해(景楷)
호	이치재(二恥齋)
본관	아주(鵝洲)
특기사항	이만부(李萬敷), 이재(李裁), 조현명(趙顯命) 등과 교류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숙종	17	1691	신미	康熙	30	1	1 월, 安東 豊山縣 新池洞의 外第에서 태어나다.
숙종	35	1709	기축	康熙	48	19	9 월, 부친상을 당하다. ○ 仲父 申德浩에게 수학하다.
숙종	36	1710	경인	康熙	49	20	12 월, 조모상을 당하다.
숙종	39	1713	계사	康熙	52	23	順興安氏 安履順의 딸과 혼인하다.
숙종	40	1714	갑오	康熙	53	24	5 월, 부인상을 당하다. ○ 겨울, 尙州로 내려온 息山 李萬敷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다.
숙종	42	1716	병신	康熙	55	26	1 월, 東萊鄭氏 鄭之鈇의 딸과 혼인하다. ○ 漢城에서 別試를 보다.
숙종	45	1719	기해	康熙	58	29	봄, 진사시에 합격하다. ○ 가을, 증광시 병과에 합격하다.
숙종	46	1720	경자	康熙	59	30	11 월, 承文院 權知副正字가 되다. 휴가를 얻어 歸覲하다.
경종	1	1721	신축	康熙	60	31	2 월, 아들 申邦烈이 태어나다.
경종	2	1722	임인	康熙	61	32	承文院 權知正字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2 월, 冰溪書院에 머무르고 있던 密菴 李裁와 교류하기 시작하다. ○ 9 월, 英陽 縣監으로 있던 姜樸을 방문하고 함께 內延山을 유람하다.
경종	4	1724	갑진	雍正	2	34	1 월, 道南書院에서 權相一, 이만부 등과 「近思錄」을講하다. ○ 12 월, 司饗院 主簿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영조	3	1727	정미	雍正	5	37	江原 都事, 병조 정랑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12 월, 居昌 縣監이 되다.
영조	4	1728	무신	雍正	6	38	5 월, 이인좌의 반란 때 관아를 버리고 달아난 죄목으로 軍威에 徒配되다.
영조	5	1729	기유	雍正	7	39	5 월, 特畵으로 석방되다.
영조	7	1731	신해	雍正	9	41	1 월, 李滄의 탄핵을 받고 투옥되다. ○ 4 월, 興陽縣 呂島에 유배되다. 고을의 士人들이 가르침을 청하며 白雲先生·天放先生이라 부르고, 자호를 '二恥齋'라 하다.
영조	8	1732	임자	雍正	10	42	「素行錄」을 편찬하다.
영조	11	1735	을묘	雍正	13	45	2 월, 錦山으로 量移되다.
영조	12	1736	병진	乾隆	1	46	3 월, 忠原(忠州)으로 付處되다.
영조	14	1738	무오	乾隆	3	48	9 월, 龍安驛으로 거처를 옮기다. ○ 10 월, 6 대조 申元祿의 「悔堂遺稿」를 교정하고 年譜를 편집하다.
영조	15	1739	기미	乾隆	4	49	3 월, 모친상을 당하다. ○ 4 월, 奔喪하다.
영조	16	1740	경신	乾隆	5	50	4 월, 부인상을 당하다. ○ 부친과 아내 등 친족들의 遺狀을 작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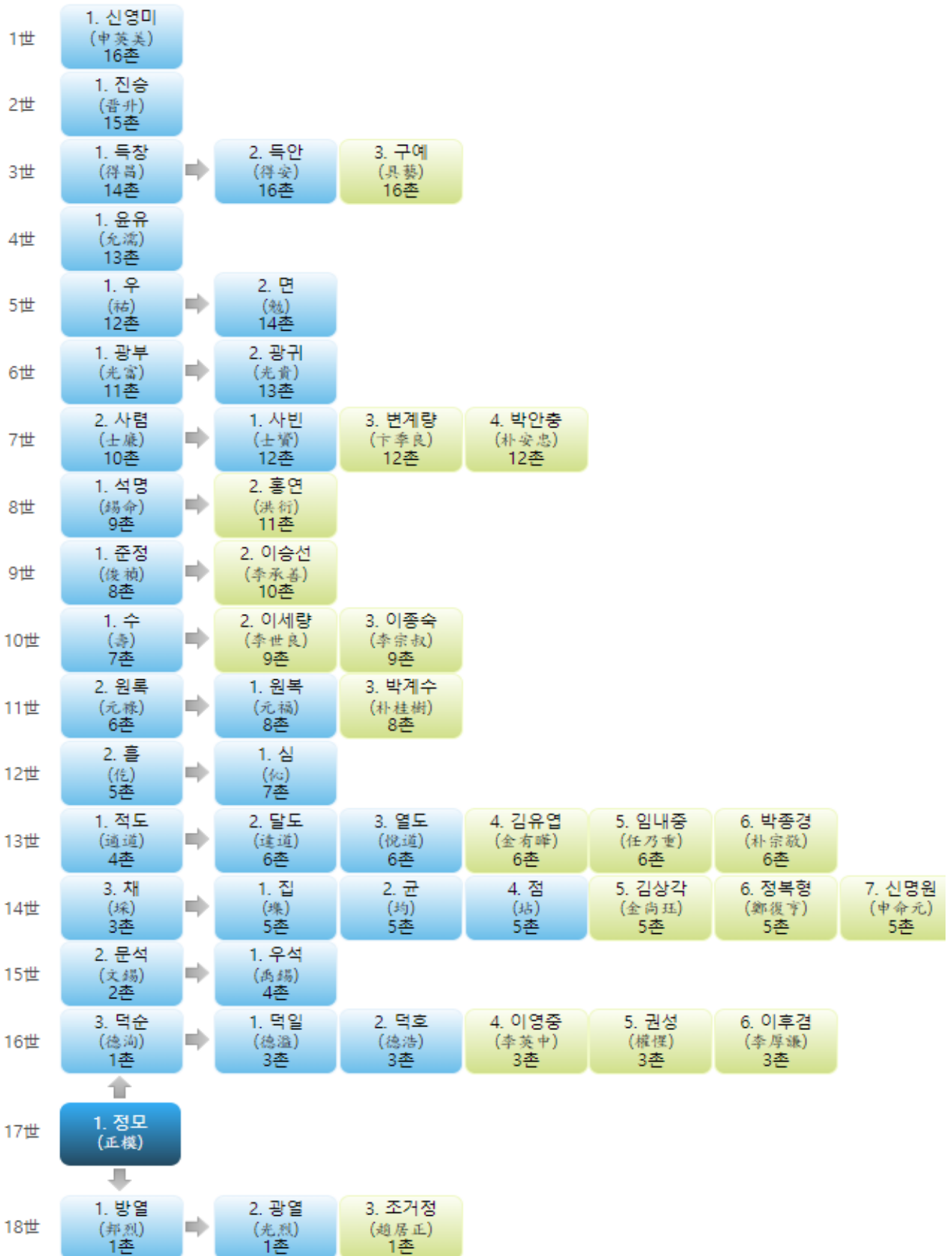
이치재집(二恥齋集) 신정모(申正模)

영조	18	1742	임술	乾隆	7	52	4 월 23 일, 配所에서 졸하다.
영조	19	1743	계해	乾隆	8	-	윤 4 월, 五土山 璋龜峯에 장사 지내다.
고종	1	1864	갑자	同治	3	-	7 월, 特命으로 復官되다.
고종	36	1899	기해	光武	3	-	5 대손 申相憲이 목판으로 문집을 간행하다.

가계도

17世 정모(正模) 父 : 덕순(德洵) 祖父 : 문석 (文錫)

읍파(邑派) 호계공파(虎溪公派)



편찬및간행

저자의 유문은 아들 申邦烈과 申光烈이 家藏 초고를 바탕으로 수습하여, 戰兢齋 金瑞一에게 校正과 狀文을 의뢰하였으나 그 대신 저자의 행력에 대한 변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後敍를 받고, 문집의 草稿本을 만들어 두었다.

그 후 1864년에 저자가 복권되자 증손 申冕璧(1803~1868)이 肯庵 李敦禹에게 저자의 行狀을 받고, 가장된 초고본을 재정리하여 편집하였다.

1887년에 문집을 營刊하자는 의논이 일어나면서 저자의 5대손 申相憲(1842~1911)이 金道和와 함께 교정하고, 1898년에 張錫龍이 지은 저자의 묘갈명 등을 새로이 부록에 추가하여 이듬해인 1899년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때 재정적 한계로 시문의 일부만을 編刊하였으며, 저자가 유배지에서 편찬한 「素行錄」은 간행하지 못하였다. 《초간본》이 본은 현재 姜景勳氏,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581), 규장각(古3428-457), 장서각(K4-6411)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밖에 「소행록」은 6대손 申世煥, 申啓煥, 申紀煥 형제가 10권 3책으로 騰寫하고, 7대손 申基勳이 부록을 추가하여 1980년에 石版으로 간행하였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古2506-文40-8),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치암C1-A249)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5대손 申相憲이 1899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姜景勳 소장본이다. 본 영인저본 중 권2의 제9~48판은 판차가 '一~四十'으로 誤記되어 있다.

序(金道和 撰), 文集告成文(申相憲 撰), 跋(申相憲·申敦植 撰), 素行錄(申正模 編), 答申邦烈(金瑞一 撰, 戰兢齋集 卷2) 등에 의함

구성과내용

본집은 6권 3책이다. 권수에는 1898년에 지은 金道和의 序와 目錄이 수록되어 있다.

권1은 賦(2), 辭(3), 詩(82題)이다. 賦와 辭는 1724년에 지은 <龔隱窩辭寄呈申上舍>를 제외하면 모두 유배 중에 지은 것들이다. 이 중 <陰厓辭>는 1741년 迦葉山을 유람할 때 蘭草寺의 남쪽에서 李耆가 己卯土禍 이후 은거할 때 노닐던 곳을 발견하고 느낀 점을 노래한 글이다. 권2의 전반부까지 수록된 시는 저자가 17세 때 지은 <丁亥春讀書>를 시작으로 유배지에서 즐기기 전에 지은 <病中口號古詩一章>까지 詩體 구분 없이 저작 연도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유배 이후에 지은 시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며, 벗들과 여러 지역을 유람하며 지은 유산시와 모친과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시가 자주 보인다. 그 가운데 <白雲精舍雜詠>은 유배 생활의 답답함을 잊기 위하여 자주 방문하던 八影山의 백운정사와 주위의 풍경들을 노래한 연작시로서, 칠언절구 20수와 오언절구 14수로 되어 있으며 창작의 배경을 서술하고 있는 長文의 詩序가 있어 1733년 당시 저자의 심적

정황을 엿볼 수 있다.

권2는 詩(31), 書(20)이다. 書는 李萬敷, 李栽, 李, 權相一, 李光庭, 柳升鉉, 申弼貞, 李重煥, 鄭之鍊, 河瑞龍에게 보낸 것이다. 그중 <與密菴李丈>의 別紙는 이재에게 「朱書講錄刊補」와 「近思錄」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질문한 것이다. <答密菴李丈>은 戒懼가 動靜을 검하는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권3은 書(8), 雜著(7), 序(3), 記(7), 跋(3), 箴銘(7), 說(7), 辨(1), 上樑文(1)이다. 書는 李景翼, 洪重寅, 洪重徵, 吳尙遠, 金瑞一, 南耆, 李眞望, 申德涵, 伯兄 申彥模에게 보낸 것이다. 雜著에는 戊申亂 당시에 慶尙監營에 보고하기 위하여 지은 <賊變時報營草>와 의금부에서 심문을 받을 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은 <陳情文>이 포함되어 있다. <梅堂先生年譜跋>은 1748년 6대조 申元祿의 문집을 校正하고 연보를 지은 내력을 기록한 글이다. <二恥齋銘>은 저자가 자신에게 나라를 배반하여 충을 어기고 부모와 떨어져 孝를 훼손하게 된 두 가지의 부끄러운 과오가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하여 유배소의 小齋를 '二恥齋'로 명명하고 그 경위를 기록한 글이다. <游楊尹諸公不著伊川行狀辨>은 程頤의 문하에 여러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행장이 지어지지 않고 그 대신 후대에 주자에 의해 연보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하여 논한 글이다.

권4는 祭文(7), 哀辭(3), 誄文(1), 遺狀(7), 墓碣銘(1)이다. 제문은 安季臯, 鄭之鍊, 申德浩, 伯從叔, 모친 宣城李氏, 부인 順興安氏와 東萊鄭氏에 대한 것이다. 애사는 從兄 申重模, 李猶龍, 李子達을 위해 지은 것이다. 뇌문은 李栽를 위하여 지은 것이다. 유장은 조부 申文錫, 伯祖 申禹錫과 아버지 형제들의 행장과 두 부인에 대한 行略이다. 묘갈명은 李東美에 대한 것이다.

권5~6은 附錄이다. 권5는 저자의 백형 신언모가 작성한 연보, 아들 申邦烈이 지은 言行拾錄, 金星慶, 許昶 등이 지은 挽詞 29편, 許寶, 李萬甲 등이 지은 제문 10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6은 許邊, 許澈 등이 지은 제문 8편, 李敦禹가 1864년에 지은 행장, 張錫龍이 1898년에 지은 墓碣銘, 1864년에 복관이 되어 종후손 申錫祐와 이돈우가 지은 告由文 2편, 金瑞一이 1766년에 지은 文集後敘, 5대손 申相憲이 1898년에 지은 跋과 종후손 申相夏가 지은 文集告成文이 수록되어 있다.

권미에는 종5대손 申敦植이 1899년에 지은 跋이 있다.

이치재집(二恥齋集)

二恥齋先生文集序

二恥齋先生文集序[金道和]

孟子曰誦其詩讀其書。不知其人可乎。是以論其世也。噫。人之精神心術。必見於言語文詞之間。故雖百世之遠。猶可以因其語而得其心也。焉可誣也。今於二恥齋先生申公遺集。益信其然。蓋公稟清明之氣。得溫裕之性。自其良知良能而端緒已見矣。見時果而必獻則陸續之至行也。遵小學而不懈則靜翁之遺意也。周旋於跬步之間而猶恐其或怠。婉容於唯諾之際而常戒其或拂。則是其至性之得於天者。固有以異於人。而亦豈無所本而能之哉。蓋申氏之先。以忠孝相承。按廉公基之於始。悔堂翁繼之於後。卓行懿蹟。并載於三綱錄。而箕裘之傳。以及於公。則其積厚矣。其本深矣。是以策名清朝。望實俱隆。一時名公鉅卿之互相推轂。翕然無異辭。其兆足以行矣。而不幸遭值艱虞。至有澤畔之行。風霜之賈剝。川陸之湫險。每有人所不堪。而耿耿一念。常在於戀闕而思親。蘓軾瓊樓之詠。輒形於寓物。狄子白雲之望。屢發於宵寐。如所謂感懷記夢之作。雉鳴子規之篇。使人哽咽而不堪讀。則後之欲求公者。庶幾於此而得之矣。嗚呼。娥林之事。尚忍言哉。君親一體。緩急或殊。而一日之間。營罷遽及。則公之報國之志。幾乎不白於世。而英廟全釋之教。有曰求忠臣必於孝子之門。噫。大聖人至公至正之論。足以罷時人之惑。而恩光漏泉。幽鬱始彰。則公之所以兩全於忠孝之道者。於是而益炳然矣。何庸贅焉。先生之嗣孫相憲甫。收拾遺文。將付之剞劂。既就余而丁乙之。因以弁卷爲請。余雖老弊不堪。而亦有不忍終辭者。遂書其所感者如此。以對揚聖教之萬一云爾。戊戌仲春日。前行義禁府都事聞韶金道和謹序。

二恥齋先生文集卷之一

賦

效楚辭體。寄楸谷 金星慶 幽居。

若有人兮楸之阿。佩寶璐兮被明月。集詩書兮爲帷。聯道藝兮爲載。既好文兮又以學。慕古人兮善窈窕。年燁燁兮屢以徂。迹昧昧兮獨遐橋。余生命兮湮阨窮。十年間兮湖南西。樹欲靜兮風不止。天不吊兮其奈何。三喪畢兮旅館。絃上語兮悲切切。表獨立兮嵩之陽。心搖搖兮如瓠綴。君不遐兮以相存。伊往還兮不落莫。金蘭契兮膠漆情。幾番詩筒兮書尺。無百金兮買芳鄰。歲既晏兮誰與歸。印須友兮久不來。倚金沙兮望餘輝。君之心兮與余同。願一見兮道吾臆。結煩言兮願貽子。超逍遙兮長太息。

[주] 瓠：旒

感春賦

東風吹兮以和。鼓萬物兮靡不之。岸有芝兮澧有蘭。各敷華兮如期。夫何澤畔之行吟兮。等老艸之衰替。感節物而興懷兮。撫疇曩之雅志。紛吾握蘭而懷椒兮。擬與物而皆春。遭紛亂而遷謫兮。世知我者何人。謗杜門而自訟兮。尋大方之謨訓。聿寡過爲庶幾兮。要不愧於方寸。覩寒水之秋月兮。玩古匣之瑤琴。不知聖遠而言堙兮。惟覺千古而一心。懼書淫之爲崇兮。爰散策乎悄蒨。邀鳶魚而爲伍兮。招野人以相見。時升高而徙倚兮。望北辰之耿光。何緣奉御牀而入鴈行兮。隨百僚之鳴璫。非珪組之是戀兮。寔忠愛之難忘。吾將撥憂而導和兮。酌金壘兮不永傷。

辭

聾隱窩辭。寄呈申上舍 泰登○甲辰

秋風兮嫋嫋。時冉冉其行暮。山之北兮有窩。阻咫尺兮心獨苦。理輕策兮躡芒屨。薄言越彼高岡。柴門迥而地僻兮。茅宇寒而遙荒。中有人兮岸綸巾。愴容與而周章。摻裾兮一笑。倒屣迎兮上堂。爰殺雞而炊麥兮。留我宿兮永今夕。瞻聾隱之舊扁兮。塵離離兮棲壁。謗余三復兮詩文。言顧名而思義。翁本聰明之男。子兮。聽不聵兮視不眇。何佯聾而莫聽兮。羌以口而爲耳。固非如神之宋隱兮。亦豈何傷之漢吏。昔孤雲之有詩兮。題武陵之垂瀑。日茲千尺之飛流兮。紛吼巒又噴石。恐是非之聲到兮。眩尋常之人言。語浩蕩兮意淫溢。眇遐觀而輕舉。夫惟千載之遙遙兮。何獨有會於胸臆。感古人之先獲兮。揭窩名而常目。悲世俗之迫隘兮。慕遂初之純淑。伊嚶鳴其不平兮。曠古今如一日。竊有感於斯扁兮。非夫人兮誰與歸。江潭杳以歲晏兮。迹昧昧兮愈畸。誰相問兮旅况。故人少兮天一湄。翁不遐兮以相存。伊往還兮不落莫。交情等兮金石。幾番詩筒與書尺。蟬嘒嘒兮蟲切切。漸時物之清涼。吾將更躋兮斯堂。究厥名兮消詳。

憂中樂辭

嵩之陽兮有客。謗獨罹此百憂。糶憔悴以爲糧兮。編枯槁以爲芻。惟既窮途之無仗兮。歲云暮兮何歸。挈九死之殘骸兮。倚蕭寺之斜暉。顧山僧亦世情兮。夫豈樂此窮壘。或白眼以相待兮。我一笑而受之。伊青春之棄去兮。復白髮之來侵。尚不死者志氣兮。有充然之容音。寧纏縛於患難兮。聊等視於險夷。拊敗蕙而論懷兮。餐霜菊而療飢。回秋艸之苦意兮。慕春風之和氣。披塵編而三復兮。悟真樂之在是。挹遺響於孔昊兮。理餘韻於閩洛。羌來往於根窟兮。願從事乎輪翼。讀離騷於秋月兮。聲發越而清壯。詠歸來於清朝兮。意蕭散而夷曠。時俗人之來見兮。咸謂余曰何堪。余不言而臆對兮。意悠然而自甘。憂中樂兮有在。樂忘憂兮何妨。遂援筆而寓言兮。澹容與而周章。

陰厓辭 李紆遊棲

余悲不及古之人兮。歲既晏兮誰與歸。挹楚纍之行吟兮。鞭賈傅之懷悲。粵秋孟之死魄兮。倚余筇於伽之山。經蘭艸而乍憇兮。陟陰厓而盤桓。日茲李公之遊棲兮。名百年猶不死。因其地而想其人兮。蓋己卯之名類。旋性行而製佩兮。聯道義而爲黻芳。與澤其雜糅兮。好脩姱而自潔。王聖明而當天兮。時正值^P於千一。樂羣哲之彙征兮。慶一堂之風雲。般紛紛改紀而更張兮。竊庶幾乎華勳。欸萋斐之織貝兮。慘崑玉之俱焚。風飈震撼兮宇宙。顧何地而棲息。青山偃蹇兮一面。碧澗淙潺兮數曲。荷衣兮蕙帶。盍歸來乎逍遙。辭鵷鷖而遠逝兮。伴麋鹿而招邀。觀活潑於深湫兮。玩奇壯於飛瀑。管領兩厓之風烟兮。趣之寓於覽物也。沉潛一室之圖書兮。樂之在於講學也。時乘高而臨睨兮。望白岳兮超忽。或命駕而出遊兮。就北灘兮信宿。引清風以入室兮。喚明月而當筵。生涯付於琴酒兮。妙理驗於魚鳶。吟龜山之故操兮。理龍門之餘曲。蘭生谷兮任蕪沒。雲在山兮堪怡悅。然君子^P豈果於忘世兮。益耿耿於憂君。君之門兮九重。猛犬迎吠兮狺狺。倏化蝶而遐矯兮。超獨造夫明光。奉尺五之威顏兮。襲御爐之天香。夢將分而不忍兮。覺欲往而焉從。悵佇立其怔營兮。奄愁結而增忡。結微情而陳辭兮。願矯遺乎天宮。後先生蓋百祀兮。余再逐於嵩之陽。求先生之遺迹兮。但水泱而山蒼。九原杳而難作兮。曷由學公之藍輿。矢余詞而寓感兮。喚猿鶴兮空躑躅。

詩

丁亥春。讀書雲嵐寺。一日。諸長老齊會齋蕨。朴石城 文道 首呼陽字韻一絕。皆以次續成。余亦謹次。

普天和氣屬三陽。薇蕨亦霑雨露長。活潑豈惟觀一物。流行道體我心藏。

賞春謾詠

梅花落盡杏花開。二月東風白蝶來。有客閑閑無一事。庭壇永日步青苔。

夢見慈顏。起書一絕。

客遊東海遠慈闈。魂夢惟能夜夜歸。想應老親勤念我。眼寒朝暮倚荆扉。

訪姜英陽子淳 樸 奉贈二十八字

匹馬行尋南隱居。邇來願識十年餘。煩君莫謂英陽^P薄。松桂成林可讀書。

聞江心臺景致幽絕。而未得一往遊覽。聊和板上韻。癸卯

江臺寥濶洛之陽。不羨橋西一艸堂。城郭塵埃應絕少。鳶魚趣味更深長。林汀日暮烟生白。斐几明清卷對黃。楓葉蘆花秋九月。相隨一棹擬徜徉。

謹次上舍族叔 德涵 洗心亭韻。和呈密菴李丈 栽。

終古冰山擅名勝。如今况杞五先生。行隨杖履真吾願。坐對烟霞更舊情。院深論經欣辨惑。亭宜留句怕勞精。別來已覺烏頭去。其奈依然見不明。

道院會席。酬權台仲 相一，吳致重 尙遠 兩兄。兼呈息山李丈 萬敷。

行行百餘里。來過洛水清。道院邃以幽。丹青祠廟明。洞主有好意。書札勤相迎。何幸息山老。杖履出州城。同人也不孤。喜識致重兄。鯁生無寸長。徒有樂善誠。合堂陪師友。披卷對周程。此地論此事。寧無感發情。多慚昔孟浪。却幸今備評。充然若有得。庶不虛此生。臨行一言贈。豈是偶然成。願言敦此意。終始示周行。感激述蕪語。竊附古商聲。

敬次息山李丈和權員外韻賜寄

懷仰雲齋老。星霜幾換移。幸隨絃誦會。因問正邪岐。 吳州探彌永。徐姝愧轉知。何當携舊聞。鎮日就鱣帷。

又七言一絕

昔賢遺躅道南院。洙泗波流賴不寒。師友一堂論討樂。也知今世亦稀看。

謹次道南送別韻及歸路口占韻。謝呈吳致重。

道南風月浩無際。松影參差竹色寒。靜裏相招論此事。不嫌流俗笑嘖看。

畸人嘗世少偕偶。大雅襟期獨許親。此會寧徒談性理。收心要與反天真。

永懷曾點舞雩壇。師友周旋此往還。怊悵雪中分背恨。秋來倘叙一場歡。

又次權台仲寄惠三篇詩及看字韻。謝呈。

秋懷正慄慄。感慨何由平。却喜十行札。能通兩地聲。新詩更數幅。几案覺夜明。諷誦久無斃。襟期宛對清。

夫人久不見。心事只相知。顏面幾憑夢。精神每閱詩。謙能容我友。道實合吾師。努力同征邁。百年長若斯。

用拙謀生理。衡門任半斜。雖憐伊洛號。終厭野郊家。已分違時久。何妨著靜多。青陵行欲隱。携手與同車。

欸欸真情露一紙。傷時說學更暄寒。相期千載分明意。好向新詩數幅看。

雲齋四絕好題目。曾已和呈愧瘦寒。盛製承來重寫去。時時一笑破眠看。

寒食。拜鷹峯先塋。虎溪公墳山○甲辰

寒食東風細柳斜。鷹峯物色半開花。苾芬來奠墳塋下。先祖精靈倘格斯。

奉次甘圃壁上韻

舊聞佳境此登筵。況入桃源物外天。碧嶺丹厓松檜裏。清沙白石水雲邊。奇遊擬訪棲巖鶴。幽興先牽叫月鶻。笑看圃中雙老語。肯分山半送吾年。

月阜見瀑布。遂賦一詩。以標其勝。

千尺飛空噴白石。一泓無底眩青銅。謫仙遊屐如來此。未必香爐獨擅雄。

與河上舍聖則 瑞龍 留討藏待院數日。以四韻送別求和。

窮巷斷來轍。胡然獨遠尋。增吾懷古意。感子歎時心。謾覩淵中月。虛抽匣裏琴。信知爲則是。努力日欽欽。

招提舊約尚今銘。更喜高軒許一經。守分君能咬逮菜。訾醫吾肯進韓苓。前功庶及顏猶澤。後悔其如髮已星。閏月生明看漸近。長吟伐木佇中庭。

次謝河上舍寄惠四韻

招提舊約尚今銘。更喜高軒許一經。守分君能咬遶菜。訾醫吾肯進韓苓。前功庶及顏猶澤。後悔其如髮已星。閏月生明看漸近。長吟伐木佇中庭。

八月。承騎郎除命赴京。到洛江作。丁未

西行今日到商州。千尺長江翠不流。東望萱闈雲影白。懷英心事轉悠悠。

望王都有作

羣巒簇簇湊王城。更有長江左右縈。地勢允爲東國會。千年基業定無傾。

詠聞慶飛鴻亭申察訪 弼貞 家盆梅。

古梅香動玉盈盈。臘月窮寒獨向榮。日夕明牕相伴在。主翁幽趣倍孤清。

肅拜後出漢江上流。吟成一絕。戊申

吾行初不爲江山。到處江山似識閑。城市囂塵無一點。超然高出世人間。

遊碧波亭四韻

亭本清平尉所構。而今爲王子延祔所^P有。壁上又有肅宗大王親題四韻詩。敬讀再三。感涕自零。遂續四韻。以寓微臣之忱。

蠶嶺南走一麓高。大君亭館倚蘭臯。幸緣勝界乾坤潤。能使羈人意趣豪。微綠春光全入柳。深青水色渾疑荀。紗籠隱映先朝筆。敬讀天章涕滿袍。

肅拜後棄歸。議政諸宰。以榮養挽止。遂成一絕。

平生隱約是吾期。當路如何強挽縻。親養一言銘肺腑。行裝到此轉難爲。

述懷謔詠

北極龍顏違咫尺。南州鶴髮隔雲巒。君親忠孝平生念。耿耿中宵幾夢寒。

述懷

八影山邊一逐臣。當年也非不賞身。學忠姬聖要修分。希孝曾賢擬厚倫。負國都緣時不幸。離親偏恨地無津。消磨未盡平生志。黃卷中間愧古人。

讀啓蒙本篇

圖書易範元非二。奇偶生成本是同。妙處自然相表裏。看來看去變無窮。

宋兄以金七灘 世欽 詩筆見示。感書一首。

學士當年此謫居。今來遺迹揔成虛。蒼松半開冰霜壑。葦竹全枯水月除。尚有清詩籐上在。唯餘健筆篋中儲。逢君話及增懷古。搔首江潭獨一歔。

奉送伯氏還鄉

嶺雲迢迢湖海深。東來瘦馬病凌侵。他鄉拜面生春色。古寺聯袂失客心。遊子身邊衣已破。孤臣頭上日常臨。白雲在望歸難共。佇立長程淚滿襟。

別伯氏後數日。牽懷有作。

悲歌一曲倚山阿。悵悵秋懷將奈何。昨夜東天飛去鴈。可憐寒月宿清波。

九月十一日。母氏生朝。謹次朱晦菴壽母韻。以紓懷。

湖南遷客未言歸。秋氣荒涼入旅幃。追憶前年奉壽酌。每逢今日戲斑衣。粲羞薄畧情猶篤。歌舞冲融慶自肥。千里殊方腸欲斷。江山况復信書稀。

招提徙倚獨愀然。靜對霜風物色鮮。應想懿親交拜慰。從知氣力倍康堅。雲孤東北高山外。路阻西南大海邊。遊子至情何所祝。壽齊金母餐桃仙。

貧病平生卧弊房。石田從亦任蕪荒。雖悲甘旨供無物。常擬華嵩壽未央。滿目干戈愁趙母。違心奉養愧毛郎。家兄誠孝由天得。獨奉年年獻壽觴。

申震伯 復東 贈楚辭。并惠三絕句。強拙步和。

千年曠感只湘纍。忠義分明寫在詞。索讀也非援比^P意。聊紓胷裡不平思。

孤貞何敢望荊臣。自分人間永棄身。尚有區區忠孝念。消磨不得在君親。

薜芷江蘼并拾呼。梅兄胡不與之俱。我今取作風霜契。香怨千秋倘可無。

挽洪翊衛丈 相民

吾生生苦晚。幸及栗里翁。翁非今世士。心事古人同。試徵公世德。清直在林洪。天資與學力。公又專于躬。當初拜公時。伊我正顛蒙。瞻公面背盎。服公充養豐。自愧淺近姿。擬溷獎勵功。公居強百里。世故又何叢。悵望燕申地。直切傾仰衷。謂言命亦好。普惠天以東。^P云何古道死。世無尚德風。不得位廊廟。虛老山之中。人皆爲公惜。公則一窮通。要爲雪月候。益做正大雄。晚年翊衛官。主恩良亦隆。豈無斯世念。其如吾道窮。終竟不少貶。沒齒謝紛紅。端坐鎮雅俗。時望日穹窿。湖清海溢名。展也屬我公。人間七十四。何遽以考終。方當法門敗。轉覺儒林空。東南失典刑。天意正矇矓。深秋自洛還。便道過靈宮。忽忽俛仰間。人事增悲忡。隱約精神在。秋月照梧桐。哀幅傳何晚。新墳封已崇。追題擬八哀。感涕動盈瞳。嗚呼長已矣。誰識余心恫。

挽南護軍 履夏

^P南極老人也有星。朗輝徧照聞韶國。聞韶古稱多耆德。誌牒斑斑可考得。吾猶及拜板項老。古貌古心年近百。塲屋少時未展才。邱園晚節專養德。護軍高秩自天錫。腰佩紫紳頂戴玉。達尊坐深鄉黨敬。過者瞻閭頻憑軾。少生別有慕用誠。戚誼交情世世篤。竊幸吾鄉有綺皓。瞻拜每深懷古臆。一疾寧能隕地仙。定應羽化乘雲白。考德問業更於何。童頭玉齒懷如昨。喪不護臨葬不紼。祇緣數月卧牖北。荒詞却愧最後人。病瘡從當奔往哭。

挽李姑叔 厚謙

悵望千秋一灑涕。浮世幾人享百歲。紛紛死葬北邙^P山。自古皆然難獨脫。試算吾叔平生事。偏令我心悲不制。天然之性自醇謹。爲政于家敦孝悌。弱冠華聞動鄉邑。塲屋文辭稱偉麗。時來佇見鵬早騫。歲晏還嗟匏猶繫。畢竟天又奪遐筭。四十年光流水逝。春風吹老堂上萱。秋色半凋園中棗。詩書素業日荒

凉。姑氏抱兒不耐涕。前冬一拜幾歲月。往事如今已難諦。八門慟哭無所覲。靈宇巋然虛幌翳。天寒十月霜風高。輓轡曉就汶陽瘞。朱旒素翼前導去。天地爲悲風色噎。萬事已矣可奈何。三尺新封寒月閉。

挽金明五

宇宙間事有不平。維天報施誠難剖。賢如明五亦云^P少。奈何無成又無壽。軒軒器度落落資。古時陳良莫先後。更把詩文驚世俗。高驅直轡詞林蹂。立揚自是分內事。蹉跎其奈世不偶。固知文窮自古然。寧料奇疾越歲久。鬼伯相催留不得。三紀年光水東走。青閨嫠寡正堪傷。况說高堂父與母。崩城喪目不盡痛。朝夕哀臨血欲嘔。二晬孩兒呱呱泣。祇今未脫繡裡垢。孰不爲君淚于腮。慟深如吾應罕有。吾兄與子實同庚。相識由來分最厚。文場徵逐露肺肝。笑却人間雲雨手。頗恨年來隔雲樹。尚冀病力賴蔘枸。忽聞凶音驚且疑。莫是來人浪傳否。西行暇日哭其殯。果然良友辭塵臼。文章散落風流盡。舊宅巋然倚秋阜。靈春^P悼亡求誄語。把筆更覺涕盈斗。高才美志大可憐。浮世何人能記取。嗟余筆力遜陶謝。未能使君長不朽。朱旒素翼走泉塗。天地爲悲風色吼。

挽李鼎叟

朱旒導靈輜。去向浮雲巘。鼎叟藏於斯。二月瘳風卷。仰面問于天。天道也福善。有如子之賢。叔世亦云鮮。然惟不食實。報施良獨舛。遊從廿載餘。知子我不淺。天然溫雅姿。孝友名早顯。摸臨永和筆。獨能造關鍵。文辭更斐然。早晚期大闡。蹉跎不得意。亶由時命蹇。倏又奪遐筭。四十等昞轉。有老年望八。呼兒臉每泫。嫠妻又孤子。水漿不曾吮。孰不爲子慟。伊我更難遣。^P適纏私室冗。未遂茅裏餞。謾將述哀語。寄哭泉塗緬。

挽鄭景亨 辛丑

記我初遊竺。尋問好儕友。人言鄭景亨。文行兼可取。立雪孤山門。少長益涵揉。聞之願一見。經歷仙庄叩。仙庄邃以幽。門對洛江口。有塘容數盆。有宅盈五畝。入門望吾子。因以測其有。天然溫雅姿。學得又深厚。謂介無乃同。謂同奈有守。譬之黃叔度。不記孰先後。顧余一畸人。處世少諧偶。片言心期合。何但醉醇酒。遂定金石契。笑却雲雨手。期君早發軔。出入王左右。否亦咬菜根。任得鄉後誘。居然一不諧。天意誠難剖。草草人間世。年僅三十九。嫠孀正堪傷。况說在堂^P母。有子亦先天。孤塚已艸莽。孰弗爲君慟。慟深無如走。每恨百里強。源源未聚首。前冬自洛還。便道過寓牖。宿痾稍減歇。顏色全瘦黝。續又致書問。君已還芝阜。春來消息斷。幾多憂慮恟。凶耗晚入耳。始知辭塵臼。一走長沙哭。新綠遍林藪。人亡餘故宅。感傷涕盈斗。卜日戒歸路。星言駕靈輶。旒翼前導去。風色愁以吼。哀詞贈且訣。景亨知也否。

挽權蒼雪 斗經

剩恨吾生未掃門。前年冠帶獨敷言。弘剛定自天偏厚。文章從知老益堅。霜冷桂坊三藥謝。夢驚槐國七旬奔。東南運氣云何厄。耆造如今更不存。

挽洪判書 萬朝○丙午

己亥西遊始掃門。當年竊幸老成存。寬和鎮服能鎔物。談笑恢張可轉坤。八耄優遊時幾變。三朝歟歷望彌尊。龍亡虜逝嗟何及。宇宙茫茫日正昏。

挽成參奉 大夏

記余初侍外翁門。每說公惟善述昆。司馬豈容鵬翮展。登龍俄見鳳毛翻。百年存沒同桓室。二品恩榮共棣園。却恨藍輿曾未舉。九原蕭瑟獨傷魂。

挽曹處士 善長

付道滄洲六十庚。南州處士最高名。溫醇定自天偏篤。器業元從老益精。秋月壺中窺臭味。春風座上阻逢迎。法門衰敗今時棘。何限人間後死情。

白雲精舍雜詠 并序

八影山。東走北折而開一小洞。洞舊有三庵。皆以白雲名。而分上中下以別之。意此洞地高絕。生白雲其間。故名之。其實如朱夫子所云雲谷也。中三菴俱廢。有尼徒就白雲舊址。構一菴居之。自余謫留此山。日上下逍遙于山若洞。翫花木羣鳥^猶。足以遣曩裡憂騷。寧愁人烟絕而殺越怕耶。菴凡三架。而東西有翼廡。前後有迤廊。合爲十數架。經始日月。欲問無因。且空廢以來。便爲盜藪。破竈突而傷結構。爲可惜也。遂自山海泉澗。以至室堂廊廡。與夫一花一木一果一蔬一巖石一禽鳥。凡其中所有。無不命名號而八吟詠。凡得七言詩二十絕。五言詩十四絕。余素乏寸長。莫宜於世。而麋鹿之性。粗樂山林。每行遇佳處。輒有願分一半之意。不幸命蹇時乖。在官遭變。終慙趙苞之義。謾效管仲之恸。情雖可悲。罪實難原。四年之間。再黜炎海。杜門省讐。與世長辭。而海山風物。適爾當前。所以慰戀親之方寸。寬去國之心事者。舍是而何以哉。或曰。古之有樂於山林者。皆平居閑適。樂道義頤心性之流。以故吐出吟詠。亦必和平冲澹。自然無感迫之意。如朱子之武夷諸作。退老之陶山雜詠是已。今子則不然。擯去窘束。困窶憔悴。將拊躬惴悼之不暇。乃於是時。諱此情態。強欲依樣於古人。豈不爲具眼者所哂乎。余曰。客之譏我固是矣。雖然。吾嘗聞君子素位而行。無入而不自得。獨不觀於程夫子乎。亦謫涪而不以爲憂。如蔡季通。朱門之傑然者。而其就貶無幾微不適意。楚越風物。極目悲涼。而

能以義理自怡悅。然則朱退之所處。不過適遇順境而樂其樂爾。况余所詠。不專是閑適語。望辰望雲。可見君親之戀。自訟二恥。亦掬慙悔之端。而雄雉子規之詩。益不禁思親戀鄉之情。自餘諸詩。無非所以自反而傷歎。子乃以諱惴悼而依樣。古人見誚。或者太苛而不恕乎。曰。古人之於佳山水。皆自以爲主人。而管領其風物。故觸目遇景。隨卽命名而播詠者無恠也。今子於曩居飄寓中。乍得佛宇以居。而所以標題而吟弄。初無異於自家物。此亦有 P 說耶。曰古語云。江山風月。本無常主。閑者便是主人。豈必皆身有之後。享其樂也。彼龍門潭溪。非程朱世居地。信州舂陵。是呂蔡乍謫處。而遺編餘韻。尙今輝映。後之觀者。未嘗有以非其有而致譏。若此等事。正不以古今賢愚而有間。惟吾子更思之。或人唯而退。遂并書以爲序。

白雲精舍 七言

扁齋許氏道爲門。悅隴陶公不贈君。地異名同知匪偶。長懷二老揖清芬。

自訟堂

P 見過由來自訟難。宣尼遺訓炳如丹。謫齋揭號寧無意。聊滌前瑕或作完。

樂朋齋

冠童數子幸相從。畧綽論來亦叙嘗。更有眞朋談道義。人間至樂勝絲鍾。

待賓廳

入山竅謫猶爲羣。多感親賓扣我門。不必勞心具雞黍。也知佳境自留轅。

二恥軒

忠孝由來得自天。人人孰不願雙全。我今不幸俱虧缺。俯仰難堪面覩然。

P 擎天峯

六鰲曾說戴仙瀛。八柱今看擎太清。極目時艱人物眇。九原文相倍勞情。

峩冠峯

層層三峩象緇冠。面勢巍峩不可攀。孟氏忽焉今百世。人中安得覩斯顏。

望辰峯

逖矣天南一逐臣。行吟楚澤怨青蘋。丹心九死猶難變。耿耿中宵望北辰。

望雲臺

地異并州戀母俱。山非太岳望雲如。何時歸倍萱堂 P 下。兄弟斑衣奉酒魚。

仁智壇

碧水蒼山間有壇。登臨日日幾忘還。默探雙樂宣尼旨。厚重周流也各班。

天海臺

天高海濶孰能量。雲谷胷衿此可當。後學請看遺像贊。言非阿好魯齋王。

常關門

五柳先生何許人。柴門空閉鎖松筠。我今自爾成羅雀。豈學徵君謝俗塵。

學圃亭

P 羨它老圃尚安居。計較吾身遠不如。晚入危程方始學。何嫌見斥聖人閭。

詠歸臺

我非曾點地非沂。何事臺名揭詠歸。正使襟期千載合。豈論人境古今違。

觀海亭

簇簇巖林窈且深。登臨可挹碧千尋。始知觀海難爲水。從此江淮盡潦涔。

坐愁巖

山北山南行路難。中間一石幸平寬。於焉坐愁渾忘倦。五月蒸炎亦覺寒。

P 上白雲

軒豁雄奇上白雲。南州海嶽望中分。祇今蘆谷菴師遠。誰是同吾物外羣。

下白雲

窈窕靜深下白雲。殘桃槁竹蔽平原。欲修頽砌安茅宇。其奈貧囊計未溫。

入雲徑

谷口長時鎖白雲。菴前一徑上菴門。蓬蒿蕪沒無來轍。唯有幽人日涉園。

出雲臺

山後巖臺驚一支。平林葛浦海之湄。披襟晚日閑來**P**望。萬里風煙盡獻奇。

石井 五言

石竇出山泉。靈源堪可食。願言希聖功。莫謾爲心慄。

巖澗

澗水觸巖來。長時鳴碎玉。不澄常自清。寧取濯斯足。

蓮沼

清香難褻玩。君子號非虛。逖矣濂翁後。何人解賞渠。

菊塢

青叢逢雨茂。金藥待霜高。百本移山逕。愛深豈讓陶。

竹籬

枝槁節不死。遶屋自成籬。幸免令人俗。何煩王子移。

P 桃蹊

桃花欲謝紅。逐水山門出。因此懷桃源。堪羞身世拙。

槐巷

古槐三五株。風外枝相撞。吾非晉國公。地若王城巷。

松嶺

獨也青青色。經寒偃蹇餘。笙竽中夜發。彷彿茅山居。

長林

古林翳洞口。當夏正陰陰。更有煙雲合。紅塵迥莫侵。

遠岵

不知何處山。望裏常重疊。安得御冷風。飛騰賞絕峽。

子規

P 三更窓外月。長叫不如歸。看爾具雙翮。寧能未奮飛。

雉鳴

深深何處樹。泄泄鳴雄雉。舊宅亦山角。聞應詠自詒。

四季花

灼灼數叢研。開開四季閱。繁英與遠芬。相對兩堪悅。

百日紅

半死樹聲牙。俄然花百日。方知向後伸。却在當初屈。

連夜夢見慈顏及伯氏。起坐書懷。

萱闈棣萼夢連宵。萬水千山道不遙。起坐悄然增遠想。五更殘月竹蕭蕭。

雨後出山謾詠 二首

向晚披雲出。携筇依小楓。涼秋收積雨。晴日引輕風。直爲憂愁豁。非貪往來通。遙遙東北望。家國杳秋鴻。

天南劫劫無家客。高在白雲峽上頭。鎮日逍遙專一壑。長時徙倚望三丘。茫茫宇宙心偏遠。耿耿君親念獨悠。風月烟霞差可賞。隨緣榮辱不須愁。

踏青日。與諸友煮花賞春。二絕。

花柳闌珊三月天。東風蕩漾海山前。當年風詠知何事。吾黨須希點也賢。

忽驚佳節過寅賓。雨後山容一倍新。杜鵑風味真堪口。况有雲安麩米春。

秋夕

故國江山千里遠。今宵風月一年多。離親戀闕無窮恨。獨立寒簷且浩歌。

登蓮華山

去國離鄉不盡悲。來登碧岵聘眸時。三山五老烟雲隔。搔首天南獨永思。

登喚仙臺。次壁上韻。

笙鶴緱山滅去輪。喚仙恨未見仙人。千秋不老名區在。謾把風光餉過賓。

移寓廣石。遊元巖作。

奇巖矗立俯江流。吹笛山光水面浮。把酒臨風愁似雪。騰身直欲倚三邱。

七月既望。效赤壁古事。二首。

今歲雖非壬戌年。曩蹤還似雪堂仙。正值清風明月夜。何妨醉坐水中天。

桂棹蘭槳同赤壁。浮光靜影似巴陵。憂君望美前人恨。添却思親淚滿膺。

書洪亮卿問札後

江潭初見古人書。辭意殷勤不我踈。行患十年無寸長。多慚良友過情譽。

邑大夫使人賀內地付處之命。瞻天望雲。自不禁感懷。一絕以紓。

聞道吾王再命移。孤臣悲喜兩兼之。日光漸近雖多感。其奈雲邊反面遲。

大山書堂儒生。咸來惜別。其中朴時鵬，林恒壽。尤挽行掩淚。遂示一律。

高塾招邀歲月多。其間托契問如何。討文清畫真腔子。引酒薰窓興太和。獨奉鷄竿終遠去。難隨組帶更相過。煩君莫鎖無師恨。別淚空添錦水波。

南山庵在忠原鎮山絕頂。長郊數百里。皆在目前。暇日遊覽。吟成一絕。

山石高臨邑萬家。長江左右又平沙。彈琴臺下將軍廟。極目其如感慨何。

月夜散步

月色偏添遊子恨。風光若惹逐臣愁。清宵散步金沙界。心事悽然便似秋。

感懷有作

君親恩義出於天。稟受人人本不偏。值去牢騷心更苦。當來憂患念愈纏。靈均非過緣忠篤。元直何尤欲孝全。不有程朱公正眼。千秋難免是非眞。

晚步溪邊

清溪白石窈而深。野馬黃埃迥莫侵。偶爾携筇成獨往。夕陽山色碧千尋。

讀晦菴遠遊篇

千秋三復遠遊篇。萬里程通十九年。體得乾行期不息。終能希聖又希天。

人日謾詠

跡滯窮山影獨鄰。居無與晤出無因。不知何處知心友。今日題詩寄此濱。

誦朱書

茅簷巖屋斷追尋。惟有陳編悅我心。三復忘憂忘食訓。寧知霜雪鬢邊侵。

雨後散步

青山終日雨。白雪凍全消。薄暮前川過。垂楊暗欲嬌。

感懷

千里湘潭客。多年魏闕心。逢春懷自倍。逐夜夢頻尋。襯疊瞻天表。依稀尚玉音。風雲際會樂。醒後隔遙岑。

廣石亭雜詠 并序

廣石之山。自國筭峯而來。蓋峯之自北而南者。至此而盡。聳奇巖爲鎮。而兩麓坡坳相抱。抱中地平廣餘數百畝。東有石亭。西有巖澗。宅曠而勢絕。占方位不偏。故其傍諸峯林壑。無不拱揖環抱於此。山之在右曰紫芝城。據層巔并危巖。尙有垣堞遺形。餘麓西走東折。正控江潭上層。列爲三臺。P 高各四五丈。上天下水。景致清絕。名曰仙巖。山之在左曰鷺嶺。巖谷砢砢。大鳥多棲其中。又有稱門巖者。巨石嶙峋對峙。望之如門。餘麓斗斷劔立。走入于江心者。名曰金嶺。其勝槩不減於仙巖。水之南。有曰吹簫峯。尖削全石。拔地千尺。上小平處微戴土。生松楠而影落江潭。有若自它浮來。其外山勢。重疊周遭。東出爲月影峯。望之如犀角。高聳殆累千仞。每望夜月滿。飛出最高巔。浮照江心。能令人心目清朗也。水則其源出於茂之德裕。中間合龍之大川。百 P 里遙遙。來到川岸。下鳥川。又自西南而入玉川。自西而入新安溪。又自北而入。同過于仙巖之厓。匯而爲小潭。又於吹簫峯之下。再匯而爲中潭。又有江中老石。高可爲數十尺。或十餘尺。廣可坐數十人。或十餘人。有村在山水間。僅數十家。竹垣松壇。儼然別一世界。村後二奇巖。一則平正幽深。一則軒豁寬廣。皆可以臨玩。村前一老樹。倚江而立。青蓋童童。其下有一廣石。石上有廢亭餘址。垣礎依然。花卉猶存。卽古李翰林守仁所構。而取廣石爲名者也。余一逐 P 臣也。瞻天望雲之外。初非有意於山水。而當謫高興。得白鹿菴以居。愛其奇興。詩而序之。用遣曩裡憂騷。旣恩移錦溪。遂僦屋寓。泊于此。自是非大風雨大寒暑。無日不出遊於是亭。或時天晴日暖。輒坐石垂竿以取適。秋冬兩孟之望。與村人賚酒泛舫。追繼赤壁清遊。其間江山風月之勝。晦明昏朝之景。以至於猿鶴之吟嘯。魚鳥之游泳。靡不飫觀而飽探。雖古之爲眼不脚者。論其得趣於山水。則或不若余之專且久。豈天憐孤謫。分付勝景於到處。以慰 P 遣窮愁也耶。方將隨處標題。盡入吟弄。而忽又再承移命。挈挈到忠州。卽今夢想神遊。未嘗不在於斯亭。遂追記若干勝處。吟成小詩十二絕。自餘烟雲花葉。縹緲濃郁。有不可懸揣而成言者則姑闕之。異日或蒙天放。則將再往而點綴焉。

廣石亭

白也騎鯨去。亭傳廣石名。風流徵底處。花木謾敷榮。

紫芝城

白石爲門關。憶曾修煉迹。靈芝今絕苗。悵望日西夕。

仙巖

P 人間別有天。形勝眞仙窟。一上白雲鄉。飈車影滅沒。

鷺嶺

巖孔養雛成。飛飛幾巨羽。江南靈鷺山。佳景如斯否。

門巖

對峙兩巖口。自成一石門。行人矯首望。訝有桃源村。

金嶺

舊說金山勝。常思駕海津。同名正匪偶。幽絕况超倫。

吹簫峯

裂石穿雲譜。居然幾百年。夜深風送響。笙鶴恍從天。

月影峯

山似翠犀角。月如白玉鉤。浮光靜影景。差勝巴陵洲。

松壇

壇高可坐臨。上有蒼松老。村叟時邀呼。留連藉細艸。

竹垣

垣上竹千竿。瘦槁改舊綠。尚含淅瀝聲。可制陰陽六。

漁舠

湖平烟水濶。鴉軋木蘭舟。一曲漁歌晚。中洲謔獨留。

杜若洲

朝渚采芙蓉。暮洲搴杜若。願言贈美人。矯首月明夜。

述懷

畸人耿不寐。起坐整衣巾。巖巒海色騰。遠鷄呼清晨。明月在西嶺。多情入室親。向月一問之。爾應照吾鄉。吾親見爾輝。念我增感傷。欲隨爾月去。暫省北堂傍。嗟哉人異月。可望不可攀。對爾空成三。暗涕千行澗。月如解人意。遲遲不下山。悲風伴月來。天色亦慘悽。搔首獨躑躅。俄傾月隱西。月隱日轉紅。明牕二友携。携來懷暫紓。携罷懷轉愴。日日復夜夜。此懷無時瘳。仰告皇上帝。倘察此懷不。

九日 二首

九日黃花下。阿誰送酒來。長沙多小恨。唯寄一詩裁。

又

嶺海孤臣遠。人間令節回。感觸懷無極。吟到日西頽。

又次太白龍山韻

不分圓黃菊。誰憐放逐臣。江潭無限景。愁殺獨醒人。

放懷。次太白十日卽事韻。

夜醉黃花酒。朝來又一觴。如斯過九月。何日不重陽。

秋夜聞鴈

慄慄秋風切。霜前白鴈飛。來頭尙餘月。尙作一行歸。

權士軒 緻。要余和其壁上韻。歸後構成奉呈。

丈人屋上下。景致何多也。洞口水添秋。山顏木秀夏。久甘居士龔。長學太初啞。笑殺紅塵間。誰知此樂者。

夜月清甚。謾書所感。

月色蘆洲白。風光岸柳青。美人雲外隔。矯首倚風櫺。

夜聞漁謳

漁子歌回首。羈人聽罷眠。夜深風露冷。幽興滿歸船。

正月望夜見月。有感書一絕。

寒齋風雪暮。圓月大如盤。客裏逢佳節。鄉愁苦未寬。

謫居謾詠

白雲阻咫尺。丹極夢峩峩。忠孝平生志。其如兩缺何。

夜讀書有作

乾坤弁羲易。典謨冠孔壁。泚泚二南響。託始詩三百。魯論相傳訣。一貫與克復。中和考中庸。格致在大學。鄒孟聘雄辯。操存裘領挈。奎星耀宋天。渾淪關太極。定性由天得。好學極人力。有斐關西子。西銘明理一。百年躋駁甚。閩賢集金玉。箋註明道理。書札用藥石。循循勉進意。千載如一日。諷誦夜繼晷。聖賢在吾目。敢論髭髮勝。或冀分寸得。彼哉夸毗子。寧知几案樂。

讀王魯齋天地萬物造化論。有感。

命世爲男子。寧容一物遺。大而天地察。次則日星推。山水皆形氣。猶禽摠偶奇。魯齋先獲我。高論炳昏達。

再遊落霞臺 二首

自許溪山主。寧悲遷謫來。風光看不厭。重到落霞臺。

又

地壓滄溟濶。山臨寺觀危。羈愁專爲減。徙倚一躑躅。

內院月夜吟

東國仙山在。峯峯小剝開。翠巖天柱立。青海地根迴。伴月瓊林表。乘風玉澗隈。人間閑世界。愁緒也全灰。

少年日書懷 除夕前一日。呼爲少年日。

一年將盡日。情況問何如。殊方驚節物。故里斷鴻魚。遊子空憑記。慈親想倚閨。春來雷雨動。花柳共歸歟。

山臬卽事

纔聞鶉哭又蛙鳴。落盡金烏到兔明。爲向傍人問意味。此中何似潯陽城。

書懷

去國離家客。思親戀闕悲。南維春色早。東嶺鴈書遲。碧海愁同濶。清泉眼共滋。欲題排悶句。吟到五更時。

雨中。翫易遣懷。

春雨霏霏塞峽門。海山佳氣正黃昏。地初釋凍波聲動。天漸宣花草色繁。萬物逢時心自樂。一身隨分命猶存。巖居盡日無餘事。點易明牕玩聖言。

訪申上舍別贈二絕

蟬聲清嘒嘒。天地忽秋風。起望高庄景。行尋聾隱翁。

又七言

謫裡相隨只景山。崚嶒危脚倚螺鬟。三年再入芝蘭室。浩蕩詩情尚不孱。

七月十三夜大風雨

郊墟金氣動微涼。忔可收霖曝老陽。閱月陰霏何暗靄。終宵風雨更顛狂。香粳正茂憂披偃。古寺將欹恐毀傷。耿耿畸人多少念。三更坐到五更強。

二恥齋先生文集卷之二

詩

古體一首。寄呈楸谷。

有客有客字景楷。去國離家十一歲。瀛洲錦陽又藥城。在在行裝何困弊。或居山間伴松陰。或行洲邊攬
 菑蕙。日日簞瓢肚未充。年年裘葛身未蔽。其間太行望雲情。幾攬遊子千行涕。嗚呼我罪塞兩儀。福不
 盈眸裕溢世。風樹深悲嗟何及。百年瓦盆又長瘞。跳丸莫住三祥畢。逝矣江潭猶匏繫。嵩陽歲晏表獨立。
 綠林芳艸傷心麗。葱竹故舊書斷絕。况說殊方看作髭。東鄰金子西鄰申。獨也交情露實際。六月炎蒸
 正^P 歎絕。筇竹來訪相次第。畸懷慰去晤言長。縲况論來傷感繼。達士大觀等榮辱。凡夫小智同掣曳。
 琳宮連日聽高論。頓爾宵襟去滄漭。兩翁厚意不可忘。起謝寧緩門屏詣。高庄秋氣感我拇。聾隱窩邊話
 細細。欸曲寧知白日暮。留連不覺清夜戾。歸來頽卧寺門前。更向楸林勞兩睇。炎官餘毒豈足怕。其奈
 陰霖未快霽。乞巧佳辰此際過。梧桐露墜寒蟬唳。時物凄清助感發。懷人一念正難制。吾行當在數日內。
 蓬戶爲我莫堅閉。

[주-] 簞：簞

夜起看月

半夜開牕看月色。雨餘清迥好精神。吾心本體元如^P 許。肯使留存一點塵。

往在戊午冬。李濟卿氏訪余於龍岸。因留一詩以別。余^北 未卽和謝。厥後仍遭巨創。精魄流遁。并與
 本詩而忘之。日余適往楸谷。李兄亦來在座。言及前詩。索報頗緊。余爲之瞿然摧謝。既歸卽次其韻。
 併用別韻。成三首奉呈。以塞前日逋慢之辜。切望特恕。還惠瓊報。

江潭客恨共誰商。驛邸追尋便夢場。玉散高談懷促席。金鏗健句憶傳觴。三年苦阻花生眼。一夜重逢月
 映床。笑罷還驚催夢欠。君何有惠不相忘。

浙浙西風動素商。清秋筇屐倚楸場。閑人隱几開詩^P 篋。好客同堂泛酒觴。大勝東山絲竹席。堪追南岳
 講劇床。遊蹤謾抱巧工覩。止宿深情不可忘。

霜葵不死向陽誠。况復終天永慕情。物外宿心專美境。人間晚事步危程。雲深楚澤青楓暗。歲晏囚山白
 髮明。尙賴芸編存至樂。時時寶匣理餘聲。

申上舍和送前詩。更步灰字以謝。

西風吹動管邊灰。雨餘秋光巧剪裁。石逕任它蓬藿掩。芸編隨分聖賢陪。雲深澤畔青楓老。歲晏山中白髮催。尚賴明珠來映席。沙門寒月共徘徊。

李齊仁更以盆字韻寄示。追步以謝。

盲風和雨一翻盆。撼得愁腸倍戀君。願把江潭幽獨^①怨。聯床秋月更商論。

中元節書懷

中秋端正月。人作令辰看。客子緣何事。年年意倍酸。

又七言一絕

郊原士女競奔奔。清酒靈香上祖墳。此日倍深霜露感。鄉山消息况難聞。

八月既望。風清月白。夜景甚適。謾成二絕。

昨日清風同此日。今宵皓月勝前宵。畸人渾絕蕭然感。光霽高懷正不遙。

光風霽月周夫子。灑落曾襟百世師。從古相傳無別法。惟將太極日孜孜。

伯兒讀小學。敬次寒暄堂讀小學韻。書示。

虛靈本自露天機。八歲要須絕四非。立教明倫都在此。孜孜終見義之肥。

題寧國寺

青山花葉一春秋。歲晏畸懷不自由。地界還疑靈鷲景。行裝恰似暢禪儔。千年古塔滄桑閱。一道寒泉晝夜流。風月任它閑者主。倘來榮辱不消愁。

落帽佳辰。不見黃花。謾詠一絕。

家兒來報菊花奇。歲暮衿期願托茲。落帽佳辰悄然坐。故人休惜最高枝。

又七言律一首

西風日緊露爲霜。九九佳辰在鷺陽。瘦盡秋容溪出石。粧成晚節菊山菊添香。人無白酒黃鷄興。詩有奔檣快馬狂。杳杳鄉山千里隔。終天餘痛此時長。

問菊

萍蓬身世久流移。篤友情親亦莫隨。多謝楸林霜下傑。能拚世態訪於斯。

菊答

天賦孤貞我不移。何人陶後可相隨。近聞吾子離畸甚。爲說心期故至斯。

楸洞兩兄。同作嶺行。奉贐一律。

詩老今同嶺外遊。沿途風物正深愁。巖楓染赤粧千壁。野菊堆黃倒一湫。雙鳥嚶鳴僉有樂。孤蟬寂寞獨生憂。天恩早晚應全釋。分付江山待我輟。

寧國寺聯句

荒涼野寺晚。風日仲冬初。景楷。古塔全軀偃。喬槐半腹虛。君瑞。儀惟三代在。僧但數人餘。景楷。遊子偏多感。興衰問木魚。君瑞。

金兄君瑞作湖南行。詩以奉贐。

我輩貧爲黠。君今千里征。冰清錦水渡。風冽萬山坑。可耐慈親念。無窮損友情。嘉平餘廿五。趁此尙回程。

雪月夜。乘冰驚溪。臘月

雪月千年色。江湖一逐臣。五休亭上石。沽酒作三巡。

許明遠讀朱書。喜贈古詩及四韻。

畸人耿獨立。歲晚誰與邁。蕭寺屢遷居。忽忽靡定屆。吾子肯相顧。高情超世械。攻詩虛堂楸。爲學厭稊稗。靜裡展朱書。頭面勤梳灑。高挹海天霄。細繹蠶牛話。古人倏千載。其言尙不壞。苟知參可悅。何患櫝惟賣。全體暨大用。畢竟溢吾眦。好須日孜孜。努力勿虧篋。

四韻

雲谷遺書百世師。退陶明訓我聞之。宵衿灑灑天兼海。義理潛潛髮又絲。藥石攻來人療疾。鑪錘應去物無私。多君獨訪康莊路。細繹微言日有孳。

卽事

Ⓟ 天地春風好。江湖物色芳。魯狂嗟已遠。懷古意偏長。

同諸益翫月

清風朗月可憐夜。携手同來沙上行。箇中別般光霽景。吾儕須臾驗明誠。

壬戌之春勝似秋。山高月小又溪流。云何酒店今無酒。興味悄然不可留。

次許兄道真四韻

物色三三過。他鄉十二春。風霜全縷命。天地荷深仁。白眼悲今世。青眸見古人。山資無一百。安得買芳鄰。

與諸益出遊溪月。次金時會韻。

踏月平郊路。良朋幸許過。狂奴幽興適。曲水惠風和。Ⓟ 詩果有聲否。酒其不飲何。夜深趺坐久。相對萬山花。

次金時會韻二首

樂彼梅山下。詞林見鉅公。獨超今世習。綽有古人風。花鳥權常擇。圖書味豈窮。清詩三復罷。字字露真衷。

風霜餘萬死。湖海困三移。學范時雷鼻。和陶幾摘髭。罪深人不恕。情篤子能知。別去棲香榻。源源更有誰。

與金兄尋鴈嶺遺址

行行到鴈嶺。懷古倚巖端。宿霧侵筇濕。長風入袖寒。心期吾自遠。眼界子能寬。悵望春光暮。餘紅太半殘。

送春

三月正當三十日。東君去去何所之。此日恨無餞春酒。此日空賦送春詩。一筇雙屐上青山。悵望青春寄一辭。青春作伴好慰寂。春去如今將何爲。春花富貴漸寂寂。夏艸繁陰正離離。山頭斜日獨忡忡。借問春光其有知。太平聖代象春容。雨露恩光也無私。早晚幸蒙春雷動。花柳鄉園歸不遲。今年相別且莫歎。故山重逢應有期。春光不語遠遠去。佇立風前心事悲。

寄題朴友懶隱堂

窄窄茅椽短短閭。堂名懶隱義何居。非因子美朝參罕。且學元卿機事踈。天地中間閑偃仰。溪山側畔恣躡躅。祇今得失無心久。悔却從前浪逐虛。

贈金時會觀國之行

吾王儒教軼文王。四月清和視國庠。多士競趁新化育。都人咸覩盛儀光。天開禮網恩風暢。日繞花園瑞靄長。獨對三千君有手。霜蹄佇見九霄驤。

述古體一篇。寄許明遠。

東君餞別十餘日。客懷悠悠不可制。澤畔消息誰相問。山北蝸廬門獨閉。花逕未嘗迎客掃。時上巖端步松桂。此際懷君君不來。明沙十里斷歸柂。昨日移書苦相邀。栢馬遺言君倘諦。流光忽忽不我與。大藥

誰住朱顏麗。斯文旨訣在灑掃。羣聖淵源本孝悌。盍歸乎來日孜孜。努力從今至于斃。三墳五典開口誦。萬戶千門揮手揭。天開粵山一片鑑。日照寒泉四子砌。從知至哉天下樂。不出明窓棐几際。斐然狂言倘可採。莫諉家貧糧不繼。

病中。口呼古詩一章。

一病苦涔涔。曾懷尚餘偉。高坐看山面。山面皆妙理。靜息聽寒泉。寒泉亦活地。萬物豈云遠。一身摠自備。自愧少失學。垂老方悟此。拊己忽自歎。沉吟也誰爲。或者賴天靈。復享一二紀。庶幾更炳燭。努力追前軌。

四言

有客無家。乃在湖沱。耿耿不寐。所懷伊何。

瞻言北極。九萬其高。有美一人。使我心勞。雷公載P甸。毛長言嘯。欲進無路。謾詠楚騷。

東望萱闈。嶺海其脩。各天一涯。星紀載周。我思罔涯。親念寧休。宛其鶴髮。尚夢在眸。

有兄有兄。急難情苦。不畏脩程。况憚暑雨。河橋逢別。風色愁吼。幾日斑衣。拜親同舞。

有妻有妻。糟糠結髮。謂同甘苦。那知隔濶。相思不見。曷月來恬。中宵輾轉。悵望如渴。

有子矯矯。兄二我三。頭角稍出。羽毛未穆。及時善教。庶免大慙。念此阻絕。我懷何堪。

喟余平生。此何人哉。未呱失怙。既仕逢灾。私情粗伸。公義全隕。天或降鑒。人孰吾哀。

P迢焉嶺海。雪涕追咎。母老未將。兄遠未就。夫離其妻。父別其幼。絕倫去親。人不如獮。

歲暮栗冽。北風如刀。魑魅喜過。形影愁孤。獨立靡聘。搔我二毛。發爲聲詩。以紓憂悵。

有客九章。一章章四句。八章章八句。

書

與息山李丈 萬敷○乙未

前冬歷溷軒屏。得望道德餘光。稍慰前日景慕之勤。而拜違以來。日月已多。懷想儀範。與夫魯谷泉石之勝。未嘗不西望太息也。卽日首夏。伏惟道體起居神相萬福。正模。窮鄉晚出。幼失鯉庭之訓。長無嚴師之P導。因循汨沒。無所肖似。中間因閱小學四子心經等書。見得古聖賢立言垂後。實非偶然。而後學之所以自暴自棄。爲甚可惜。遂不揣分量。妄竊有意於此學者。蓋有年矣。而第以質本凡下。性又

頽惰。雖嘗用力於講究。而昏惑紛擾。無以察義理之歸。雖嘗致意於存養。而放肆流蕩。無以致義理之實。每拊躬反顧。愍然竊悲。恨日月之流邁。恐此生之虛負。思得博學審問精思力踐之君子。而爲之依歸焉。得以薰沐其德義。師法其言行。則庶幾或可以少變其鄙朴窮陋之質。而顧以所居遐僻。見聞孤寡。既未能遍識當世之人望。而當世之士。雖有聰明博達足以自立者。亦往往^P一例從事於時俗之文。少復留意於古人爲己之學。此正模所以趑趄於世。求師友之益。而未始有得焉者也。間者。往來於龍呂間。竊聞士子之公論。莫不曰今之世。能超然自得。味衆人之所不味者。下執事之外。殆無聞焉。正模自聞是說。竊不自勝振勵欽慕之忱。慨然欲負笈趨造於門館之間。而一二年來。苦爲疾病憂患所牽留。久未遂素絲附藍之願。前冬之拜。蓋將瞻視尊顏。以爲他日更進承學之階。而涉春以後。畏痘踰蟄。未由任意越境拜候計。向風馳慕。日益勤止。茲因龍州人。敢先以書致候于座下。而畧陳區區之下懷。伏乞憐其願學之久而未始有聞。使得^P自進於門人弟子之列。而昭示爲學之大方。弗迷於邪正是非之所在。則正模雖至愚極陋。謹當服膺勿失。用力不怠。其爲激勵警進之方。必有非言語所能形容者。雖未獲瞻拜於函丈。而亦何以異於親承指誨也哉。秋冬之交。忌患必鬻。倘蒙不至斥絕而容許其受業。則當起而從之。以爲旬月奉教計。伏惟座下以爲如何。天氣漸熱。更乞爲道保重。以慰區區慕用之私。

與息山李丈 丙申

卽日秋氣涼冷。伏惟道體起居神相萬福。正模。於去年夏。謹奉咫尺之書。致候于座下。因畧陳區區。仰溷^P盛德。自揣愚妄。合被鄙斥。乃蒙尊慈還賜手答。拊存開見。許以不揮於門牆。首尾累十言。無非獎勵成就之方。拜領以來。不覺百里之爲遠。而恍然若合堂同席。穩承親切之教也。每念此學是何等大事。必須敬義夾持。勇往直前。著得破釜甑燒廬舍。鞠躬盡力。死而後已底功力。然後可以窺聖賢之門牆。而如正模者。最以驚下之材質。加不專一之工程。悠悠泛泛。虛過青陽。以言乎居敬。則主一無適之時常少。而坐忘坐馳之患居多。以言乎窮理。則通透開發之境僅有。而昏惑紛擾之弊常勝。如是而欲望其有進。何以異於適越而北轅耶。懍然大懼。其終至於無根以培養。無^P地以安頓。恒自反顧愍然。繼之以浩歎也。前者伏承不懈益堅。展拓遠大之教。正是偷惰者對證之良藥。擎讀三歎。有以見大君子憫然指揮之誠心如是其勤且切。敢不服膺書紳。以爲終身行之之地乎。末學滋僞。此學不講。一聞此等言語。例以爲譏笑之資。一唱百和。舉世皆然。以此不敢向別人說得此箇懷抱。僻居窮閭。日益孤陋。望門下於數舍之外。不啻飢渴之如飲食。而汨沒推遷。尙未得陪丈席一日之從容者。豈可專委於正模向德不誠之罪耶。繼自今。伏願屏去形迹之私。而進之於門人弟子之列。或因書尺。或因拜候。提撕誘掖。激發警進。使鄙朴無似之質。或^P得少變於大冶鑪鞴之中。則區區感戢之忱。奚但子晦之於雲谷也。至祝至祝。伏乞爲道保重。慰此瞻仰之忱。

與息山李丈 癸卯

旱澇極備。炎熱漸酷。伏惟服中體候對時增重。時事非踈遜晚進所可與聞。而風傳一二。皆未有以慰人意。本來頽惰之性。益灰心於仕進。每三復延平書所云今日吾儕。止可於僻寂處。艸衣木食。苟度歲月等語。未嘗不有會於心。亟欲求山回水複泉石絕佳處。以爲讀書藏拙之地。嘗拜錦陽李丈。詳問英陽水

比之勝。因以此意告之。則李丈以爲如僕輩。方有此願。P 景楷乃復云云何也。相與一笑而罷。此十年之至願。故前日聞喜之行。亦頗問可居處。特行 壯。不能周覽爾。仙洞景致幽絕。允宜肥遯之所。主人丈進修之工。老而不衰。每拜不覺敬服。若往分一半結茅靜處。日日追陪以遊。則於正模。豈不大有益乎。曾聞執事亦置別業於內西面。杖履時時往來於其間云。未知近來亦或有拂衣長往之計耶。城市人事煩劇。不無有妨於養靜談道等事。伏想高懷。亦必不樂於斯矣。若執事朝夕歸別業。正模寓居之計。亦隨而成。則區區所聞。可以源源就質。庶不至虛過此一生矣。其爲樂。又豈可勝言耶。鄙書中所謂尋溫之工。初無別件書別 P 件道理。區區自省事來。卽服晦菴勿觀雜書少說閑話之訓。故雖中間應舉之時。亦不敢汎觀外書胡說道理。則矧今閑暇無誘奪之日。其寧舍平日所好。而從事於閑浪文字哉。只緣偷惰之習。依舊纏繞。不能篤實做去。性又鈍根。惟知敬守先儒舊說而已。不能別立意見。肆爲閑議論。蓋昔人所謂無可說者。又焉有緒餘之可論也。伏承下教。茫然增愧汗不已。雖然。正模於此。更有一說。蓋聞千古聖賢。莫不以博文約禮爲入道之門。則其不可廢一而舉一也審矣。然有宋以後。聖經賢傳。章分句析。義理昭著。置水不漏。自然許多道理。亦莫不備載於諸老先生往復書中。學 P 者多早夜。孜孜誦習其說。講明體察。以爲終身行之之地。設使其間。有信不及處。亦當以闕殆闕疑之道處之。而近世學者。則不然。疑難之中。更生疑難。註脚之外。重添註脚。於道德性命之說。四七理氣之卞。則必欲求多於往哲。務勝於前輩。而未嘗就明白切近易知易行處。用得一日之功。故夷考其躬行心得之效。則反不及於專攻一經之漢儒。若是者。正夫子所謂德之棄者。程子所謂轉使人薄者。雖其談說震耀張皇。足供一時之聽玩。而既無反約致用之實。則究竟將何用之。雖然。正模此言。豈故欲專踐履而廢講習。如陸象山，吳草廬之見也。只以今日救弊之策。P 必如是而後。方可以博約相資。而不至有繳繞文義之弊。亦使古人辛勤用力發明義理之意。不終歸於虛言。未知此意如何。權正郎嘗遊從於漢中。此來不通聲聞久矣。吳大雅亦聞名而不相識。未知前日相聚之約。果諸否乎。相距稍遠。未由勇赴。只自嚮風馳慕。擬趁九秋涼冷。一進陪誨。未前更乞爲道加重。以副遠忱。

與息山李丈 甲辰

迺者道院之會。得陪四五日講誨。儘世間不易事。雖謏淺末學。未能皆言下省發。而反拊肚裡。果然若有得。若更數月如此。則寧不能少有警進。願以稠擾勿 P 迫。未能究竟承質。以卒誘掖之賜。歸來。益切瞻慕。閏夏清暄。伏惟道體靜養。日膺冲福。正模近借密菴丈所編朱書講錄刊補。繙閱一過。凡朱書句讀文義故事名物出處論議間。初學之未易了會者。靡不爬刮而梳洗之。眞所謂指南燭幽。大有功於斯道者。如得入梓。廣爲流布於世。則吾黨志學之士。不患朱書辭義之難曉。而無事力可以及此。爲可慨也。往者竊聞下執事次輯道東編一書。其已修整完否。此書規模曾竊覷。而想其題目。似甚有益於後學。如蒙旬月間惠下。以爲一番紬玩之地。則迂愚無狀。或可因此少有所開發矣。豈不幸甚。楓嶽遊錄。并賜惠寄。則看玩之 P 後。并當無滯呈還。未知如何。下惠瓊章。屬意不偶。不敢以不能辭。茲敢汗顏和呈。一覽供哂之外。慎勿犯他眼。幸甚。節近揀風。更乞懋養增祉。

與密菴李丈 裁○甲辰

勝地陪遊。幸承緒論。稍慰十年慕用之誠。而拜違經月。孤陋依前。何由縮數舍於一席。卒此誘掖之惠也。悵望軒屏。倍切懷仰。伏惟稅駕以來。靜頤道體益福。正模。素是愚陋之質。且無師友之導。中間因閱黃卷中聖賢。不無感發之切。而鞭策不嚴。頹惰常勝。以言乎講究。則乍明旋暗。無以察義理之歸。以言乎存養。則若存復亡。無以致義理之實。每拊躬反顧。愍然竊^P悲。思欲就近門墻。體動靜。奉警咳。庶不至虛負博羅一生。而年來疫氣張甚。畏伏度日。重以侍奉人事不能任意遊遠。久有素絲附朱之願。而未之遂也。向日之獲瞻光儀。豈非正模之一大幸。而祇緣稠擾匆迫。卒未能細質滿腹疑難。至今思之。殆有餘悵也。洗心亭觴別時下教。以爲從後次板上韻寄來則當和送。而自惟不文。於詩法尤昧。故雖有盛索。弗敢攀爾仰副。日者上舍族叔。馳書要與共和。不敢以不能終辭。茲不免搆拙以送。覽過一晒之後。如蒙以瓊琚相報。則區區侈感。奚啻拱壁之獲而已哉。顏，曾遺書及朱書註解。曾蒙許借之教。早晚因便惠下。則玩繹後。^P當專人呈還。未知如何。只祝爲道保重。慰此瞻仰。

與密菴李丈

六月下復書。承拜於七月之初。展讀欣感。宛陪警咳。秋盡冬生。伏想向來譽節。久已向安矣。墨洞慘憾。出於千萬意外。承來驚悼。無以爲喻。屏院文會。亦因此不成。莫是晚學無狀。無靜處承誨之分而然耶。良欲早晚約會廬江。一承臨教。適會方喪。未遑於閑謾追逐。悵仰軒屏。倍切戀德而已。正模。侍狀粗遣。時於陳蠹之中。不無感發之端。惟是傍無師友。未能逐旋論質。抱得遺經。謾有忻慨交心。而不能勇直擺脫。爲旬月就正計。竊恐如此悠汎。將不免爲五十無^P聞之人。拊躬悼歎。安得不日深一日耶。刊補書反復看玩。益知梳洗整頓。極盡無餘憾。向日仰復之言。實出於下學幸見之誠心。初非假面飾情所發也。至於筭疑訂訛之教。則雖具眼絕識者。有不能容易承當。此豈正模事耶。獨其十數處文義。頗有信不及處。不敢自分謾寡而不爲之仰質。故謹已逐條筭錄別紙呈上。其顯然傳寫之誤。或次序倒置處。則輒以小紙逐處標貼。如蒙俯諒。塞白回教。則其何幸如之。近思錄亦欲遍閱前日所疑。拈出問目。適撓未果。只以道院所講者。畧錄并呈。亦爲批教。千萬切仰。

別紙 朱書講錄刊補疑義。○答辭條列附左。

^P第一卷。與袁寺丞書監司何問。監司是於先生爲上官。而官吏是先生管下官員耶。或曰。官吏如今下吏。此似不然。未知如何。

答曰。來諭似然。而今不信其必然。無寧闕疑之可耶。

第二卷。答詹帥書。尙談幸修。尙如祖尙崇尙之尙。幸疑如或字之義。未知如何。

答。陳同甫書。無此伎倆。伎倆猶言不善技能。而此處則似無不善意思。豈先生自言無此。故有自謙之意而然耶。

答曰。答陳同甫書。無此伎倆云云。來諭有自謙之意云者。似得之。

Ⓟ 第三卷。答張敬夫書。論五王事。按南軒以致堂既立其子。難誅其母。當告于唐家宗廟。幽廢武曌之說。爲不然。以爲中宗之昏庸如彼。其復之如反手耳。必須以嘗欲傳位后父之事。執罪名。并廢中宗。於見存宗室中。選立一人。以老嫗罪惡。告于太廟而誅之。則義正理順云云。故朱子答書以爲中宗雖嘗有一言之失。而罪狀未著。人望未絕。則是亦未遽爲獨夫。而乃欲探逆未形之禍。一朝舍之。更立宗室。非所以順人心秉天理。而事亦未必可成。然而此外。又未見別有長策云云。以大賢體道之見。既未得長策。則如五王之有天資而無學術者。Ⓟ 倉卒之際。何恠乎處置之不得其當耶。未知此外儒賢。亦或論及於此。而稍有可行之策耶。伏望明以回教。破此蒙滯之見。如何。

答曰。論五王事云云。朱子定論既如此。更有何可行之策耶。

第四卷。答呂伯恭第二書。不可自悞而復悞人下。按蘓氏之學。流於詖淫邪遁之域。又其文章偉麗。近世無匹。正所謂合楊墨唐景爲一人者。東萊平日議論。於蘓氏每有左右救護之意。不惟自爲心術之害。將不免壞人材敗風俗。故先生辨之至此。以此辭義稍加修潤。補入小註。未知如何。

Ⓟ 答曰。不可自誤而復誤下云云。來諭甚當。然此不過刊誤補闕而已。張皇論撰。非但有所不敢。亦有所不暇耳。

示喻深知前此汗漫之非 止 於此。以上文考之。此字似指戒汗漫而加詳密。況以此學釋之。如何。

答曰。來諭甚當。故今改之曰於此。似指戒汗漫而言。講錄况言此學。恐亦記誤。

謝遣生徒下。似亦有可議者。東萊之學。長於議論。文字不以抄錄流傳爲非。故其弊至此。此爲有可議者耶。

答曰。所論亦當。今改之曰。稽其抄錄流傳之弊。似因Ⓟ自家多出之致。此爲有可議者云爾。

竊聞新除 止 進爲。鄙意以爲纔進。未遽有爲。此處則似不必引莊語爲釋。若以進字屬上文。爲字屬下文看則何似。

答曰。若以爲字屬下。則得賢者進一句。似甚短縮。未知如何。

得伯崇書 止 根本完固。鄙意以爲元來清修寡慾。故養得根本完厚。若作稟氣完厚看。則似非本指。未知如何。

答曰。以根本二字觀之。稟受得之意較多。恐不當專歸之清修養得。今畧加修改曰。稟受培養得根本Ⓟ完固云云。如何。

第七卷。答柯國材書。時事爲和戎所悞下小註。万俟高。万俟史音作墨其。則万字疑非萬字之通用。而此則直書萬字。未知如何。

答曰。万誤作萬。卽改正。

第八卷。答程允夫書。此道理雖看得相似分明。按分明。似當屬相似下。謂看得道理。似若分明也。觀上文見得道理。容易分明。可見。若以相似作與他人同之義看。則非但文義欠分明。所謂分明却與者。似亦不成文法。如何如何。

答曰。以相似二字。若屬分明字讀。則竊恐文勢語意。P有所不通。且上文容易分明之云。與此不相應。鄙意以分明字屬却與讀。庶不悖文理。如何如何。

第九卷。陳明仲問答。於古無初。引皆從其初爲證。亦不可信其必然。未知初字或禮字之誤耶。不然則初字連下文看。亦通。未知如何。

答曰。初字。似本於皆從其初之初。恐非禮字之誤。亦有不當連下句讀。如何如何。

答李伯諫書。拔本塞源下小註。竊非孔孟。按伯諫於孔孟。多方遷就。以曲求其合。則雖不知孔孟之真可信。而亦不敢有非之之心矣。依本文作又不能真知孔孟之可信。如何。

P答曰。毀冠裂冕。拔本塞源之心已竊發。則不能無竊非之心。如何如何。

第十卷。蔡季通坐毀通鑑止并按。是并按其罪耶。按字。若與案通用。則此爲罪案之案耶。

答曰。按是按問之按。恐無他意也。

公濟只管討書止閻家老子下小註。臘月三十日死期云者。似短促不分明。請加數字曰。臘月三十日。乃一歲之終。譬人之死期也云云。則如何。

答曰。所論甚當。今補之曰。臘月三十日。爲一歲之終。比人之死期也。

答方伯謨自春涉夏止苦人事。以上文亦苦此之P例推之。則苦人事似當爲句。而語勢終似短促。若連下文斷續爲句。則語不促而義亦通。未知如何。

答曰。苦人事當爲句。若連斷續字爲句。恐文義不帖。如何如何。

第十一卷。答呂子約。適越北轅下。聞此消息。以爲如何。小註。指東萊。十二卷。答陳膚仲。亦只此下脫去排遣。小註。皆指家務而言。兩處指東萊家務云者。語意似不該備。請以東萊聞之以爲如何之意。及厭家務叢委。便生脫去排遣之意。措語添入如何。

答曰。所論甚當。今補之曰。東萊聞之。以爲如何也。

第十三卷。答胡季隨。所喻兩條下。灑落底功效。小註。P當於此下爲句。判著且做云云。以拚得旬月之例推之。當云判著三五年工夫。而今日判著且做。似未免重複。若以判著連上文功效。作思量功效。便判斷了之意看。而以且做屬下文三五年看。則上下文義。似爲兼到。未知如何。

答曰。初間。果以判著屬上句。後來因諸友論辨。就功效字爲句。未知果如何也。

第十五卷。答徐居厚。罷且歇得數月。罷與歇似重複。若以罷字屬上文。作讀書度未能罷分。且歇得數月之意。則文理似差勝。如何。

答曰。度未能罷之云。於文理有礙。恐不若連下句讀。

Ⓟ不必大段著力記。此下若爲句。則當字屬下文。未免有礙於文理。考之大全。則多有記著記當之文。推以此例。當字似當屬上文。未知如何。

答曰。果失契勘。當以記當爲句。

答鄭子上。心爲粗下表裏虛實。按心爲粗。則粗者當爲表爲實。而小註云裏與虛。以心言。或者表裡虛實字。換置而然耶。

答曰。此表裏字。與表裡精粗者。文同意異。幸更商之如何。

第十六卷。答龔伯著。兩用其心下。有之。只言有命。則命有貧富貴賤之不齊。所謂有之。蓋謂人有富貴利達之命也。無之亦同。未知如何。

答曰。有命之訓。果欠分明。今補之曰。有貴顯之命也。無之反此。

答輔漢卿。年滿七十下。有阻止者。似謂阻止其申狀。而只言勿聽浮議阻止。則似未的所阻止之爲何事。未知如何。

答曰。阻止下。落其申狀三字。故今補之。

第十七卷。答張元德。配義與道下。怕見如此。作恐見分明歷落得箇入處看。則文法義理俱不順。講錄云怕見之意。當止到此下。此言恐是元德所說。必棄本文肆浮說。都忘從初因甚到此。故謂怕見Ⓟ如此說也。如何如何。

答曰。以上下文勢推之。怕見如此。當爲句。蓋謂元德讀書。不虛心靜慮。依傍推尋。使心裡虛明。歷落得箇入處。有若怕見如此境界也。若怕見之意。止到此下。則文理有礙。如何如何。

又說作論語解。接近思錄。伊川先生曰。某始作論孟文字。既而思之。又似剩。然則又說之說。似指伊川說。而此云元德又說如此。亦未知如何。

答曰。他本。已改作程先生又說。而本草忘未改正。來諭疑之是矣。

元不會著心記當下如此己上。作如橫渠成誦己Ⓟ上看。則文義似涉苟且。若作須是如此。己上方有著力處看。似或差勝。未知如何。蓋讀書成誦。方於身己上有著力處。不然則雖讀書。似無著力處。

答曰。此句果失契勘。今改之曰須是如此。當爲句己上。講錄云。向上工夫。或云身己上。未詳孰是云云。如何。

第十八卷。答胡伯量風順地厚下小註。程先生不用墓師。以五色帛埋地。視色明暗。卜地善否。不知帛色明。則是地氣善耶。

答曰。來諭。似得之。

蔡季通春秋無理會下。不須起念儘教它。竊以爲不須起念儘教似爲句。猶言不須儘教起念也。它^P字屬下文亦順。未知如何。

答曰。以不須起念儘教爲句。恐不成文理。如何如何。

別集答林井伯如干下山谷語。先生之因此語。其以趙相見逐。故取譬於婦人之失愛失姑而然歟。

答曰。來諭。似得其意矣。

劉智夫中間下。鹿走山林。其命固有所懸。按庖厨。是宰殺烹飪之所。則此譬喻之言。似指善類之退閒者。死生禍福。懸於新進後生。除異己赴事功者之手也。只作死生禍福。皆有命看。則似無照應。如何如何。

答曰。刊補果不完備。今改各有命三字。以各有所懸。^P如何如何。

如復從之。似謂將來。雖復從之以誅殛之典。亦未如之何。如此看如何。

答曰。從之之解似然。而未敢必其然。此等處。且闕之如何。

別紙 道南書院。講會近思錄疑義。

伊川先生答朱長文書。如持權衡以較輕重。又云。不持權衡而酌輕重。

按較與酌。似亦有別。權衡在我。則不待參酌而可較輕重。若無權衡。則雖竭目勞力。參酌輕重。亦難得中矣。或謂較與酌。是下字偶然不同。不必差殊^P觀。此似不然。未知如何。

不可只於名上理會。

名字。是日月至焉。三月不違之名耶。抑聖人賢人之名耶。

如何是。近思曰。以類而推。

按以類而推。如孩提之童。無不知愛其親。於是乎以類推之。而理會所以爲孝之道。及其長也。無不知敬其兄。於是乎以類推之。而理會所以爲弟之道。以此推之。君臣夫婦朋友之倫及日用凡百當行之理。莫不皆然。於此無不推類而理會。然後方及於天地萬物之理。若不循序漸進近裏思量。而^P遠去高獵。馳心汗漫之域。則斯爲不切己而無歸宿矣。推類之訓。初學未易了會。故妄以己意敷衍如此。未知如何。

學者。先要會疑。

會字。當爲知如默會了會領會之意。或曰。會字當作須字意看。此言如何。

橫渠先生答范巽之書。諸公所論。但守之不失。

息山曰。當云諸公所論。但守之不失。謂諸公但能守之不失。而不能知其然之理也。第上下文勢。恐不如此。故當時諸議。皆以爲當云。守之不失。蓋謂堅守正論而不失。不爲異端所劫也。

學者要須自得條。且見得路徑後。各自立得一箇門庭。

息山曰。是見得學問路徑。立得學問門庭。非見得六經路徑。立得六經門庭。此說爲得否。愚意則以爲看得讀書之義。如此。

子在川上條下小註。朱子曰。固是無窮。須見所以無窮始得。

按天地之化。往者過。來者續。無一息之停。乃道體之本然也。所謂所以無窮者。如斯而已乎。此等處固難質言。而亦不可不思索窮格。故敢此仰告。

學者當以止論語孟子既治。則六經。可不治而明矣。

按治當訓專治也。言二書既專治。則六經。雖不用力專治。而可易明矣。如此看無病否。

時義權中。固不可分先後。而亦不用無分別。故嘗謂隨時量義。義以制權。權而得中。只看時措之宜與未稱物輕重而得其中兩訓。可見。

五經之有春秋止只說得到義。義以上更難說。

按義則雖常人。可以勉爲。所以說得到義以上。卽是聖人之妙用。非精義入神者。未易遽及。所以難說。如大可爲也。化不可爲也同意。未知如何。

書須成誦止但通得大原。後書亦易記。

按大原。是道之大原耶。若道之大原。既已貫通。則聖賢言語。無非在我之理。故於書可以易記。而但讀書窮理。真積力久。然後方可以貫通大原。以此言之。則工夫功效。似不免倒置。橫渠此言。或是如古人所謂存心靜虛。則記性自倍之云耶。抑別有意於其間耶。

人心作主不定下。以張天祺司馬君實事繼之。乍看上下文義。似不連續。

嘗竊以爲人心作主不定。是人家不自作主之病。天祺，君實事。是請別人來作主之病。二者雖若有異。而其勢實相因。蓋人家不可無主。而自己既不能作主。故強請別人來作主。然彼別人者。本非家主。雖一時被請而來。無在此爲主之道。則其家依舊無主。而不過爲一荒屋矣。如此取譬以看。則上下文義。可以連續照應否。

張天祺。昔嘗言自約。

息山曰。約是博約之約。此似可疑。約疑如約定約誓之約。未知如何。

體信達順之道。

體信。是致中和之功。達順。是天地位萬物育之效。若以言釋之。則當日信 體 。
順 達 道 。如此讀之。於義爲得否。

不有躬。無攸利。不立己云云。

Ⓟ按蒙卦六三。以陰柔處蒙闇。不中不正。故爲不有躬之象。則所謂立己者。謂以中正之道立身。而所行無一事之不中正也。或云所謂立己者。是言主宰云云。未知此言如何。

明道先生曰。人有四百四病。皆不由自家。

所謂四百四病。或是醫家語耶。或因由摩經而言耶。皆不由自家。是不由自己以致之意否。

謝顯道從明道先生。明道一日謂之曰。爾輩 止 且靜坐。

按所謂心口不相應者。正以徒聞其言。而不求諸心。故無探討服行之實。而有支離繳繞之弊。能靜Ⓟ坐則精神專一。志氣凝定。所聞誨語。無不分明體認。如是而後。可以見諸行事發明所言之理。故且勸其靜坐。非便爲靜坐爲躬行之事也。或云既曰盍若行之。又曰。且靜坐。以此觀之。則靜坐。便是行處云云。此言如何。

別紙 再問近思錄疑義

較酌二義。無甚異同。遣辭之際。互出成文云云。

鄙意初亦以爲互出之文。後來思之。則較者。計較之謂。酌者。參酌之謂。既持權衡。則不待參酌。而可較其輕重。若無權衡。則雖欲以意參酌。而輕重終不齊。蓋持權衡與不持權衡既異。則較酌二字。似Ⓟ不容無別。此等處。或恐不可以穿鑿目之。未知如何。且以較酌二字。換置於持權衡不持權衡下讀之。則其於文理。亦似不穩帖。果是互出之文。則亦不當如是矣。更入思量回教。幸甚。

觀伊川書上下文義。其云伊川異者。恐當爲是云云。

孔孟門人。不敢自信而信其師。故求而得之。程門諸子於伊川之言。纔不合則置不復思。所以其終所得。與孔孟門人異也。若作與伊川異看。則竊恐初學。未可遽與先生同。且觀上下文義。則雖作與孔孟門人異看。思亦無所妨。未知如何。

或問近思是比類推去 止 朱子曰固是。如爲子則當Ⓟ止於孝。爲臣則當止於忠云云。

近思以類而推。更考朱子說。則有日以類而推。只是傍易曉底挨將去。如親親便推類去仁民。仁民便推類去愛物。如這一件事理會得透了。又因這件事推去理會。那一件事。只管恁地。挨將去。只管見易。不見其難。前面遠處。只管近。此說極爲分曉。問目中。所謂孩提知愛親。長知敬兄。便是易曉底。推

類理會。孝弟之道。亦是挨將去意思。但其立說。未能十分分曉耳。下教朱子說。與此間攷出朱子說。大畧相同。

或問橫渠此書之義。朱子提出守之不失一句。曰。且^P要守那定底止。非其鬼而祭之。敬鬼神而遠之等語。皆是定底。其他變處。如未曉得。且當守此定底云云。

今以下教朱子說攷之。則堅守正論而不失。不爲異端所恟者。似爲近之。蓋正論卽所謂定底。異端卽所謂變諸未曉得者。學者苟能致精思學問。明性命之理。而通幽明之故。則所謂變諸未曉得者。不待卜破。而皆將無所遁其情乎。

或問路徑門庭之義。朱子曰。是讀書之法。如讀此一書。須知此書當如何讀。伊川教人看易。以王甫嗣，胡翼之，王介甫三人易解看。此便是讀書之門庭云云。

以朱子說推之。則此云門庭者。果是讀六經之門^P庭。但未知所謂見得路徑者。是見得六經之路徑乎。見得讀六經之路徑乎。回教幸甚。

往過來續。無一息之停者。與道爲體而無窮。其中必有所以無窮者云云。

前日看得未精。更攷朱子說。則有日日往月來。水流不息等。未是道。然無這道。便無這箇了。既有這箇。就上。便可見得道。若說天只如此高。地只如此厚。便也無說了。須看其所以如此者。如何。又曰。無聲無臭底。便是道。只於無聲無臭上。推究如何見得道。因有水流等物。方見得那無聲無臭底。以此推之。則無窮。卽是物。所以無窮。卽是道。未知如^P此看。則於此章文義。爲得否。

聖人所以作經之意及所以用心處。熟讀諸經。自當有見。恐不必就一書中。比并牽合云云。

諸經。既有聖人所以作經之意。與其所以用心處。則中庸一書。亦不容無之。故就而言之。非欲專就一書中。比并牽合也。且程先生連言聖人所以作經之意與用心處。則意與心。似必有別。以是有別。則必就一書中言之。方可以明其義。故如是仰質。更爲回教。如何。

大原。是汎言大頭腦處。猶近思錄首編。先論道體。要學者求端云云。

^P大原。固與真積力久。通貫大原者。地頭自別。而第張子此言。方論書。須成誦之意。則似亦未遽及道之大頭顱處。更思之。所謂貫通大原。不必看得重。只是通貫一書之大意。則書亦易記云云。未知如此看如何。

若以體信達順。比并中和爲說。則體信。爲致中。達順爲致和云云。

初間。只見程子言上下一於恭敬。則天地自位。萬物自育。此體信達順之道云。故輒疑體信爲致中和之工。達信爲位育之效。更攷朱子說。則曰信是實理。順是和氣。體信是致中意。達順是致和意。言^P能恭敬。則能體信達順云云。方以攷檢不詳。而孿爾立說爲愧悔。今承下教。尤更釋然。幸甚幸甚。

存養致知力行。各有地頭。靜坐是存養節度。不可專以行言止靜坐之工。且要反躬體驗。自是踐履上事。故曰盍若行之。此等處。要當活看。不可專爲一行所泥也止清源正本。萬化攸出。豈可專爲發明所聞誨語而要靜坐耶。

靜坐是存養工夫。固不可專以行言。而既屬反躬體驗踐履上事。則於力行為近。故盍若行之之下。繼之以且靜坐。謂行之之工。且自靜坐始也。清源正本。固是萬化攸出。似不宜專以發明所聞誨語爲言。第上文方言。只學言語。故其學心口不相應。盍若行之云云。則靜坐體驗。要發明所聞誨語。見諸行事者。於此條文義。頗似緊著。正如顏子於燕居獨處之時。發明夫子所言之理。坦然由之而無疑也。况所聞誨語。無非至理。苟能體驗而發明之。則亦豈非萬化之所自出乎。淺見如此。不敢有隱。伏望俯恕僭學如何。

答密菴李丈 乙巳

春風甚惡。伏惟道體起居對時增福。正模。老人氣力。粗幸遣免。而大病之後。不欲拽出精神。故屏人事。捐書冊。過了一二月。自數日前。稍欲溫理收拾。則記性頓減於前日。雖有所見。不能作己物。私憫奈何。刊補一冊。立意命名。俱不草草。要須十分磨礪。無所瑕類。然後方可以傳世行後。而永作後學之指南。如或一字未安。一義未當。則未論他人譏訾。寧不爲斯文之憾乎。竊伏念下執事編輯之意。初只爲子弟謀。不期與四方共之。且必盛德撝謙。不欲以撰述自居。而亦有不得不任其責者。故兼又仰申此悃。蓋欲思衛道惠後之書。歸於十分全完也。戒懼兼動靜說。二丈往復之餘。重以下執事裁擇。未學豈敢有言於其間乎。雖然。警讀乏久。畧有所見。仰陳謏寡。更請批教。此又區區所深幸也。夫子思子當初立言時。以戒懼謹獨。相對言之。分屬於已發未發。則當此之時。未必遽有戒懼兼動靜之意。趙丈之說。有見於此。固不可謂不是。而若推極其本而論之。則靜之時。固無不動之理。靜時之工。獨不可兼動時之工乎。故語類數條說如此。以此言之。則戒慎恐懼。誠可謂兼體用該動靜。而趙丈所謂只管靜時無與於動者。似不免爲偏著矣。退陶文集。論存養省察處非一。而今其書不存。不能盡記。其大意以爲以戒懼謹獨對言。則可以分動靜看。若單言戒懼。則可以兼動靜看。竊謂此語。可解今日紛爭。夫中庸本章。方言戒懼。繼言慎獨。此非所謂對言。而可以分看者乎。語類諸說。只論戒懼而未及謹獨。此非所謂單言。而可以兼看者乎。然則趙丈之說。是因曾祖道所錄。有見於中庸之大旨。而必以爲只管靜時。無與於動者。是守之太過者也。墨洞所說及盛教。則是因語類及胡方答書。推廣中庸言外之旨。而細論道體本原。則固如是也。至於章句所說。常存敬畏。既常戒懼之常字。則是指不覩不聞平常無事之時。以對莫見莫顯幾動獨知之際。夫然後動靜之時。分工夫。方可以分明歷該。未必是貫動靜。皆當戒懼之意也。若夫太極陰陽動靜之說。則既未見當日往復文字。兼以區區之見。正同管蠡。故不敢信口言及於此箇道理。而紙末論道說學。必須反身體驗。然後庶幾言語親切。路徑不差之教。明白正當。正中末學。徒事口耳者之病。今請以戒懼慎獨之義。反諸身而體驗之。未見聞之前。固當敬畏。既見聞之後。尤當加謹。若於未見聞之前。輒思有見聞之後。存天理之際。兼施遏人欲之工。則正程子所謂才思。卽是已發者。而地頭工夫。寧不架疊而差謬乎。至於獨言戒慎恐懼。則天下之理。未有不敬畏於靜時。而濶畧於動時。故固不得不以兼動靜該體用言之也。夫考之文義。既如彼。驗之身心。又如此。故茲敢竭愚仰陳。竊恐妄庸無狀。因此而重得罪於門牆。悚仄悚仄。

答密菴李丈 丙午

P 龜湖奉教日月已久矣。中間伏聞駕臨塔洞。而顧此畏蟄之蹤。未由迎拜路左。且緣承聞後時。未果奉咫尺之候。懷仰儀光。與夫勝地陪從之樂。未嘗不發於夢寐也。卽日秋潦未收。餘熱猶毒。伏惟道體起居以時冲福。正模。奉親奔挈。恰已四五月。東移西轉。備喫生受。奈何。三月末間。尙邑一知舊到院。馳書邀與相會。而以沿途忌患。未果赴約。由迤路更往龜湖。借一使相報于彼。因與龜村僉益。爲數日之欸。時值桃鶯盛開。春事向闌。沂洄遊覽。留姓名于石崖上。既又阻雨。力留一日。恣觀煙雨之空濛。水勢之壯盛。是行也。湖山春景。與夫陰晴勝致。靡不領畧而歸。實世間 P 不易得之奇遊。獨恨不得更陪杖履於其間。穩承親切之教。至今有恨恨之私也。戒懼兼動靜說。自拜回教。益服其援引廣博。開曉明切。區區謏聞。第當篤信而已。復安能措一辭於其間哉。雖然。潛玩之久。實有所不敢苟同者。故敢復陳其一二。蓋欲終始承教。以求至當之歸。豈敢有分門角立之意哉。大抵天地間道理無窮。故聖賢之言道理。亦無窮。如此看便好。如彼看亦好。固不可舉一而廢百。亦不可專此而遺彼。退陶老先生。所謂對言謹獨。則可以分動靜看。若單言戒懼。則亦可兼動靜看者。豈非有見於斯歟。夫來教所引晦菴之說。其於戒懼兼動靜之義。固亦備矣。P 然皆是畧有此意思道理處。而未嘗直以戒懼爲兼動靜該體用。至於分戒懼謹獨。而屬未發已發。闡性情中和之德。別體用寂感之妙者。譬上所引戒懼兼動靜處。又不啻數倍詳備。今見於朱書節要。及心經附註等書者。皆可考也。以此言之。則對言謹獨而分屬動靜者。豈非晦菴所以發明中庸之本旨者乎。單言戒懼而兼該動靜者。豈非晦菴所以推廣中庸之餘意者乎。今乃執單言兼該之數段。而遽以爲子思當初立言時。已有此箇意思。并謂章句或問中所說。不啻如八字打開。則無乃過懲於只管靜無與動之論。而反不免有一邊較重之弊乎。且道理之闡發。自 P 有時節。敢聖賢之所以立言而開曉之者。自有次第。在昔孔門教人。皆就動處發處說。未嘗言上一截也。而至于子思。始發戒懼未發之旨。子思之言。亦只對謹獨已發言之而已。未嘗言戒懼兼動靜也。而至于周子始有主靜之說。朱子又繼之曰。敬字工夫。通貫動靜。而必以靜爲本。正如伏羲文王之易。未嘗言太極也。而孔子言之。孔子十翼之傳。亦未嘗言无極也。而周子言之。其所以相次發明者。益精微而無餘蘊。不但疊床架屋而已。則豈可謂伏羲文王之易。已包說孔子之太極。孔子十翼之傳。已包說周子之无極也哉。又豈可謂孔子之太極。已具於伏羲文王之易。P 周子之无極。已具於孔子十翼之傳也哉。若果如此。則是義文之後。不必有孔子。孔子之後。不必有周子。而易有太極之訓。无極太極之說。皆可刪去矣。雖然。正模此言。非敢以戒懼兼動靜之說。爲不然。實以子思之言。只是對說分屬。當此之時。未遽有戒懼兼動靜之意。故章句或問。則依中庸本章之旨。亦皆對說分屬而已。乃若語類數段及胡方答書。則是推廣言外之旨。而說到十分精微處。學者惟當各隨所言。各施其工。見對言而分屬者。則依中庸本章之旨。而兩進夫戒懼謹獨之工。見單言而兼該者。則依晦菴推廣之說。而益篤乎統體存養之方。夫然後工夫并進 P 而不偏。立言兼該而無弊。既不迷於體用動靜之分。又可知其主翼先後之序矣。窃讀來教。於此有不同。則更無望於必同。夫以高明的確之見。加之以自信之篤如此。必是十分精當。不容更有差互處。而未學之鈍根難曉。一至於此。所以慨然於是而思與之同歸於是當者。其志豈有量哉。雖然。使正模見不逮信不及。而只因此誨語。便相首肯。有疑於心。而外爲雷同之態。則非但有不知爲知之之罪。其混雜流徇之迹。必將重見斥於門下。此正模所以窃自愧懼。久而不知所以爲對者也。伏望憐其迷昧而更賜指教。使正模終得與聞其定論。則何幸如之耶。近思疑義。昨 P 年輒用別冊更質。并爲垂教切仰。

[주-] 獨 : 獨

與顧齋李文 樓

不審卽日。尊體動止奚似。正模昔歲己亥。嘗一瞻光儀於逆旅中。因以陪三數日誨論。竊自幸晚學無狀。自此可得往來問質。而年來苦爲病冗所牽留。迄未克更造軒屏。得近朱藍之餘光。向德無誠之誅。安敢望曲恕耶。別紙所告塞白。回教是望。

別紙

按喪服疏曰。繼祖及禰已三世。卽得爲斬。又曰。養他子爲後者。其子若死則爲其父者。當從疏說而不行三年之喪耶。父爲嫡子。當爲後者。斬衰三年。攷之禮經。不啻明白。則以養子之故。而不服三年。亦近於迫切而不中理。故鄉人有遭此變者。已持三年服。而猶不能無疑於疏說。伏望回教如何。

挽詞。雖哀死之文。而係是吟詠。則國恤五月之內。求之於人。應人之求。似皆未安。而第目今因山之前。士庶人家。無不營葬。葬若不至未安。則求挽應求。亦不至大有所害耶。曾見李白軒景奭爲人挽曰。天崩未敢題私挽。此則以因山前題私挽爲未安。而未知其時。或并與私葬而禁之故云爾耶。因山前營葬之家。虞卒哭諸祭。備三獻行之。似爲未安。或可以單獻行之耶。并爲回教如何。

與權清臺 相一〇癸卯

年來畏痘踰蟄。其不獲承範無恠也。而至於書疏還往。亦一向闕然。雖地左便沒之致。而居常恨仰。寧有窮已也。霜風戒寒。伏惟侍下靜養。對時增祉。正模杜門奉親。粗免他撓。但離索之久。鈍滯轉甚。每念向來京邸遊從之樂。輒爲之發於夢寐。而數舍相間。無緣合席承誨。事冗之敗人意。有如是耶。老兄晨夕娛侍。溫理宿業。其間所得。想有如古人日新富有之云。而如正模者。志力不疆。舊習纏繞。虛送無限好光陰。至今環顧。依舊是魯莽人。異日將何顏面。以對紫芝眉宇。寤寐第切歎懼爾。時奇。非踈逖晚進所可與聞。而風傳一二。皆未有以慰人意。本來踈懶之性。益灰心於世路。每亟欲求山回水複如桃源。宅幽勢阻似盤谷等地。以爲藏拙養閑之地。而祇以驟然移居。無以爲侍下百口計。故迄未能決然長往。悵望異境。爲之夢想神遊而已。

答權清臺

秋涼滿襟。懷想儀範。與夫道院別界。益爲之悵然西望。此際得擎前月廿五日所賜書。一札十行。無非肝膈之要。更有新詩三篇。照耀几案。光彩溢目。諷誦以來。悅接長者標格。更聆精篤之晤。自惟愚曠。有何可取而書面屬意之厚。若是其每每超例耶。感佩之極。旋切慙。從審體候康福。尤用慰幸。正模家有癘警。奉親奔挈。六月末。始得歸頓。而本來偷惰之質。重當如許病冗。尋常書冊之工。猶不能自力做去。矧敢望真實著工於博約知行之間。覩到得古人足目俱到地位耶。以此慄然大懼。益有意於

師友講討之助。六月中以書候密翁。因以屏院會臨之意相告。則回答以爲洞主新遭慘毒。不可暇及此等事。因歎世間不如意事每每如此云云。此會不成。實吾儕欠事。早晚虎溪之會果諧。則豈非大幸事耶。且承以菊秋末間。次第會講於道岳兩院。固當勇赴參聽緒餘。而相距既不邇。又不知向後事故之如何。庸是預慮。河聖則 P 百里命駕。志槩不偶然。且質美向善。可與共學。第從初着力。多爲科學。故性理文字。雖有所見。而例多草草看過。殊無著實體認意思。此吾儕通患。而此友此病尤不少。渠亦自知頗明。想別後勇加矯革。隨症發藥之責。老兄不可辭也。

與李訥隱 光庭

衰病伏隴。一拜無階。悵望仙庄。徒切慕用。潦餘暑氣正驕。伏惟靜養體度對候增祉。先祖行狀及弁首文字。特蒙不遐。有意下筆。私情侈感。奚啻拱璧之獲耶。二件遺落事。既不見於當初狀錄中。則百許年後。因外裔口傳。輒爲攙入。似非慎重之道。茲不敢作意追 P 補。幸望諒察如何。第先祖孝友德行。固已在人耳目。無庸子孫沾沾稱道。而至於學問之工。則尤不可泯滅無傳。先祖早遊慎齋之門。深得道學淵源之懿。平生用力。專在於小學，四書，近思，心經，性理等書。鉛槧溫習之蹟。尚在於黃卷中。又能倡發書院之教。與竹溪畧相先後。以興起斯文爲己任。其有功於後學大矣。至於筆札之工。自是先祖餘事。而亦端重逾緊。深得古人求放心之遺法。并望照勘此意。量宜錄於行狀中。則其在闡發潛德之道。極盡無憾。而君子一言。足爲子孫光寵。豈不幸甚感甚。

與柳慵窩 升鉉○辛丑

P 柳都事丈來過鄙邑。續又柳晦而見訪。始知高駕向洛已有日。甚恨不及前知。未能送之以言也。伏惟行李萬慎。起處連相。夜行極是苦事。何以堪當。奉深慮仰之至。世路之難。本險於羊腸。而矧今火色如彼。踪跡畸孤。緬想高懷。必有大悶難聊處。然此則無如之何。惟當著力於謹慎二字上。於以持身辦職。無不餘裕。而自然有無限好事矣。老兄素養已熟。不必過慮。而其在忠告之道。不容含默。故輒以爲獻。惟冀高明之諒之也。弟杜門奉親。幸粗遣免。而饑歲窮春。已到極頭。未論妻孥啼飢。卽菽水之養。無以繼之。雖吾道固如此。詎能無喟爾之情乎。惟幸閑居無事。苟一意 P 用功於向裡密切處。庶可以無愧於古人以善之養。而乃氣習偷惰。不能勇直做去。寤寐良用歎懼爾。

與玉川趙丈 德鄰○乙巳

正模晚出窮鄉。久仰高名。而地隔羸糧。迄未能承教。以發其蒙陋。則北望幽庄。爲之悵然馳慕而已。迺者竊聞執事。名聞方昭。進爲時用。玉署，薇垣。次第升擢。君子之仕至此。豈非斯世之幸。而區區過慮。竊獨爲執事憂之。既而聞物論。以得言而不言。多有致懣於執事者。而迺正模則讀辭職數疏。益有以知執事苦心處也。最後又聞執事上十條疏。私竊以爲不言則已。言則必不無招拳惹踢處。前頭鉗制之法。亦必緩 P 不下竄謫。曾未幾何。果聞有絕地行遣。益有褻裂拜送之願。而廢居窮鄉。承聞不時。未免中途徑歸。下情悵仰。寧有窮已。不審就途後氣體何似。伏惟天意扶持。行李安穩矣。嗟乎嶺海遠

惡。風霜亂拍。少壯之人。猶不堪其苦。矧執事以耆老之年。值陰沍之節。長程行邁之勞。異域住接之艱。有不可以尋常論者。吾儕相對。孰不爲之傷歎耶。雖然。正模於執事此行。不以弔而反以賀何哉。竊觀今日氣節全掃。投附接踵。言路久閉。喑啞成風。忠臣賢士。目擊世道。莫不深憂永歎。寧欲無生而執事乃於此際。辦得此事。是則不惟在執事爲無愧。實大有光於吾南。大有關於斯世。眞^P所謂砥柱頹波。眞所謂鳳鳴朝陽。吾黨賴之以增氣。當路聞之而落膽。此非可賀者乎。自古被謫者。莫不懷去國之悲。抱畏讒之憂。甚至於涕泣如雨。面無人色者有之。雖名爲尙氣節有學問者。猶或不免。而今執事承命卽行。無所怨悔。以險道爲康莊。視絕域如咫尺。雖了翁之奇哉。季通之不挫。殆無以過之。如無平日定力。則何能乃爾。而將來氣貌。髭髮之勝。亦可以此而卜之。此又非可賀者乎。昔柳子厚謫永柳。自肆於山水間。文章因以大進。此直一文人事耳。且其身名污蠱。不足爲執事稱道。以朱夫子所稱伊川做得易傳。乃是得涪州一行氣力者。敬爲執事祝之。執^P事果能以朝聞夕可之心。懋進德修業之工。既以益求其所志。間亦筆之於書。以與學者共之。則今日投荒。未必爲執事之不幸。而所以扶樹世教以幸來世者。亦庶幾無愧於古賢矣。當宁仁明。必不使執事久處棘路。倘聞賜玦南歸。則正模當匹馬馳赴。候謁軒庄。未前更乞護氣自愛。以副遠忱。

與申察訪 弼貞

令咸兄左訪。槩得動靜。而第此兄來住赤羅日久。不審其間。靜頤體候何似。慕仰之誠。日劇一日。仙洞之遊。寤寐不忘。而桃花春漲。旣成虛負。擬趁秋間。楓菊交映。一者趁候。仍作從容陪遊計。而深恐俗緣未盡。^P天不餉之以奇遊。則雖來秋。亦安保其必無魔障乎。時奇大槩無甚驚人者。顧此咬菜閑漢。何與世事。而時時自不覺仰屋遠床。繼之以吁歎。始信憂愛之天。不以畎畝而間之也。惟幸閑居無事。苟一意向裏用功。庶可以尋向真正路脉。而頹懶氣習。迄不能勇直做去。若此不已。幾何不見絕於長者。時自拊躬歎咄而已。

與申察訪 癸卯

四月中。造候軒屏。適值軒車纔自仙洞還。不得陪教於泉聲山色中。雖同賢胤往。恣觀水石奇壯。且聽奇偉親切之談。而回視積年齋計。殆不可謂全酬。向來^P魔障之云。畢竟若是其巧中耶。歸來悵仰累月。而不能釋也。竊以久潦才收。秋暑未闌。伏不審道體安否何如。區區慕仰。時奇踈伏中。無路得詳。而風傳一二。皆未有以慰人意。雖侍奉人事急於甘旨之奉。而默觀火色。頓無影纒。結綬之念。每讀延平書至今日。吾儕止可於僻寂處。艸衣木食。苟度歲月等語。未嘗不會於心。此實年來志願。誠非外假語也。仙洞景致幽絕。允宜肥遯之所。如蒙許分一半誅茅卜遷。則朝夕追陪。永有依歸之地。茲豈非大快樂事耶。

答李輝祖 重煥

秋日涼冷。服履何似。溯仰憧憧。前書所教。未嘗有有^P體無用之學云者。誠是的論。敢不服膺書紳。

然嘗觀先儒之說。有曰。有體無用。卽老佛之學是已。有用無體。卽管，商之學是已。豈不以徒有體而用不周。則其所謂體者。乃是塊然死物。徒有用而體不舉。則其所謂用者。亦只機械活熟而已哉。然則體用之不可廢一。正模固已知之。特以先立其體。然後用有以行。故平日所探討服行者。每於體字上偏重。非故以用爲可廢。而其迹則恰與無用相似。宜高明之愍然而進之以體用兼舉之學也。顧正模從善受言之誠。則自謂不後於人。得此忠告。當佩服不墜。豈效此詭詭之聲色者爲哉。夫朋友悃切。自是古人之誼。况高明既以此先施。區區亦安敢自分鄙外。而不以一言獻其愚哉。正模於從遊之際。竊觀兄所存。大抵含蓄沉密之意全少。激厲勇銳之習居多。此實古人所謂涵養本體之功。未至而然。以此持身處事。吾恐其流之弊。終必至於有用無體。而不自知也。不審高明平日。亦嘗點檢循省於此。而思有以矯警之也哉。正模此言蓋欲彼此各知其偏。各用其力。使體用兼舉。無所偏廢。乃爲無弊。豈敢有意於立彼我較勝負而有此許多云云哉。願更留意省察。使彼此相規之說。皆不歸於空言。則豈不幸甚幸甚。

與鄭成仲 之錄○丙申

昨承損惠長翰。首尾數十言。諄切懇到。不鄙蒙陋。與論爲學之大方。三復感歎。有以見吾兄謙虛好問之盛意。有非淺之爲丈夫者之所可及也。顧此忼忼。何足以復盛問之萬一。然厚意不可虛辱。亦安得默然而無言也。正模。窮鄉晚出。少而失學。因循沒溺。無所肖似。中間因閱四子小學心經近思錄等書。慨然自念古聖賢之立言垂後。實非苟然。而後學之自暴自棄。爲甚可惜也。遂乃不揣分量。妄竊有意於古人之學。第以質本偏下。性又頹惰。雖嘗用力於講究踐履之方。而昏惑紛擾。無以察義理之歸。放肆流蕩。無以致義理之實。至今乍明乍暗。若存若亡。無一的見處。每反躬浩歎。愍然竊悲。思得當世之博學力行者。而爲之依歸。或可以少變其愚陋之質。而當世之士。雖有才器識量足以自立者。競逐時好。小復留意於古人爲己之學。此正模之所以彷徨一世。求師友之益。而未始有得者也。間者。獲見吾兄。雖知天得之不貧。而獨未知所學者果何學也。前秋得見述懷詩。乃知吾兄志業之卓。有非流輩所及。區區歎尚之餘。每恐以我爲不如而不友也。不意今者惠牋又到。滿紙縷縷。無非過謙不敢當之語。君子一言以爲不智。何吾兄不慎之至此甚耶。所示提掇警省。而無著力勇進底手段。顧正模方患此而未祛。何暇爲吾兄謀耶。雖然。歷觀自古儒賢。學力已牢固。工夫已純熟。而猶未免此患。見於簡牘言語者不一。何況今日吾儕學力工夫。不及前輩之萬一。而遽望其心體湛然。無出入無將迎。豈不難哉。惟當以敬爲存心之方。存之又存。眞積力久。戒懼於不覩不聞之前。謹獨於莫見莫顯之際。功用既如是矣。而又能不計近效。則吾兄去此患不難。而忠告之益。無狀與有之矣。至於入學之方。具載於四子及程朱文集。次第規模。斑斑可攷。則亦何待鄙言之贅也。果能用力於四子及程朱文集。而又能用力於前所謂敬者。則古聖賢地位雖遠。而亦庶乎可以窺企矣。詎不幸甚。

答河進士聖則 瑞龍

聞名識願。爲日益久。去年幸蒙不遐。既歷訪而繼以書。所以勉勵期許之者。迥出尋常。自顧淺陋。雖難承當。而其爲感激。豈可勝云。卽日歲色倏新。伏惟愷悌增祐。征邁倍健。正模杜門奉親。粗有尋溫之樂。而無人告語。慢有忻慨交心。知劇饑荐仍。生事益聊落。菽水有關乏之憂。妻孥無存活之策。事

到前面。不得不撓念。相別經年。進修想日超詣。甚欲馳往叩之。而窮居無馬。未能效昔人命駕之誼。古所謂不但常人離別之思者。政寫出此間心事也。曾與飛鴻亭申丈有共遊仙洞之約。而拘梗如許。迄未往踐。擬趁桃源春^P漲。一作異境之遊。此計倘或入手。則歸路。拜魯谷李丈。轉向高齋。劇論懷抱而歸。實人間一快樂事。而第未知向後魔障之如何也。

答河聖則

茲承前月惠復書。坼讀數回。足罷鄙吝。兼可以發人意思。多感且賀。萱闈體氣增福。第有感暑譽度。奉慮不淺。今年暑雨非常。如兄清修寡慾。亦難免疾患之來。幸須攝養盡道。謫得勿藥。無爲久貽惟疾之憂也。屏人事捐書冊。亦是養病節度。固不必太洩出精神去冊子上。如古所謂書淫者。此等義理。想兄知之必稔。而相愛之深。煩縷至此。倘可恕察而錄用否。三先^P生言敬。儘是心經中要語。知要則能守約。守約則足以盡博。高明看得到此。豈不幸甚。雖然。聖賢言語。皆是赤心說與人。字字句句。無非緊要語。亦不必如此看。昔有人問於楊龜山先生曰。論語二十篇。何者爲要切。龜山曰。無非要切。從今觀之。論語中若仁智若克復。若敬恕若一貫。豈不誠其中最切要語。而先生之言如彼者。豈不以聖人之言。言近指遠。乍看雖似沒緊要處。苟能大著眼硬著力。則就中所得。未必不勝於專務要切處者乎。況心經。是西山真先生所採摭經傳格語。上自詩書所載。下逮閩洛之世。凡諸聖賢傳心妙旨。無不備錄而昭述於其中。一言一句。何^P莫非親切警省也哉。敢請吾兄於前所謂三言者。領其要而用厥功。更於其他訓誥。逐字逐句。一一理會。熟讀精思。積以歲月之久。則德不孤而道自積。未終造詣。自然浹洽。有貫通處矣。切祝切仰。和來瓊章。足見立志勤篤。而尤有感於意寄之不偶也。

二恥齋先生文集卷之三

書

答李小隱 景翼

數舍相間。固難以時合併。惟有書疏往還。可以替顏面叙情素。而近來便稀。或有之。亦每出不意。故迄未果奉一紙以候。居常嚮用之餘。并切欠歎。不自意前月半後。惠存遠及於寂寞之濱。數回披讀。悅接眉宇。更聆精篤之論。其何感如之。至寒漸緊。伏惟溫清餘暇。進修節度對健。正模杜門奉親。粗免他撓。時於陳蠹之中。不無感發之端。傍無師友。未能逐旋論質。抱得遺經。謾有忻慨交心。頃會權台仲契兄于道院。略^P聞錦陽往復說話。而地遠。未能與從者同之。時時語及。屢爲之悵然興懷。自此亦借得刊補冊於錦陽。數次看玩之後。旋有促還之示。故還書之際。畧標其信不及處。兼錄寒泉集數卷疑義。仰稟求教矣。近奉回答。甚有發人意思處。適此冗甚。未能更錄。以正於高明。良用慨歎。

答洪參奉 重寅 朔寧 重徵

初冬戒寒。伏惟大監台體萬重。侍餘僉候勻迪。正模杜門奉親。貧病隨緣。自餘冗撓。無可以煩溷也。國恤時儀禮之失。聞不勝驚歎。繼聞李承宣再陳疏章。已得改章云。遠外風傳。未知信否。而承來喜幸。迨^P不能自定。當初議禮之人。以何爲訂而輒定暮年之制耶。跽蹙蹤迹。尙未見當時議定節目及李疏一本。伏望謄示梗槩。俾猷畝之人。亦得與聞如何。

答吳致重 尙遠○甲辰

嘗一接芝眉於天雲齋賓席。厥后慕用之私。則未嘗一日而去于心也。迺者往赴道院講席。幸蒙從者偕息山丈會臨。一二言談動止間。足覩其胷次操履拔拘儒遠甚。既又相與講其所聞。則又皆親切精當。必欲去皮膚見骨髓。六七日所聞。便可當十年讀書。竊自幸當此法門衰敗之秋。得復見古人而託交也。不意惠書遠及。坼讀數回。悅接吾同人標格。更聆精篤^P之論。幸甚感甚。第正模之忸忸無似。當日相對。意必燭破無餘。此承稱許期待之意。殊不倫於愚魯。莫是憐其^墮墮。故爲獎誇。冀萬一有進於是耶。不然則竊恐有害於君子知人之明也。時氣漸熱。伏惟靜養對時萬福。日從息山遊。且與權台仲。往來麗澤。日間思索操存之工。想必有并進交修之樂。有如正模。素甚頹塌。更此孤陋。時於陳蠹之中。粗有窺斑之得。而傍無師友。絕未得往來論質。良庸慨歎。惠和諸詩。殊感寄意之不偶。不揆拙澁。輒此和呈。可供一拍。只冀益懋崇深。副此期慕。

答金戰兢齋 瑞一

^P信宿相隨。亦幸耳。別后有無限悵惘。旋爲望風馳神。不意數舍專人。辱惠存訊。仰賀垂念。爲切感

戢。卜隣借光。是正模宿願。而棄丘壠違鄉井之際。非但自己有牽連。居送者亦皆傷心。有不捨底意。似此節拍。不免爲決計之一窞。然既與兄有言。何可顧這箇事也。細讀來書松壇古壁等語。恍若更坐孤山。領得無限好物。披嚼詩韻。尤足以洗滌塵全。欲更和以送。而劇忙未果。留俟後便。

答南國老 考 問目

竊觀兩圖及說。見得端的。攷据精博。多發先儒言外之微旨。法門衰敗之秋。得見此等文字。誠不易得之^P幸也。無任歎尚。第其立言遣辭。不專爲傳疑備忘之體。而頗有妙悟獨至之見。故精切處固多。而新奇處亦不少。其意則非不是。而其言則多生硬。所以深潛縝密之或反不足。而語或未圓。此則信手寫去之際。或不免有落字誤字。更望十分消詳。極力去取。俾至於恰好無病如何。正模。本無心得。而近益惴廢。舊聞新知。百不存一。重以山間無書籍。無以照檢卞正。僅此收召精魄。標識其數四可疑處。而神思衰落。知覺昏昧。殆不啻霧中之看花。壁外之聽響。如此而強欲措辭論列於其間。豈不爲不知量者。而重爲具眼者所譏乎。更望憐恕休咎。特賜回批。俾昏謬顛錯者。與^P有炳燭之明。則正模受賜。豈不幸甚。至於言句間小小未瑩處。執事看玩之久。必自有了會者。故茲未暇覩縷者。并賜恕諒。如何。

情意之圖

或問情意之別。朱子曰。情是會做底。意是去百般計較做底。意因有是情而後用。又曰。情是動處。意則有主向。如好惡是情。好好色惡惡臭便是意。北溪陳氏曰。自然發動。或怒或喜是情。運用商量。要喜要怒是意。程子曰。志自所存主言之。發則意也。朱子曰。志是心之所之一直去底。意又志之經營往來底。乃志底脚。張子曰。志公而意私。志剛而意柔。志陽而意陰。^P諸先生情意志意之論如此。其先後之分。亦可見矣。若以來教人將行之說譬之。則情是最初動足處。志是動足直向於彼。意是動足臨歧。有東西疑貳之慮者也。如何如何。又按退溪先生曰。情者。性之發。意者。心之發。分別言之。既已明白。朱子又取二者。相爲用處說。尤更分明。如見入井而惻隱自然發出者。情也。如當惻隱而主張要如此經營極救者。意也。蓋心是合理氣統性情底事。故非但意爲心之發。情之發。亦心所爲也。理無形影。而盛貯該載於心者。性也。性無形影。而因心以敷施發用者。情也。因情之發。而經營計度。主張要如此。主張要如彼者。意也。先儒謂情是^P自然發出。故謂之性發。意是主張要如此。故謂之心發。各就其重處言之。惟孟子知此意。故曰惻隱之心。仁之端。惻隱。情也而謂之心者。情因心而發故也。又曰。志意二字。元來不相統屬。不相首尾。何可於先後耶。不當分而強分之。故往往未免有費力說處。或先或後。當隨事各作一道理看可也云云。以是推之。情意則別白之中。便有相爲用處。志意則元不統屬。似不必費力分先後。而必欲分先後。則不過如上程朱諸先生所論。如何如何。

與李副學 眞望○壬寅

卽日春暮。伏惟省候起居萬重。年來跽伏。久未候出^P處動靜。祇自嚮風瞻仰。晚見廷試榜。知令允高中。此在令允。自是常分。而區區賀悅。豈勝仰喩。正模杜門侍遣之暇。粗有尋溫之樂。而無人告語。

每切忻慨交心。時事。非踈迖晚進所可與聞。而獨請以朱文公所稱朝廷之上。眞見平蕩之風者。敬爲座下誦之。此言雖近。其指則遠。更望勿以人廢言。深留意於此。通議善類。盡心國事。不使偏黨之私。少有參錯於其間。則如愚之愚。雖乾死丘壑。萬無餘憾。至祝至祝。適有校便。暫此掃禿候賀。多少何能盡達。

答上舍族叔 德涵

伏承六日所賜書。奉讀以還。足以破冰院未盡底懷。P第審其時靜攝。有不安節。想應卽收勿藥之效。慕仰無任。正模侍奉餘暇。粗有尋數之樂。而傍無告語。日事頽塌。雖欲就質。其如地崇朝而出無馬何。下示洗心板上韻。自惟不文。尤昧詩法。故雖有李丈勤索。不敢仰副。承先爲和送。終不敢以不能辭。不免強勉和呈。而才拙辭溢。甚無可觀。伏望下覽後。可改者改之如何。寄來詩韻。以淺見言之。雖無大段病處。而似不免有局促底意思。且不論冰山勝槩及勝地追逐之事。故看來似不著題。伏未知如何。

上伯兄晚香齋 戊申賊警時

日前纔聞湖西賊黨。屯聚清州。殺兵使營將。因爲留P陣。極庸寒心。今聞安陰古縣。賊陣成屯。雖未知何人。似是湖西外應將欲犯愼者。自此距彼。僅二十五里。豈料來此近地。見此境界也。惟欲移避老母。自己則將留本衙。待賊到。抵死應變爲計。而未知前頭事果如何也。生丁不辰。胡至此哉。聞湖賊檄書曰。以爲撥亂反正云。則可知其無據叵測也。時警如許。而監，兵營傳關尚寂然。亦可怪也。若道路不至梗塞。則預送板輿及家眷。輾轉還故土。似非失計。而兄主既在遠。卽今留衙者。無陪護之人。良可悶塞。

雜著

自叙

P余生十有七年矣。踈愚狷介。百無用於世。惟居窮守約。嚶嚶古人。是吾事也。至於逐逐名塗。與衆人爭進取。則揣分量才。決不可爲矣。我朝諸賢接武。學術大明。而嶺鄉士風。尤以鄒魯稱。不幸百年之間。躋駁特甚。攻詞章者。尋摘而已。專記誦者。口耳而已。幼而學之。所尚如此。壯而行之。其效可知。如是而謂之士乎哉。如是而國其得人乎哉。若余者。菲才薄質。不及於世儒又遠矣。而其心則動欲師聖而友賢。多見其不知量也。亦必爲囧笑於一世。雖然。人各有所好。亦各任其性焉爾。豈可以人之笑之。而變吾心焉爾乎。吾欲築數椽蝸屋於幽閑明淨之地。治我天官。事我P天君。而年少氣薄。事不從心。計較吾年。居然過志學二歲。吾安得不撫躬而浩歎也。嗟乎。生苦晚而地又偏。恨未得親拜先聖先師。穩侍函丈。而先聖先師之道。則尚留於方策中。人能弘之則道在茲矣。吾黨小子。盍相與勉之哉。

娥林縣榜諭節目

當職猥以不才。承乏來此。此邑弊端。乍到難知。而獨以平日所聞。一二揭榜曉諭。大小民吏。曷不惕念。

一。三綱五常。國之大體。字牧之人。尤當惕念表章。境內。如有孝子順孫忠民貞婦。或身死而不見褒。或在世而人不知者。一鄉之人聯名呈狀。則當職當別樣論報。以爲褒異之地。知此搜聞。俾無遺伏之弊。幸甚。

一。養老之禮甚重。而近來此道不講久矣。其在老老之地。豈非一大欠典耶。鄉中如有八十以上尊老。或年未滿八十。而行誼謹潔可敬者。則當職當發例存問。鄉中相議抄報。毋至一老不得之地。似當。

一。士子當以讀書飭己爲事。不當專以貧富貴賤爲心。顧今比年饑饉。人家生理殘薄。雖不得不稍爲料理。而或以小小問財利。輒入訟庭。實爲士子賤行。幸各誦莫將閑事到公庭之句。參酌減數事。

一。學校首善之地。不可不別樣歸重。而竊觀此縣鄉校。體貌不尊。下賤不識廟庭之爲重。吏胥不知校任之可敬。而爲士者猶不知恥。此豈明倫敦教之初意耶。此後則當各別尊崇。毋至舊弊循習。幸甚。

一。近來南中士習不古。校院揖讓之地。便作戰場。當職愍然於斯。思欲稍爲調劑。故下來之初。首揭此意。幸須一鄉人士。各自勉飭。毋論彼此。務去色目。蕩蕩平平。無惡無猜。俾無如前紛爭之弊。幸甚。

一。當職素性迂踈。不適時用。猝當劇地。必多疵政。且近來縣邑弊端。不一而足。苟非邑子來言。則難可周知。有任名人員外。長老人士。或書陳或面悉。則當職當劃卽罷行事。

一。菲飲食。薄賦斂。乃古聖賢經理要法。當職亦嘗與聞此義。則今當字牧之地。豈無惕慮之道乎。然凡百措劃。非乍到初政所可猝然鋪置。至於飲膳蠲減之節。則庶可以從心所宜。自此惟親養贍備之外。若自己供物。則須十分從簡。以節官用事。

一。酒之爲禍尙矣。糜財費穀。已不足言。而使酒凌人。市場作弊尤甚。故今欲一切禁斷計料。此後酒母或賣酒於市肆。則與耽飲肆惡者。一體嚴治。而其它場監考及下人輩。或不善禁斷。或飲酒面污。則尤當痛治。豫須各別造心。無入罪科事。

一。鄉廳一邑風憲之所。必須得人而後可以爲政。切望三鄉所。各盡其心。至誠奉公。或太守新政。有未合宜者。或一邑痼弊。有不可不革者。無憚隨事來告。俾無政令^{虛分}失之弊。千萬。

賊變時。報營草。此前報草。遺失不傳。

今廿二日。稱爲忠義將者。飛傳一書。言及兵馬相借之事。其心所在。極爲叵測。故卽爲峻却。因卽齎

書論報。而繼聞其日。賊兵自安陰。席卷長驅。其勢莫禦云云。卽令吏胥及軍任輩。速爲起軍。以爲防備之計。則吏胥及千把摠輩。惶恟失措。多有逃匿者。以此之故。闔境物情。一倍洶懼渙散。萬無收拾支吾之勢。縣監^P以一介書生。全昧兵事。倉卒之際。束手無策。更有八十老母。疾病侵尋。委頓床褥。不可同在兵前母子俱死。而無一家人來留將護者。故母子相持。而當日罔措之狀。天日監悉矣。且况半夜之間。賊兵大肆威暴。犯境殺掠。故躬自招呼。則邑里俱空。千把摠軍任及下吏官屬輩。亦皆不告叛去。甚至於竊官馬以歸。不得已以今日全母。明日勤王之意。遂蒼皇負母。十步九蹶。有不忍言。而賊中搜捕又非常。必欲縛致屠殺而後已。然縣監當守死封壇。固是分義所安。故保親之後。方此還官效命。而爲村民遮道矣。因留召募。軍容稍成。卽欲赴陣。而前頭之事。有不可預料。變^P生之後。固當火急奔赴營下。告此實狀。因聽指導。而賊購四布。進退無路。非但前呈回題之尙今阻絕。一身之外。更無隨從一吏。雖欲馳報。其勢未由。只自痛心叩匄。求死不得而已。今使家僮。更報梗槩。而心神荒忙。聲淚俱墜。辭不達意。痛哭何言。竊聞千把摠輩。以降附爲得計。承順賊意。無所不至。盡發境內軍丁。沒出軍器雜物。大同米，還上穀，官廳雜色。一任其掠取。一邑中牛隻收括無餘。軍額外人丁。恣意侵毒。若過數日。則子遺之民。將無以支保。身爲官守。不能禦賊保民。固緣才踈幹拙。亦由母老無托。而倉卒遭變。事機罔措。肝膽輪困。益覺憤裂。夫以縣監之菲才弱^P力。加之以民心之渙散如許。物力之凋弊此極。萬無自主張捍禦賊鋒之勢。且將奈何。目今賊勢。日益鴟張。而寡固不可以敵衆。故以同力濟事之意。方通書于知禮倅與星州牧。茲以緣由馳報爲去乎。伏乞從速發關。討賊方畧。指揮行下。使爲一死報國之地。如何。

陳情文

臣本以遐外賤品。猥蒙恩除。出宰居昌縣。仰體分憂之意。思盡守土之責。而不幸賊變非常。狼狽至此。俯仰人世。寧欲羞死無言。而第其實狀私情。容有可曝於天日之下者。臣以正月二十五日到任。過數^P日。卽爲歸將老母。二月望間。還赴任所。計其莅職日月。僅及一朔。槩聞此邑素稱強悍難治。而物情風土。全未能諳悉。忽於三月二十二日午後。不知何許人。持一封書來。插令旗於客舍門外。急令捉入。則官人輩先爲惶恟駭散。持書之漢。亦徑自逃去。而匈書辭意。殊極叵測。臣不勝驚痛。卽爲走報于監兵營。因欲從發軍。以爲備禦之計。而人心瓦解。物情洶洶。一瞬之間。邑里皆空。躬自招呼。則將校吏胥無一人存者。倉卒蒼皇之際。賊兵猝至。臣之手下。無一吏一卒。隻手當賊。萬無收拾支吾之勢。更有八十老母。嬰疾奄奄。而一兄在遠。他無扶護之人。人子情理。有不忍坐^P俟賊鋒。且老母携持臣身。涕泣相謂曰。爾若在此。則吾將獨出安之。當時罔措之狀。天日鑒悉矣。自念與其母子俱死賊手。無寧暫爲移避。全母命而圖後效。似或一道。故不得已背負老母。輾轉巖谷。蹈躡艸棘。老母手足傷損。膚血糜爛。呻吟痛嘔。有不忍聞。而賊兵始至之初。懸購揭榜。急募縛臣。先斬座首。以張威勢。一境軍吏。怖其威而利其貨。無不靡然服從。嗟乎。人心之蕩然至此。雖有區區忠憤。將安施乎。其時臣思欲直走營門。告此實狀。聽其指揮。而賊購方急。進退路絕。密走家僮。論報此意。一邊通書于右防將，星州牧。言及藉力濟事之意。而更以逆順之義。作曉諭^P文字。傳令本邑上下民吏輩。因以招集叛散。收拾餘燼。庶幾一死報國。以明素心矣。不意二十五日。自營門不諒情實。卽爲啓罷。逢變見罷。其間僅是三日。雖使智者當之。其勢實難效力。而况如臣之踈迂無能。專昧籌畧者乎。重以罷官之後。更無措手之地。乞留營自效。則道臣不許。不得不扶携病母。顛頓還家。而顧念公義。負罪如山。

唯有疾趨輦下。歸死朝廷。爲粗伸分義之地。還家翌日。卽發京行。老母病中。聞臣待命朝廷。驚憂震蕩。不能定情。相持痛哭。辭語悲切。臨當遠離。寸心如割。來伏金吾門外。累日待命。今始置對矣。蓋臣之初計。本欲全老母之命。以伸私情。圖後效以報聖朝。而情爲勢奪。事與心違。終未能效尺寸之勞。勦滅凶賊。上負國恩。下愧私心。身名一墜。罪戾如山。俯仰天地。若無所容。

批曰。求忠臣必於孝子之門。此人不可遠離親鄉。

立春日。書示伯兒六章。

有子而欲其聰明。欲其成立。父母之同情也。今汝行年十有六矣。閱盡通史大學語孟。忤可以有所開發。而情性作爲。尚不覺大異於前。爲父者寧不慨然於斯乎。余險釁愍凶。未承嚴訓。至今粗卞銀根。皆母氏賜也。不忠不孝。離親去國。流移南北。十年于茲。昊天不弔。奄遭風樹之痛。嗟乎今日。雖欲再承義方之訓。尚可得乎。汝當承我之赤心訓誨。俛焉孜孜。作之不掇。則有爲者亦若是。何遽不及古人哉。書此六章。聊以發汝病而藥之。汝其勉旃。

矯輕

學則不固。宣尼有訓。孿爾而對。仲由見哂。母疾爾言。母遽爾色。端厚如山。以育爾德。

警惰

日邁月征。詩經可徵。專心致志。鄒傳有稱。爾體蛾述。爾學鳥飛。習與成性。聖賢可希。

勉謙

握髮吐哺。姬公攸行。無伐無施。陋巷可程。爾謙而虛。爾遜而冲。尊而且光。君子有終。

戒訥

樞機之發。大易斯戒。戎好之起。書經亦諦。禁爾躁妄。遠爾倍鄙。惟德之符。罔敢或易。

教讀

鹵莽作輟。呂稱自棄。涵泳體察。朱云已試。章句必詳。要妙必採。表裏俱到。至樂斯在。

勸行

仁義禮智。天畀之德。孝悌忠信。躬行之目。尊爾所知。敏爾攸行。成性存存。自明而誠。

喪禮記疑

小斂後。主人拜賓之禮。家禮畧之。大殮時。亦別無布絞衾衣之文。既虞卒哭。又闕受服一節者。今不敢明言其微意所在。而按朱夫子與人書。有曰。周時禮文極備。後聖有作。必宜刊去繁文。以此觀之。三條從簡。或出於刊去繁文之意。而丘氏輒爲添入備要書。亦因之。夫小殮。正是攀擗罔極之際。則與襄事大小祥時自別。雖闕謝賓之節。元不爲簡。大殮後。亦因卽入棺。則悲哀惶惶之中。從便爲之。似不害於禮節而推之。則卒哭時。闕其變麻受葛之節。亦不出於遺忘者^P可知矣。固記所疑以俟知者。

儀禮。五服皆有衰負版辟領。而家禮則自大功。除此三者。亦似出於損益得中之意。而楊氏之說。則菴服重制。亦除此三者云。恐非朱子之意。

宋敏求曰。子在父喪而亡。嫡孫承重者。當因其葬而再制斬衰服三年。又喪服疏云。父卒三年內母卒。則仍服菴。夫父喪內爲母爲祖。似無異同。而一則再制。一則仍服菴。朱子并錄於經傳通解。當何所適從耶。今擬父亡在祖父小祥前。則於小祥時。再制斬。小祥後則只申心喪。母亡在父小祥前。則仍服菴。小祥後則服三年。或爲得之耶。

^P承重曾玄孫。遭其曾高祖父母喪。而其祖母若母若妻皆在。則其祖母固當服三年喪矣。祖母既服三年喪。則其母若妻似不當疊行三年。而本服既除後。便同平人。亦甚不安。以素服終三年。以爲得之矣。或曰。曲循夫承重。則從服例以爲祖母若母若妻并服三年喪云云。此不可知也。

通典賀循云。父死未殯而祖父死則服祖以周。既殯而祖父死。則三年。喪服疏云。父卒三年內母卒。則仍服菴。杜元凱曰。父已葬而母卒。則服母服云云。賀說與喪服疏既不同。杜說又與之相異。如此處最變者。當從何說耶。參酌三說而折衷之。則父卒未葬而祖^P父若母卒。則可以服菴。若父卒已葬而祖父若母卒。則可以服三年。

庾蔚之曰。父在之日。母亡已久。則寧可以父亡而變之乎。又曰。凡服皆以始制爲斷云云。推此論之。則父在之日。服母菴之日已久矣。若以父亡之故。而改服三年喪。則其爲失禮可知矣。

心喪人鬚網巾毛匭頭記疑

父在母喪及爲人後者之爲本生父母也。過一菴則喪服已盡。故小祥後。以素服申心喪三年者。是古今通行之禮也。世之居心喪者。例用巾直領黻冠黻帶。而至於網巾匭頭。則多用平時所着鬚網巾毛匭頭。^P此於厚從之道。疑若有未安者。蓋嘗思之。鬚網巾毛匭頭者。皆後世創出之物。而有父母服華美者。無不用之。則是乃平日容飾之物。非心喪時所可著者也。夫生育之恩。昊天罔極。雖以家無二尊之禮。重在繼承之義。不得行三年之喪。而素服心喪之際。其爲哀痛切迫。寧有窮已也。於斯時也。乃用平日容飾之物。未知於汝安乎。近世申心喪者。或用平涼子黻布網。雖未知得中。而似無害於從厚之義。故不肖之爲本生母心喪時。輒依此制。以終三年。因爲書識以示子孫。

[^주-] 鬚：鬚

序

四書撮要圖說序

古昔聖賢之言。孰非切要之訓。而切要中最切要。無以尙於四書。蓋前乎二帝三王之道統源流在於是。後乎濂洛關閩之繼承羽翼。亦在於是。是知四書者。聖學之淵源。而心法之要訣也。然而世教既衰。正學寢微。百家九流之教。濫觴於末流。詞章記誦之習。燎原於季葉。故世之學者。不入於此則入於彼。雖以朱夫子發揮論述。幸教來學。而其能尊信四書。探蹟要旨者。幾何人哉。吾宗龍厓公素嗜學。而又能知學之要。一生用力。專在於四書。於四書中掇其至切而極要者。寫之爲圖。更以近思一書。實四子之階梯。并採其要語爲圖。以附於後。若其卷末。氣質分善惡理欲分善惡兩圖。是其潛玩既久。而自悟解者也。間附小說以見己意。總之爲二百六十四圖。名之曰四書撮要圖說。簡而明。約而盡。凡古聖賢存養進修之要。一開卷而瞭然具備。其用功亦既勤矣。公沒後有年。公之孫永昌甫。訪余於花峯曩居。以是書見示。且請弁其卷。余三復而歎曰。吾先以文學行誼。植立門戶。遺厥子孫。而迺今雲仍散落。能繼祖先之行業者蓋寡。獨公奮起鄉曲。專意學問。既以孝友爲政於家。又發聖賢精蘊爲圖。以詔于後。其制行之純篤。進學之精深。可謂無忝於先祖。而有補於斯文也。噫。世之知道者鮮矣。例以爵祿聲勢輕重人。公亦自貴其道。不少貶以求知。故雖德學之盛如公。而世未之奇也。喫緊之功如是圖。而世亦視之以覆瓿也。雖公不自以爲恨。而人之惜公者。寧不恨於是耶。雖然。我既有見知之實。則人之知不知。於我何損。况異世神交。古固有之。安知後來無有如主父君山者爲之太息而表章焉爾乎。正模。宗中一後進也。地遠生晚。既未及瞻望儀光。捧玩是圖。又無以叩發疑難。爲之撫卷。悵歎而已。至於序文之屬。則自有斯文巨擘者存焉。豈余不德不文。而重以罪廢惴約者之所敢爲也。祇以重違宗君之托。故謹書數語以復之。公諱應泰。字某。龍厓號也。

書藍田遺約條目後序

吾鄉士友六七員。爲其便於徵逐也。與吾兄弟聯名爲一稷。稷之成蓋有年。迄未定名號。一日。余諗于僉曰。請以藍田遺約名之。如何。僉曰。好矣。願子之少有說也。余辭而不獲。卽曰。土之物於天壤。不先後而同一世。不南北而同一鄉。誠幸矣。然所幸者。豈專在於合併嬉怡之間哉。蓋將有以切磋勸勉戒之也。若昔盛際。鄉井州塾有制。而守助勸戒有法。所以恩交而文接者。何如哉。迨世之既衰。人心不古。王化寢薄。斯制斯法。蓋幾乎熄矣。藍田呂氏兄弟。生千載之後。慨然有志於復古。與鄉人約爲四條。而每條之中。又各有節目。凡天地間合做事。無不具於其中。故有宋諸老先生。皆以爲合於先王之制。其言豈欺我哉。敢請稷中僉員。於是四條者。熟講而勉行之。無曰古今異宜而不可行。而直以無古今之異者。未始不可行爲心。則以吾鄉素厚之風俗。何難於一變而至道哉。然則藍田遺約之名。其義誠不偶矣。遂列書呂氏四條及本註于右。而別成如干節目。付列如左。

送壺山宋公序

正模獲譴清朝。南遷高興。爨焉靡歸。來依古寺。時則壺山宋兄首來相訪。一見可知其爲信人。宋兄少業文。中以事冗作輟。迺今年過不惑。而能有意於溫。故既日誦大學。間以餘力。手抄陸宣公奏議。蓋愛其諳鍊多學。明白剴切。不但爲文字之可尙而已。竊嘗聞晉師曠之言曰。少壯好學如日光。老而好學如炳燭。程夫子又曰。人少壯則自當勉強。惟老喜學最可愛。宋兄少壯已知用力。而時年未及於老。果能一此靡懈。積以歲月。則所謂炳燭之光。有不足言。而庶無負於先哲可愛之訓矣。惟吾兄勉之哉。余於羈悴無聊中。喜得兄以自遣。兄亦有蔬食樂共之意。方幸窮途之有仗。一日忽出別語。雖後期有在。難保世故之不魔。安得不瞻望而佇立也耶。前所稱者。相勉之情。後所稱者。自憐之意。倘吾兄受其勉而諒其憐。無徒竊仁號誚之。則又幸矣。

記

八智齋舍記

五老爲吾縣巨鎮。其一支西北走而爲八智山。山形不甚高大而窈窕環擁。自成一區。其中向乾一麓有三塋。卽我七代祖處士府君及六代祖悔堂府君衣冠之藏也。吾申世以文學行誼傳家。至我悔堂府君。益紹述前美。張大家聲。蓋其天得之孝。不待勉強。踐履之學。自有淵源。自上既爲旋閭贈爵。又續錄于三綱行實。與始祖按廉公芳蹟。異世并傳。至今鄉後慕其風聲。建院以祀之。其德之入人也。可謂深矣。繼又遠近士林。相與議以爲不遷之主。故營別廟于墓下以安之。屬當五代祖承旨府君。高祖參奉府君。以次遷奉于長房。遂并附其左方以祭者。殆十有餘年矣。顧以廟宇既成。齋屋未備。每當祭祀。無所於致齋將事。實爲苟簡不敬。適會宗家零替。將不保其舊宅。遂歸其直以買之。相與謀所以從速移建。而歲連大侵。族皆窮約。未遑興作。遷就至今。今年春。遂決意經始。吾再從叔榦其事。凡爲屋七間。中二間爲堂。東西各二間爲房。兩房之南。一間爲祭器庫。一間爲厨舍。前面續擬建立四五間。爲儲峙祭穀之地。而力薄未及也。從叔夙夜監董不懈益勤。凡七閱月而工告訖。以今十月之二十九日。大會一門之老少而落之。會員幾四五十人。酒數行。諸父兄合辭命正模曰。以吾門營是役。幸而有成。此盛事也。爾其記之。正模不敢辭。遂作而言曰。惟我悔堂府君。孝友德行。得於心。充於身。達于鄉黨。而聞于朝廷。其所以立家範衍後祉者。初非有所爲而爲之也。承旨府君。又能篤守家訓。無忝世德。其持身待人之時。藹然有君子之風。而積善餘慶。得發於高祖三昆季府君。并登蓮桂。荐歷華顯。卽今雲仍。雖不免殘敗。而若數嶺下名家。則吾申亦在其中。斯豈非仁者必有後之驗也耶。然則子孫之致齊於斯而行祭於斯者。烏可不適追我先祖之孝友德行。而思所以善繼善述焉爾乎。如或不孝不悌。敗德蔑行。罔學先祖之訓。反貽先祖之羞。則我先祖其肯曰余有後。其肯曰爾能業其家乎。敢請族中僉員。以前所稱者相勉。以後所稱者相戒。既有適追之美而猶以不學爲懼。用是而飭厥躬。用是而貽厥子孫。則孝友家聲。何患不紹述。而吾申一門。其庶幾求久無替哉。

有斐堂記

有斐堂主人柳君士直。請演有斐之義以爲記。余曰。有斐之義。何取。柳君曰。有斐堂者。卽先祖考所命之^P名也。祖考將構堂。先命是名。而因循未就。今大人肯構焉蓋三楹。而涼房燠室粗具。是堂也後背高方。前臨秀德。梅山在其南。大海經其西。海中一小島。名曰琵琶。縹緲橫亘。其形恰似。而更有紅蘼亂植。輝映海門。最爲眺望佳處。自餘春秋花葉。朝暮煙雲。窈窕濃郁。不可具狀。而堂之取名。獨以有斐者。蓋昔高祖生時。有翠竹千竿。環擁宅畔。玉立龍騰。清茂可愛。故祖考竊取淇澳有斐之義。以勉進學自修之工。年來竹根盡槁。枝葉殄瘁。幾至長無尋數無百。而若其格韻氣節。則猶不改其舊。然則子孫之承先志而構是堂者。寧可舍是名而他求也哉。余作而言曰。古今之取^P竹者多矣。或以其節。或以其姿。或取其傲寒。或取其不俗。而迺衛之詩人。有異於是。初言猗猗。以興有斐之進修。再言青青。以興有斐之尊嚴。終言如簧。以興有斐之成就。而爲大學者。引此而釋之。以明明明德者之止於至善。其言如婉切。而其義益淫泆矣。今尊先祖考奮興流俗。有意問學。而所以標題其藏修之室者。不取它景而獨有取於斯竹。不但取竹而兼有取於君子。既以進修自勉於其躬。又推其餘以貽子孫。則其賢於世之君子。取竹之標格。而不反諸己。惟論竹之聲色。而遂遺其實者已遠矣。况其賢子賢孫克世家學。落此一室。揭厥嘉扁。以成先祖考之遺志。^P噫。非祖考之賢。孰能命是名。而以進學自修之工。詔其子孫。非子孫之賢。孰能構是堂。而以進學自修之實。光其祖考。吾知自今以往。凡柳氏雲仍之居是堂顧是名者。皆將有意於進學自修而思所以不忝先烈矣。奚但以竹觀竹。而供一時之吟玩而已乎。余未見士直尊君。而迺士直則相從許久。竊覩其令儀美才。自是佳士。而又能有意於鞭策。益求其所未至。則其啣訓嗣事而無愧於堂扁也審矣。惟士直加覆之哉。若海山景物。花柳繁華。畧剽一二可知其爲奇絕。而若顧匏繫惴約。久謝出入。無因緣一登斯堂。與士直徜徉而吟嘯。則爲之矯首西望而悵然興懷也。

水舍記

水之爲義遠矣哉。載於易。書於洪範。本出造化之自然。因爲吾民之日用。雖或有蹈而死者。而亦不可一日無焉者也。然吾聖賢之取於水者。豈但如此哉。川上之歎。喻道體之無窮也。源泉之云。譬君子之成章也。以至於濂溪之嬉水。伊川之指水。無非所以樂清澈而鑒虛明者。則古聖賢取水之義。其亦淵永矣哉。今宋公之名其舍。不取古聖賢之所取。獨有取於水性之順下受穢。與夫積小成大者奚哉。噫。水之順下。譬則吾性之善也。水之受穢。譬則吾量之弘也。水之合小成大。譬則吾人之集衆善而爲大善者。苟能體^P彼之順下。體彼之受穢。體彼之合小成大。則何吾性之不可復。何吾量之不可弘。何吾德之不能集小而成大乎。然則公之所取。包涵亦廣。何恨不同於古聖賢也。夫以公之性氣豪爽。宇量峻潔。而半世弓馬。未嘗從事於學問。則其於性善之旨。量進之工。與夫取人爲善之方。正不免濶畧。疑若不屑取於水之順下。水之受穢。水之積小成大。而迺其言如此者。豈非知其所不足而勉焉者乎。果能矯揉其豪爽之氣質。則所以成其性者。豈不如彼水之順下。容耐其峻駛之器局。則所以弘其量者。豈不如彼水之受穢。舍弓馬之習。而嘗學問知義理。則所以取諸人而成其德者。^P豈不如彼水之合小成大也。向所謂川上也。源泉也。嬉水也。指水也。亦無非喫緊爲人活潑潑地。何難於窺測而受用哉。惟公勉之哉。

大江書齋重修記

一日。宋君某甫來自大江。過余冠岳曩舍。因見謂曰。余所居里舊有一書齋。扁之以大。搯十餘架。顧其處地卑而棟宇圯。士之藏修於斯者。甚以爲病。頃歲庚戌。里之三數人。有意重修。議克合。遂於舊址之東。累土爲臺。移舊村而新之。間架比初稍減。而凡齋厨之用。登望之勝。實遠過之。其爲增舊觀而幸後學甚大。子其張大其義以爲記。以助羣居講習之樂。何如。余^P重其請而不敢辭。遂請問大字之義。則某甫更以舊齋記文投示。余三復而言曰。齋之取名。若以大江之大。大寺之大。大川之大。大山之大。則所取者外焉爾。不足爲標榜勸勉之資。至於所謂物大之自小。學大之由小。則其取義亦孔富以緊。而其曰小而孝悌忠信。大而成事君殉國。小而四書諸經。大而至義理精微云者。則初無大小之可分而強欲分之。故其言殆不成義理。豈其辭不達意而然歟。子思子有言曰。君子之道。譬如行遠必自邇。登高必自卑。此言由道之小而達于大也。子程子又曰。君子教人。先傳以近小。而後教以遠大。此言自學之小而兼于大也。敢願齋^P中諸賢。大著心胷。高著眼目。師子思之訓而積累擴充。服程子之言而漸次循勉。如自日用事物之小。與聞于天道性命之大。始自灑掃應對之小。得底于聖學誠正之大。如丘陵之積小而成大。若川澤之合細而爲巨。允若茲。庶見道由小而大。而大小之道兼該。學自小而大。而大小之學咸備。透名利小歇之關。服聖哲大方之訓。推以至於義集而生至大之氣。善積而達有輝之大。則自然小德大德在閑不踰。大者小者先立不奪。而所謂純粹之大。直方之大。皆可以囿入於方寸中矣。夫然後可以充男子美大之稱。而齋名之大。其庶幾無大愧也哉。若其憚於遠大。樂爲小^P儒。羣居而族談者。不及於道德性命之大。誇大而鬪靡者。惟在於祿利聲病之工而已。則非今日所以大揭深勉之意也。大齋之士。盍與相顧名而思義哉。至於山水之美。結構之精。則非此齋大義所關兼。亦足目所未及。茲不暇大。

觀水亭記

二恥子謫居蓮花峯下。隣居柳君。還往甚熟。一日。以觀水亭主人之命命之曰。觀水亭。落之蓋久。而迄未之記。子其惠之。二恥子素不文。且此畏約未之應。柳君請勸累不置。則乃曰。記也者。記其實也。必也觀其地觀其人。然後可以記之。今余足未登觀水亭。目未^P覩觀水亭主人。正犯古人不知而作之戒。安敢記爲也。柳君曰。觀水亭主人。有所錄寄。卽此可以發揮也。因出以示。其言曰。觀水爲亭。背山臨水。水匯成潭。悄禱泓渟。自成別區。潭中有嶼。被以幽花異艸。潭上有壇。植以松竹梅柳。地名桃源。取川原蒸紅霞之義。洞名清谿。取道士人不識之義。亭名觀水。取孔孟如斯盈科之義。主人葛巾野服。逍遙其中。有隱遯考槃之義者也。二恥子復而歎曰。奇哉。之亭之景也。高哉。之人之趣也。雖然。桃源有無古稱荒唐。清溪上下。亦涉誕謾。皆長往忘世。托迹仙真者之所企慕。匪吾儒之所宜道也。至於考槃之詩。可徵於經。而碩大寬廣了^P無戚戚意思。則從古隱處之道。孰有善於斯者哉。然則主人桃源清溪之取名。殆不過一時之寓言。而至於隱遯考槃之取義。則乃其平日旨意之所存也。豈古所謂逸民之徒也歟。乃若如斯之歎。歎道體之無窮。而君子以之。自強不息。盈科之取。取有本之如是。而學者體之。成章而達。則聖賢觀水之術。誠活潑而淵永。豈可與世之樂。枕水聽泉之樂。而外焉而非內者。可同日道哉。主人日日登于亭而臨于水。以聖賢之所觀者觀之。用能體喫緊之教。而敦進修之工

。則有得於斯亭者孔多。而隱居所求之志。可無愧於考槃矣。豈羨夫桃源清溪之長往而不返者乎。若余非^P敢樂水而願學焉者也。安得與主人共登斯亭。觴醪搗毛。玩桃源清溪之景。挹永矢不諼之趣。而畢論夫如斯盈科之妙旨也哉。匏繫悵歎而已。

聾隱窩記

此土舍申丈之窩也。何以聾隱名也。古人之隱亦多矣。或隱於耦耕。或隱於荷蕢。近亦有於牧於圃於陶於冶者。而迺吾丈則不然。獨隱於聾。敢問有說耶。申丈隱几而笑曰。坐。吾語子。今夫耦耕之隱。荷蕢之隱。與夫牧也圃也陶也冶也者。其一時寓言雖殊。而其所以爲隱。未嘗不同也。若爾則雖隱於聾。庸何傷於隱。正不必蹈襲前人之號爲也。余又問曰。聾隱之義。^P吾既聞命矣。敢問吾丈之所謂聾者。其真聾者耶。抑佯聾而不聽者耶。申丈又笑曰。吾亦耳目聰明中一人。豈古所謂聽曰聾之癡默者耶。顧今閑議論妄是非。乖激淆訛。至有塞耳而不欲聽者。故吾寧托於聾而自隱。以避乎世者也。烏可與以口爲耳之徐隱居者一般看耶。余遂喟而曰。嘻。公之聾。其聰而聾者乎。公之隱。其有激而隱者乎。昔崔孤雲隱於伽倻。題詩于石曰。常恐是非聲到耳。故教流水盡聾山。公之以聾名窩者。其意蓋出於斯乎。遂書。以爲聾隱窩記。

三亥烈婦記

三亥太守李某將赴任。路值新壻行。心怒其不下馬。^P杖郎數十。既合昏。郎遽死。栲毒遍身青黑。其婦不臨尸。徑卽逃入于邑中妓坊。其家大駭。索之不得。婦素國色。且善歌舞。不數月。聲名爲妓中冠。太守聞而慕之。一日召入于東軒。試挑其意。婦欣然無難色。太守卽欲奸之。婦曰妾未曾經人。雖是下賤。豈可不擇吉相從。太守意然之。既擇吉。婦盛自修飾。又供具酒肴。請先獻情杯。因以薦枕。纔數杯。太守中毒而倒。婦拔所佩^力。剖出其肝。膾食之。天既明矣。吏胥來會于庭。婦曰吾郎之讎已報。吾事畢矣。吾死何恨。顧此手卽見執於彼。此死而不瞑之辱。卽以刀割其手。去肌肉訖。因自剄死。是日觀者。自鄉佐至吏僕。莫不震懼失^P色。而太守家諱其事。但曰在官病發而死云。

二恥子曰。夫婦。以義合者也。必合之久而後情生焉。斯婦也。夫婦之名初定。而夫婦之情則未通矣。乃能不謀於父母。而獨行其志。快雪夫讎而從以死。臨死所處。尤極明白凜烈。噫。其智其勇。其義其烈。皆足爲千古一人。豈不卓犖而益奇壯哉。

[주] 力 : 刀

跋

悔堂先生年譜跋

我先祖悔堂先生。孝友行誼。適追祖武。學問淵源。獨得師傳。當世之人。亦既知之矣。後來學者。又

尊尙而俎豆之矣。至於立言垂後。則先生恒謙挹不自居。故平生罕有所述。既述而旋棄者又多。卽今流落於巾箱者。便同泰山一毫芒。然卽其所存而伏讀之。則亦可以知先生躬行實踐之大畧矣。蓋其沒身孝思。影幀識備矣。求道誠心。亦樂論詳之。而興道倡學之功。可考於書院業儒。齋經始之際。仁民愛物之心。又可見於癸甲賑濟場措施之間。自餘詩賦諸作。無非出於愛親敬兄切問近思之意。則噫此足以傳後。又奚貴於多言哉。歲己未。將刊先生遺稿於本院。正模時曩藥城。諸族以遺稿寄示。并以年譜爲托。噫。藐茲孤蒙。正爾惴約。舊聞新知。百不存一。何敢當此事耶。顧今距先生之沒。且百有六十年。宗中舊老。彫謝殆盡。失今不爲。更後數十年。求先生警咳音容於髣髴。且不可得。况進乎此者乎。遂敢撥昏攷据。輯成年譜。而以孝友錄, 行狀, 師友錄, 墓道, 文字等及奉安文。類次而附于後。因又編次遺稿。以俟當世君子之去取。第恨聞見謏寡。無以闡發潛德。記所稱不明不仁。是正模之所大懼也。觀者恕其僭而補其舛。則幸矣。

敬書退溪先生解釋朱夫子觀書有感詩後

朱夫子觀書有感詩曰。半畝方塘一鑑開。天光雲影共徘徊。問渠那得清如許。爲有源頭活水來。余於斯篇。未嘗不三復莊誦。而猶疑其辭意於觀書之題。不甚襯著。且誦且思。往來於心者有年。今見退陶李先生註釋。眞所謂八字打開者矣。其曰方塘一鑑者。以止水之虛明洞澈。譬人心之虛靈不昧也。其曰光影徘徊者。以塘之天雲來照。萬象無逃。譬心之寂感無邊。應用不窮也。其曰清如許活水來者。設問以爲方塘何如是清澈乎。以有從頭活水源源而來也。以譬人心何如許神明乎。以有降衷至理源源不已耳。如是看則書中之萬事萬變。雖曰不窮。而要皆不外乎吾心所具之理。吾之所以開卷瞭然。體察受用者。亦以其理具於心。而有虛靈明覺之體用焉爾。先生註解之明。殆不啻如親承旨訣而爲之者。豈不誠後世之子雲也哉。

書諸葛武侯事蹟後

漢興。去古未遠。其時人才無不渾厚高偉。後世莫能及。試以東西漢人才。統而論之。其神識如張子房。高尚如嚴子陵。經術如董仲舒。文章如班馬。相業則蕭曹丙魏。將才則韓信, 周, 趙。托孤則霍子孟。自餘人才。固多表表可稱。而求其傑然卓絕者。則此數人是已。乃若諸葛忠武侯。生雖最後。其人品則實兼諸子之長而遠過之。何以明之。躬耕南陽。不求聞達。則子陵之高尚似之。而幡然一出。噓起死炎。則恐非子陵之所可辨也。指麾諸將。算無遺策。則子房之神識近之。而名義俱正。皎如天日。則有非子房之所可及也。鞠躬死已。不計利鈍者。暗同於正誼明道之言。而使之出當夷險。則仲舒之才。不勝其德。伊訓說命。相爲表裡者。遠邁於踈爽密寒之文。而使之發爲經綸。則遷, 固之實遠愧其文。蕭, 曹之畫一。丙, 魏之同心。不過爲漢世之良佐。則其視合宮府爲一體。開誠而布公者。豈可同日道也。韓信之分數。周, 趙之智慮。尙未及無制之兵法。則其視演奇正爲八陣。神出而鬼沒者。烏可一概量也。至如受姬圖而輔幼主。廢昌邑而立曾孫。中興漢業。與民休息。則子孟初節。豈無可稱。而惟其不學而闇大體。履滿而不知止。馴致妻兒怨叛。死無噍類。則與夫受命危難。篤志匡復。竭股肱之力。效忠貞之節。及其志決身殲之後。其子孫猶能死國難光先志者。正相懸絕。眞所謂改日易歲。無等級

以寄言者也。夫前數子者。單提而獨言之。則皆所謂高偉卓絕。不可及之人才也。及其與武侯并舉而合論之。則見其宜於此而不宜於彼。得其偏而不得其全。是知秦，漢間五百年元氣。淳澹磅礴而獨發於武侯。故其天姿學術。渾然自得。忠義才德。無所不周。超越諸子。集其長而時出之。使其從事於商，周之際。其出處功烈。直將與伊，傅，十亂。頡頏而上下之。豈漢家人才之所敢望哉。雖然。在當時。司馬德操，龐德公，徐元直輩。知其爲俊傑。而疑亦未能盡測其所蘊。若陳壽之曲筆妄評。固已得罪於君子之論。程朱以前。獨杜子稱之爲伯仲伊呂。而若王安石者。則以執拗不情之人。輒敢妄詆以爲諸葛有識者所羞。嗚呼。豈非所謂以鴟鵂而笑鳳凰者乎。程夫子於易傳。與周公并數。而稱其爲大賢。又曰。庶幾禮樂。又曰。有孺子氣像。子朱子又曰。義利之大分。武侯知之。又曰。如青天白日。張南軒亦曰。維忠武侯。識其大者。仗義履仁。卓然不舍。夫然後武侯之人品風烈。得以表著而張大焉。此實聖賢微顯闡幽之意也。尹氏起莘曰。不有君子表而出之。則孔明亦後世人物。諒哉言乎。

[주] 畫：畫

箴

元日二箴 并序

上古聖賢。專用力於內。故雖無箴戒之辭。而自有敬畏之心。後世則不然。道術漸晦。文章日繁。標題規警。烏可已乎。此湯武盤盂刀几之銘之所由作。而程朱諸老先生。尤惓惓於箴銘者。良有以也。今余行年十有八歲矣。律身未嚴。制行多愧。以之而用功。如之何進入聖賢闈域。其不免衆人之歸也審矣。卽今三陽來復。衆陰漸剝。天道新矣。我獨不能自新乎。謹做晦齋先生元朝五箴。書此以自警。

窒慾箴

惟天生民。必有情慾。旣熾而蕩。厥性乃鑿。銛鋒莫制。悍馬交馳。善日以微。惡日以滋。懿彼先覺。觀理克治。蠢茲凡愚。任欲自私。我其鑑此。體損修德。視彼壑填。勸我慾窒。蠹賊旣去。心德斯全。由寡至無。聖而天矣。

存心箴

參三并立。曰惟心爾。是心之德。虛靈兩至。四端旣具。萬善斯萃。然其體虛。出入無常。或放或求。惟存與亡。操之有要。亶在誠敬。無微不謹。無隱不省。功力斯到。體用乃全。旣感旋寂。湛然肅然。夜氣一章。盍書紳前。

自訟箴 并序

余質本驢駘。不通世務。惟有忠孝一念。與生俱生。每思隨遇各盡。以無負秉彝之天。不幸去年。變難出於不虞。固知效死之外。無他道理。奈老母在堂而無人扶出何。遂不免背負而出。暫避銳鋒。而其志則將欲先爲管仲之恉。後效趙苞之義。方報于營。而逢變甫二日。棠營不諒情實。遽爾啓罷。噫。罷

官賤臣。更無可爲。惟有歸死朝廷。稍爲自靖之道。故倍途西上。請囚于司敗。何幸天日照臨。俯燭私情。畧地徒配薄罰。未及一年。旋又放還。感祝洪造。尙何言哉。杜門畏約之餘。略叙念咎自訟之意。以爲此箴云。

戰陳無勇。非孝有稱。大夫廢事。不仕可徵。三復古訓。一倍余愧。不死苟免。豈吾雅志。奈彼鶴髮。無人扶護。情切全親。計迂效後。終慙苞義。謾效管悞。豈敢語勇。所期則蔑。旣無官守。更安施設。西上俟命。在義當然。囹圄何怵。縲紲甘纏。臣罪當誅。王法猶輕。待以不死。徒配息程。輦老承娛。足忘曩艱。未及周星。俄許放還。天恩至此。感極涕汪。自念微躬。守土無狀。只徇私情。全負公義。攷志堪悲。究罪難置。不卽金木。暫譴旋釋。如天之德。何以報答。惟當杜門。反躬自艾。力耕十畝。恪奉公稅。暇日劬學。收拾晚歲。旣以飭躬。推以詔子。厥詔伊何。忠孝二字。賤臣報國。外此無地。此箇苦心。天日鑑臨。有或不踐。何異牛襟。文以自訟。言盡意淫。

二獨箴 并序

昔蔡西山先生。編管道州時。以獨行不愧影。獨寢不愧衾十字。書戒其子。此實慎獨之極功。而觀其在謫之日。猶且以是爲戒。則其素患行患進修炯炯之心。又可見矣。余有罪南遷。托身招提。杜門省譽之暇。常有味乎斯言。旣表出書揭。更爲箴以自警。

獨行不愧影箴

天惟顯思。及爾出王。莫謂無視。其視甚彰。爾誠不繼。爾敬不將。行雖爾獨。影在爾傍。爾心有愧。詎間稠坊。君子以之。於焉加養。出門如賓。擇地而踰。載戒橫奔。載止飛揚。容德翼趨。衆獨均莊。胥爾影矣。厥愧斯亡。

獨寢不愧衾箴

神之格思。在爾左右。莫謂無聽。其聽孔透。爾行或差。爾念或糅。寢爾雖獨。衾爾斯覩。爾心可恥。曷異清晝。所以君子。於焉增懋。嚮晦宴息。不欺奧漏。言戒昏沈。言防決驟。安身有得。動靜交脩。相彼衾矣。忤可無疚。

自新箴 并序

余於曩中值新年。戀闕思親之餘。重念負罪深重。不可無追改自新之意。故書此箴自勉。

三陽泰回。萬品載新。天道旣然。人獨不爾。我念前咎。有恥顛泚。負國忠。去家忘孝。難追旣往。庶贖方來。盍思自新。及此元日。躡而復奮。敗而思成。滌我深瑕。懋我新德。勝重以弘。致遠惟毅。篤志發憤。日邁月征。造次必於。死生惟順。睨彼寒藥。勸我晚期。

至日箴。示伯兒。并序

經書冷淡。史書開熱。古之人有是言也。然一向偏廢。則孤陋狹劣。而或害於致知之^P工。余之教汝以四子。而繼之以史漢者。其意豈偶然哉。吾與汝。俱遭巨劫。宜不違於幼學。而顧士之爲學。猶農之畊。圻之鋤。一日不死。則寧可一日廢闕哉。今羣陰載剝。一陽初復。天道新矣。人獨不能自新乎。汝能怵然發憤。體天心。敦吾善。則向後所就。何遽不若於古人哉。汝其勉之。

天道更始。地雷斯復。一陽初動。羣陰載剝。於焉扶養。漸長而六。盍汝體此。奮然用力。斥汝邪思。抑陰同視。長汝善端。養陽是似。邪退而祛。善充以廣。譬彼天時。既泰既壯。天人豈別。理欲非雜。欽哉訓辭。自強不息。

處困篤志箴。寄伯兒。并序

蒼蒼者天。何其不弔之至此耶。生無以相養。死無以臨訣。卽今父子分張。靡所止依。自古罹患者何限。而豈有如吾家之難堪者哉。雖然。素患行患。正要今日得力。寧可因一摧折。遂自因循沒溺。甘心爲小人之歸耶。汝外柔而內稍強。氣弱而志頗堅。果能動心忍性。弗得弗措。則逆意之境。豈不足爲進德之機哉。昔蔡西山居謫。書戒其子曰。獨行不愧影。獨寢不愧衾。勿以吾得罪而遂懈其志。吾之戒汝。亦西山之意也。^P言出赤心。爾其勉旃。

維困進人。爲感甚速。若昔聖哲。幾許逢厄。虞田號泣。文園拘束。七日陳蔡。孔笑油然。千里涪江。程敬益專。蒙亂正志。其德日昇。光輝發越。百世欽承。汝父摧頽。猶尙有意。矧爾芳年。豈可暴棄。罔或因循。爲困所抑。罔或沒溺。爲困所折。言思詳謹。行思敏篤。恭以持己。恕以接物。畏惡如湯。見善如色。篤志經訓。餘力史學。沉潛反覆。咀嚼厭飫。內得既積。外發誰禦。文章華澤。皆自此出。汝父祝望。此最真切。如是用力。困反爲福。吾言止此。汝其佩服。

銘

二恥齋銘

^P孟子曰。羞惡之心。人皆有之。今余忠^{虛兮}負國。一可恥也。孝缺離親。二可恥也。夫人之所以參三而首出者。以有忠孝也。一或可恥。已無以爲人。兼此二恥。將何以立於世乎。謫居小齋。既以二恥名。因作文以誌恥云。

藐吾一身。參三而立。受天之畀。亦有性情。惟羞惡心。從秉彝出。義之端也。無則非人。謂言擴充。庶免大恥。不幸蹉跎。此恥何如。劇寇當前。隻手無奈。全親效愴。負國成讐。臣道^{虛兮}摧。可恥者一。兩速京獄。再逐瘴邊。望雲懷悲。陟屺情苦。子職廢闕。可恥者雙。惟孝與^P忠。居五之首。一之有缺。已或可恥。二者得兼。可堪其恥。是心之恥。其永無窮。浮於乞哀。劇于撻市。天人俯仰。面目覩然。補續方來。亮由恥恥。有恥不恥。本心遂亡。豈不自知。是庸深恥。內省多疚。恥極而悲。濯恥伊

何。發憤忘食。思新厥德。恥不若人。賴天之靈。因恥而進。恥期無恥。寔我思存。二恥名齋。文以述恥。凡百君子。視此恥銘。

說

敬說

惟皇上帝。降此下民。當初付畀。豈偶然哉。人之既生。物欲交蔽。本然之天。不得不晦。則學者烏可不用力^P而明之。以復其初也。復初之方。惟在於敬。持敬之工。寧可忽哉。是敬也。非但學者之先務。雖聖賢未嘗不用力於敬。昔史臣贊堯曰欽明文思。舜曰溫恭允塞。禹曰祗承于帝。湯曰聖敬日躋。太戊曰儼恭寅畏。文王曰於緝熙敬止。武王曰恭天成命。皆是敬也。洙泗以還。言敬漸備。至于洛建。其說尤詳。試一二言之。則孔子曰。敬以直內。又曰。修己以敬。曾子曰。十目所視。十手所指。其嚴乎。子思子曰。君子。戒慎乎其所不覩。恐懼乎其所不聞。周子曰。一者。無欲也。無欲則靜虛動直。程子曰。整齊嚴肅。則心便一。又曰。主一之謂敬。無適之謂一。上蔡曰。敬是常惺惺法。和靖曰。敬者。其^P心收斂。不容一物之謂。朱子敬齋箴。論敬之道。益詳悉無遺。後之有志於敬者。合而觀之。則庶可以知所用力矣。噫。不敬則夢。敬則覺。不敬則鬼。敬則人。不敬則狂。敬則聖。敬乎敬乎。眞存養復初之良法也。不學則已。學則曷不用力於敬哉。

定志說 戊子

余自幼時。每事不能及人。願嘗不揣分量力。妄竊有意於古人爲己之學。第以家貧親老。不得不黽勉應舉。而其得失利鈍。則盖嘗一任於天。而不敢妄有所作爲。干求於其間。雖未知此志之果能堅定與否。而其視當世文人才士之不念名節。不顧死生。一切敏^P銳於進取者。未嘗不愍然竊悲。而繼之以笑歎矣。乙未春二月。設式科于慶山。于時慶邑痘瘟。頗亦滋蔓。而途路則有甚焉。初以爲此是死生關頭。何敢冒危赴舉。而及其試邑消息互傳。或以爲疫患幾熄。或以爲移定慈仁間。亦自有文人才士如上云云者。蓄銳伺發而促裝勇赴。雖不敢以此變其坐停之初心。而其於探問試邑之事。則自不能不勤勤焉。方知曩日之所謂志者。果不能堅定。而其爲學也亦未嘗著實向裏用功。則雖曰爲學。而揆之於聖門所謂眞學問者。何止於百千萬里之相遠哉。於是乎始信三年學。不志於穀者之果不易得。而子朱子壞却心路之訓。^P益親切而有味也。繼自今誓將一意專精此學。其於科場得失。則直以古人所謂不必得之心處之。而推以至於小小利害小小成敗。未嘗有以撓其志動其心。則此豈非學問之見功。而愚者之所當勉者乎。余故作此說以自警。且竊自附於古人志過之義焉。

弘毅說

或問於余曰。聖人之門其徒三千。而曾氏之傳。獨得其宗。然則曾氏之所從事者。果何道歟。曰。曾子進德入道之序。見於大學篇者詳矣。而若魯論所載。士不可以不弘毅者。尤可見其任重而道遠矣。夫仁

以爲任。其弘何如也。死而後已。其毅何如也。此其所以德 P 日進業日新。而終得與聞乎一貫之道也。曰。孔門諸子。他亦有用力於斯者乎。曰。人之資稟有高下。學力有淺深。故師門之所以教。弟子之所以學。雖若不同。而及其要歸。則亦何嘗不同也。試以其一二言之。克己復禮。固弘也。竭才有立。亦毅矣。其所以超越羣英而幾及於化者。蓋以此也。自餘諸子。則雖粗知用力。而鮮有克至者。子路之結纓而死。近乎毅矣。而不知食輒之非義。則於弘遠矣。冉求之悅子道。疑於弘矣。而未免畫地以自限。則於毅違矣。若子夏之所謂博學篤志。子張之所謂執德信道。亦不可謂不知弘毅之說者。而其能刻意而深造。則愚未敢必信也。曰。然 P 則曾子以後。若思若孟。下至有宋諸大儒。亦皆用力於弘毅。而臻斯域歟。曰。然。曰。其所以用力之實。可得聞歟。曰。子思之達道達德。豈非弘歟。不得不措。豈非毅歟。孟子曰。居天下之廣居。是弘也。又曰。夭壽不貳。是毅也。濂溪之中正仁義及嚴密剛果。橫渠之知禮成性與苦心極力。何莫非是弘是毅。而兩程夫子之言曰。弘而不毅。則無規矩而難立。毅而不弘。則隘陋而無以居之。又曰。弘大剛毅。然後能勝重任而遠到。黃勉齋述朱夫子行狀。亦曰。弘足以致其廣。毅足以極其常。由是揆之。舍弘毅而能造道者。愚未之見也。曰。程伯子論弘毅而曰。西銘言弘之道。然則橫渠於 P 弘毅之道。有未備歟。曰。何爲其然也。橫渠德盛貌嚴。致曲造道。精思力踐。無須臾息。真孔子所謂未見之剛者。孟子所謂不縮之大勇。故其六有四爲等說。無非弘毅之極功。其曰。言弘之道者。特以西銘一篇命意。專主於仁體。故如是云云爾。豈以橫渠爲不足於毅也。况西銘之未有曰。存吾順事。沒吾寧也。此與曾子死而後已之毅。實異世而同揆。於此適足以見其弘毅之兼備。子反致疑於未備。其亦不深攷之過也。曰。橫渠之於兩程。固是志同道合。而其所造淺深。或有可言者歟。曰。聖賢造詣。豈末學所敢輕議。雖然。當時評議。傳在方策。泝而求之。則亦可以論其槩矣。伊 P 川嘗曰。子厚謹嚴。有迫切氣像。又曰。其學如管中窺天。見得處最分明。又曰。子厚意屢偏而言多窒。更願涵泳。他日自當條暢。晦菴亦曰。橫渠用功親切。二程規模廣大。又曰。橫渠用功精切似二程。二程天資高。不大段用力。又曰。橫渠之於程子。猶伯夷伊尹之於孔子。合是數說而論之。則意其篤工深造之毅。固同於二程。明睿包涵之弘。或有所不及也歟。大賢成德。固不敢間然。然執程朱之說而論弘毅之道。則見其有如此者。故畧此論述。以俟後之君子。

[주] 畫 : 畫

潘氏論漢文漢武說

潘氏榮謂漢文沉潛而不能剛克。漢武高明而不能 P 柔克。愚竊以爲非知言者。文帝豈徒柔而不剛。徒沉潛而不高明者耶。何者。文帝實三代後第一誼主也。論其姿質。則雖謂之允文允武。能柔能剛。具聖人之體段可也。但其生於燒除經史之後。長於不事詩書之家。無師友之勸掖。絕父兄之教詔。而當時所尚。惟在於黃老刑名。故聞賈生禮樂之說。而謙讓未遑。見鼂錯刻薄之論。而有會於心。如使王季文王爲父兄。伊尹周公爲師友。承襲其德義。薰陶其道藝。則軼成康而齊湯武。殆不足言矣。豈但爲漢唐間令主而止哉。是故。潘孟堅稱其以德化民。允恭元默。胡致堂稱其無事則謙抑如不能。有難則英氣奮發。朱子稱其 P 三代以後。恭儉之主。張南軒稱其天姿近道。呂東萊稱其不盡人之財。不盡人之力。不盡人之心。朱黻稱其權不求重。而人莫之褻。威不求震而人莫之抗。勢不求尊。而人莫之并。推此論之。豈可謂徒柔而不剛。徒沉潛而不高明者耶。吾嘗以爲文帝有高祖之豁達而無慢罵之失。有光武之才明而無駁雜之弊。其渾厚恭儉之德。當求之於三代以上。漢，唐之間。未之再見也。潘氏有見乎帝之謙抑。而

不見其英達。有見乎帝之溫純。而不見其明睿。亦可謂淺之知帝矣。每讀通鑑綱目。見其初至長安。西向讓南向讓之事。及立太子時。推讓諸王之語。與夫賜南越王尉佗之詔。其溫恭謙退包容渾厚。宛然有唐虞三代揖遜底氣像。百世之下。聞者莫不感發。而潘氏乃一切以示民以詐駁之。噫。何其已甚也。至於短喪之詔。固爲盛德之一失。然此不過謙下過甚。不敢上同於先帝而然耳。果使其子有疾痛不安之天性。則豈肯遵一時過謙之遺意。而廢萬世常行之大經乎。然則成其過者。乃在景帝。不當專歸於文帝也。武帝卽位之初。傑然有立。親策賢良。首舉大儒。繼以憲章六學。統一聖真。俾世之學者。皆知宗孔氏崇仁義。謂之高明也亦宜。當是時。帝之心正如止水之無波。明鏡之無垢。若每事皆如此。其盛美可少訾哉。夫何數年之後。神仙征伐之事。封禪土木之役。闐然而發。紛然而作。卒之海內虛耗。天下愁怨。其去亡秦僅一間耳。緣帝好名而無躬行之實。多慾而少純一之德。污潔相雜。政理荒廢。至此而向之所謂高明者。適足以爲天下之害。而天奪其明。反不免爲迂恠夾雜者之所愚弄昏迷。高明之所爲果如是耶。何幸汾水秋風。悔心卒發。輪臺一詔。善端藹然。既往之咎。與化俱徂。而自新之美。照映方來。倏然如風雷之速。炳然如日月之更。此則實有賴於高明之姿。而差可爲處仁遷義之法。然其頻失之屬。視文帝一德有恒之美。相去豈不萬萬乎。使在聖門而品題之。則文帝當進於顏閔德行之科。而武帝則不免歸於曾點狂簡之列矣。尙何以比類而擬議也哉。大抵潘氏議論雖有好處。而踈處亦多。雖有純處。而駁處亦不一。豈窮格省察之功。有所未到而然歟。吁可惜哉。

華夷相勝說

天地之數。有陽則有陰。有淑則有慝。所謂陽也淑也。中華是已。所謂陰也慝也。夷狄是已。若昔上古繼天而立極者。何莫非中華之眞主也。自三皇至于文武。可數也。周衰。犬戎弑王於驪山。漢興。冒頓圍帝於白登。夷狄之侵中國。蓋有其漸也。晉魏以後。裔夷出入之防壞矣。先王荒服之制紊矣。馴致五胡雲擾。二帝北狩。海內幅員。大半爲旃裘之所有。就中最治安而多歷年者。元魏是也。雖然。尙不能光宅中夏。奄有四海。此則天地間陰慝之氣。猶未極旺而然也。厥後中國之盛最。數李唐與趙宋。然李唐之初。已稱臣於突厥。趙宋伊始。亦見困於西遼。卒之南薰門外。綠眼陳兵。五國城中。青衣再繫。迨夫金虜旣滅。元穢更熾。九十餘年之間。腥羶漲於伊洛。氛翳迷於河朔。蓋自開闢以來。夷狄之禍。未有甚於胡元也。而式至于今。則尤有所不忍言矣。大明運訖。金孽更昌。高控燕雲之厄。并吞區宇之廣。植根之固。流波之漫。比之元虜。又不啻加倍。則前頭歷年之久遠。又將不止於百年矣。嗟呼。此何等時也。竊觀天運。邃古之際。陽淑之氣全盛。治日常多。亂日常少。而夷狄不敢犯中國。叔末之世。陰慝之氣極熾。故治日常少。亂日常多。而夷狄與中國相勝負。推此論之。則此後雖有華夏眞主。應運而生。其富教之治。國祚之綿。必將不及於宋明。厥有裔夷種孽。乘釁而入。則其國之強悍。世之久遠。又必有加於元清。率是以往。則末終將見陽淑之氣專消。陰慝之氣專熾。中國盡爲夷狄。人類盡爲禽獍。而華夏文明之治。中原禮義之教。將掃地盡矣。豈不懍然而寒心哉。嗟乎。余生苦晚。而地又偏矣。既不及受塵於唐虞三代之盛。目見喊化之醇濃。又不及周旋於洙泗閩洛之際。面承聖學之旨訣。而乃生於夷狄俶擾。函夏波蕩之際。每聞北來消息。只增裂眚而扼腕矣。常與知心者相語曰。生丁不辰。無一好事。惟眇然高舉。久視長存。得見醜虜之覆。眞主之興。則差爲快樂云云。斯實屈子遠遊之意。而顧今虜賊氣愈盛而數愈長。吾則談龍肉而終未嘗。不惟平生至願。終歸於一時之寓言。人之聽之者。亦多冷看而迂視。良可痛也。雖然。古人有言曰。陽失其所以爲陽則制於陰。剛失其所以爲剛

則制於柔。早晚間聖人或生。則將必有旋乾轉坤之功。而陰陽剛柔。皆可以順其位得其分矣。氣數之醜者。安知其不反醇。世道之否者。P安知其不回泰。又安知天心悔禍。醜類屏迹。作之君作之師者。無非中華應運之真主。而四夷八荒。更入於上古大猷之盛際耶。此吾所以百世以俟者。而計較狂迂。不瑕有甚於北山愚公者耶。昔靖康之難。孫觀語人曰。人不勝天久矣。古今禍亂。莫非天之所爲。而一時之士。欲以人力勝之。是以多敗少成而身亦不免焉。孟子所謂順天者存。逆天者亡。蓋謂此也。或戲之曰。然則子之在虜營也。順天爲己甚矣。其壽而康宜哉。余每讀至此。未嘗不切齒於孫觀。而快心於或者之言也。未知此出於秉彝之天心耶。或者嫉妬太過之攸致耶。必有致卜之者。

一治一亂說

嗚呼。天下之生久矣。一治一亂之運。蓋自唐虞之世已有之矣。當是時。氣數醇濃。大朴未散。故聖賢輩出。明良際會。治日常多。亂日常少。而聖賢之道大行。及周之衰。元氣漓矣。大朴散矣。聖君賢相之出。治隆俗美之化。不復如上世之盛矣。天生我夫子。以爲萬世仁義禮樂之宗主。既而曾子子思繼其微。至孟氏而尤著。則聖人之道。雖不行於一時。而聖人之學。固大明於萬世矣。噫。春秋風雨。戰國軋坤。正值一亂之運。而鄒魯之間。道術雍容。明師良友。相與講明而傳受。此豈非所謂一治者乎。自是厥後。秦火烈矣。漢治雜P矣。佛老熾於魏晉。文詞盛於李唐。一千年間。斯道寥濶。長夜漫漫。是何一亂之若是其久。而一治之若是其遲耶。奎星一耀。渾淪重開。太極通書。首發於濂溪。定性好學。繼闡於伊洛。以至於晦菴朱夫子出。而折衷羣言。集厥大成。繼往聖於千古。開來學於萬世。雖其神明不測之妙。不能如孔氏之大。而其所以建一治之功於大亂之餘者。豈遽在鄒孟下哉。愚嘗以爲衰周氣數。遜於唐虞。故雖生聖人。而不能行聖道。趙宋氣數。又遠遜於姬周。故雖生大賢。而不能生大聖。此則氣數升降之使然。人無以致力於其間者也。雖然。孔孟作而唐虞之道賴而大明。而其學則傳矣。聖P人雖不作。而其道則存矣。茲豈非百世斯文之幸耶。自今以往。更有可懼者存焉。趙宋之後。至于今五百餘年矣。天地間氣數之衰降。又大遜於前日。則一亂之久。必有甚於秦漢之間矣。一治之遲。必有甚於趙宋之際矣。天之生大聖。固不敢望。其生大賢也。亦安保其如程朱之相繼耶。嗟乎。氣數降而聖道不行。氣數又降而聖人不作。氣數愈降而賢人又罕出。則過此以往。一治一亂之運。愈將濶落而莫之徵耶。噫。因氣數而想治亂。亦可以有所感也夫。古人有言曰。天數寒暑也。人事裘葛也。夫諉寒暑於氣數而不事講明者。亦非也。倘有豪傑之士。闡孔孟之旨訣。講洛建P之心法。再建摧陷廓清之功於騰昏倒亂之中。則向所謂衰降之氣數。雖不可遽變爲醇濃。而其於維持扶植之道。豈曰少補之哉。是亦一治也。惟吾黨勉之。

書贈柳秀才說

夫身譬則屋子也。心譬則主人也。有此主。然後其屋方能整頓。存此心。然後其身方能修治。苟無其主。則艸沒於庭。塵棲於堂。屋何以爲屋乎。苟不存心。則視而不見。聽而不聞。人何以爲人乎。今吾賢欲讀而舌本強。欲誦而記性昏。此無他。欲汨利誘而心放焉耳。心放已久而不知求焉耳。求之如何。敬而已矣。整齊嚴肅者。是敬也。主一無適者。是敬也。推以至於常惺P惺法。與夫所謂不容一物者。何

莫非是敬也。昔陳烈姑無記性。因讀孟子求放心一段。遂謝絕人事。靜坐室中。數月後看文字。記性加數倍。此可以收放心者法也。惟吾賢受用吾言。斥耳目口鼻之慾。而一於敬。遠聲色貨財之私。而篤乎敬。讀書時敬在讀書。誦書時敬在誦書。雖泰山當前。而惟讀書之是急。雷霆轟耳。而惟誦書之是務。夫如是則有不讀。讀之。何患其不專一也。有不誦。誦之。何患其不精篤也。今而後。益信敬者。徹上徹下。成始成終之要法也。嗟乎。小仁者。大仁之賊。而無面目者。乃是長久人情。故吾於吾賢有此云云。吾賢勿以逆耳而服膺於斯。則有補於吾^P子進修之工夫。豈淺淺哉。惟吾賢勉之。

辨

游，楊，尹諸公。不著伊川行狀辨。

伊川先生以徽宗大觀元年九月卒。年譜稱先生之歿。昔之門人高弟。多已先亡。故無有能形容其德美者。竊想先生之門。若游，楊，尹謝張諸公。其可謂傑然者矣。五公之中。惟謝上蔡。先先生卒。張思叔稱爲早世。而亦後先生一年卒。其他若游廣平以宣和五年卒。楊龜山以紹興五年卒。尹和靖以紹興十二年卒。居門下之久而知先生者。宜莫如數公。且其卒逝。皆在先生後累年。顧無一人狀先生之行者。何哉。豈先^P生自言我之道。與明道同。欲知我者。求之於此文可也云。故其門人鄭重其事。而有未遑歟。不然則當時蘓軾，孔文仲，薰敦逸等。構誣盛行。至目先生爲五鬼之魁。且以爲有怨望輕躁非毀朝廷之語。其門人亦困於強還等榜。怵於左右異端之說。故深恐其貽禍吾道。有累師門。而有所不敢歟。按先生自涪還居龍門之南。止四方學者。不使其及門。門人郭忠孝自黨事起。不與先生往還。至先生歿。亦不致奠。則游，楊，尹三公。雖非忠孝之比。而其不欲冒犯時議。記述其德美者。亦何怪歟。先生之道。傳諸人。播諸史策。不必待行狀以爲重。而私心慨慨者。恨不得使先生出處言^P行之詳。萃在一書。與明道晦菴之狀。并傳於天地之間。而志學景仰之士。有所觀誦而師法也。南渡之後。幸而有晦菴夫子者出而後。始能博采先生行蹟。以爲年譜。故後來學者。於先生道德淵源。得以一覽而瞭然。是知斯道之傳有待乎人。而所謂後世之子雲者。豈不尤可信也哉。

上樑文

花峯精舍上樑文

千里去國。自幸善地之轉移。一枝巢林。更占別界之營構。庇身有所。容膝斯安。主人白屋清貧。素心忠孝。壽州行義。敢望哺乳之生祥。安邑就徵。蓋爲甘旨^P之便養。適奉母而遭難。情同趙苞。終負國而成讐。迹似管仲。瀛洲五載。與蛟鱉而爲徒。錦山周年。逐漁樵而相友。顧緣聖世之慶溢。再蒙內服之恩移。粥飯共於魚木。初投釋子。情義孚於竹院。晚托宗人。客室斯清。縱待遇之過望。吾廬自好。思偃仰之取便。名區幸占於別天。背山臨水。衆材廣求於諸族。小桷大楹。載拓一畝之基。遂構三椽之屋。營爲太拙而不巧。制度至朴而無文。不數日而乃成。是誰之力。勤百役而無怠。繫宗之功。繩墨不頗。依俛構木之古制。礪斲無用。彷彿因樹之遺風。向之艸樹幽翳之場。今焉幃幪庇覆之所。乾坤造化。相新址而儲靈。風月烟霞。^P改舊觀而動色。圖書在壁。任遮眼於清朝。花葉漫山。足遣懷於窮謫。

이치재집(二恥齋集) 신정모(申正模)

輒效古唱。用勸新功。拋樑東。連峯轟轟鎮高崇。萱闈何許千岑隔。惟有孤雲入望中。拋樑西。國望高山天與齊。十二樓城看不遠。吾將鎮日倚雲梯。拋樑南。卓立千秋道德巖。欲識鄒公眞氣像。後生須向此中探。拋樑北。古堞千雉埋艸色。宇宙卽今休戰爭。任地狐兔此棲息。拋樑上。高空九萬何昭曠。星辰日月上森森。倘察孤臣拱北想。拋樑下。石澗冷冷流不舍。君子以之須自養。流行道體也非假。伏願上樑之後。邪魔辟易。慶祥疊臻。衡門漆宵。絕狗鼠之偷竊。广屋晴景。玩鳶魚之高深。南湘之雷雨滿
P 盈。倏起幽蟄。北堂之歲月畹晚。長侍斑爛。處困愈亨。守約終泰。

二恥齋先生文集卷之四

祭文

祭安季嶠文

嗟維愷悌伊人。實是叔末善士。才聰明質溫雅。稟於性分者不貧。行孝弟習詩禮。得之家庭也更厚。本原既立。人不間於父母弟兄。文辭又脩。名乃播於鄉黨朋友。咸稱黜离窩有孫子。佇見慈恩塔題姓名。白戰場中。雖有叉手之譽。朱衣案上。奈無點頭之期。籍未通於金閨。空懷三千字禮樂。名不登於玉署。虛送四十年光陰。人皆惜有才無施。子獨能安分知命。耕田得粟。足免飢寒之憂。灌塘留魚。可充滄澗之養。勸諸弟以講習。匪亟匪徐。敦一家之安和。有恩有義。庶專物外之清福。不願世上之浮榮。悲夫南嶽之广屋靜深。避豈不謹。西方之毒疾盛張。身遽以纏。尚喜鄭公藥物之甚良。兼恃安氏福履之未艾。必得其壽。擬有佑於神明。迺隕厥靈。嗟不吊於穹昊。資之美而命之嗇。何斯至斯。善不勸而惡不懲。匪慟誰慟。呼孫哭苦。九耄之老親靡依。喚爺啼悲。弱齡之孤子無怙。霜前白鴈。叫失侶於清霄。鏡裡青鸞。愁吊影於寒夜。村閭爲之雪涕。所謂其死也哀。行路聞而興咨。可堪我懷之疚。正模居在數舍之遠。幼無一面之知。通家往來。實自黑蛇年歲。隨處傾倒。幾多青眼逢迎。不幸八九稔以還。而值大小喪相荐。吾荆布之無年棄世。尚忍言哉。尊祖妣之未耄辭堂。重可悲已。有時相對。每增感舊之懷。無日不思。幾吟停雲之句。哀今焉棄我而先逝。悵後也見君之無期。白雪陽春。竟作寡和之曲。高山流水。終爲絕絃之琴。春回一區之湖山。物色深淺。月滿古宅之棟樑。精爽依稀。心雖往而迹留。祇緣我馬蹇滯。物雖薄而情重。用效古人蕉荔。哭不借聲。何嫌墓艸之已宿。言未盡意。尚冀公靈之斯歆。

祭鄭進士之錄文

正模少也。服公名實稔。顧地強百里。無緣一掃其門。歲丙申。尊伯氏處士公。辱虛貳館。待正模以甥。自是正模。遂客習於公。蓋公美質高才。得之天性。又能厲志劬書。不懈人工。文辭斐然。甚有聲梁楚間。乃若所謂插羽翮騰風濤。以張大其門閭。則特公分內事耳。奈之何既掇馬科。遂阻龍門。迄無所獻爲於世。此已冤矣。矧又公天稟堅定。養得純完。方且以頤期之壽期之。而庸詎知未及甲子一終。而遽爾觀化而歸耶。噫尤可悲也。正模卽世上一畸人耳。孤行末路。少所徵逐。獨公許以不麾於門墻。正模每感激知遇。思效微軀。往年正模相地于杜陵。其地距公寓僅一息。公聞余至。馳會中央。相見喜甚。因說杜陵田疇頗饒。子若移就。則吾亦欲卜鄰終老。話語亶亶。吐出肝膈之要。既而正模病不偕計。遂馳書告之由。公答書深歎。事不如意例如此。尚以公年未甚衰。正模時亦疆壯。向來彼此之計。早晏幸就。則庶幾昕夕追陪。過了一生。不幸如今。事乃有大謬不然者。豈正模命薄。無一好事而然耶。自吾之出入公門。首尾僅十許年。而中間連哭外舅若外姑。至今又哭我公。凡宿昔之愛我而眷我者。不復存焉。嗟哉此悲。曷不爲骨驚而魂飛也。公之仲氏獨行。公何不念。公之賢配崩城。公何不顧。公之子女呱呱。而公何不子耶。嗟乎。悌如公信如公慈如公。平日視不悌不信不慈者。不啻若犬彘。而惟今日不能容力於是。意者冥冥中。有司命者操縱。而嗟乎此悲。儘是千古之絕悲。

祭仲父槃窩公文

於乎痛哉。天之不吊於我家若是其甚耶。我王考既不克享永年。先君兄弟俱以盛年棄背。前後二十餘年之間。吾家事若涉川之無津涯。時則仲父獨幸賴天扶持。既奉養慰悅于王母。庚寅。王母又辭堂。我仲父獨任喪葬。竭誠自盡。重念門戶殘敗。日夜勸勉猶子等益篤。歲己亥。正模忝竊科名。仲父喜其立揚。而益教以出身事主之方。雖正模志氣昏惰。不能奉承訓戒。而當初不死而生。以至有今日者。秋毫皆仲父賜也。猶子等每感教育之恩。而圖報無階。常以爲倘^P得同居娛侍過了百年則庶可以塞厚恩而表微忱也。不幸天不悔禍。叔母若從弟。相繼喪逝於周晬之間。有一於此。古人猶或叩盆而喪明。矧茲一時兩憾。實人理所不堪。自是以後。仲父遂有移居之志。既周覽四方。謂猶子等曰。考槃洞一區。寬閑可居。吾當僦屋先往。爾等亦宜次第來就。永修花樹故事。不亦樂乎。猶子等亦聞而樂從之。仲父既移居。生理頗有緒。而猶子等兄弟。年來家益貧。頓無移動氣力。仲父每憫然於是。圖所以轉移接濟而未及也。戊申春。正模偶除居昌縣。仲父不以得官爲喜。而以奉親便養爲幸。促使之趨肅。既肅。卽陪老慈到官。而仲父治^P送從兒。爲館置讀書之計。夫何莅官纔月。逆節猝起。民人駭散。萬無收拾支吾之勢。而一兄在遠。將老無人。人子情理。不忍坐俟賊鋒。遂不免棄趙苞之義。效管仲之恸。罪無所逃。及夫被責於營門。待命於金吾。前頭事機。未卜其出於何場。仲父以是焦心積慮。損傷榮衛。何幸天地至公。日月至明。察私情而恕公義。宥眚災而施薄譴。萬死歸來。復瞻老母及諸父兄。仲父喜劇而悲。不能定情。自是以來。忽忽無意於世事。常以爲世味自辛。郊居可厭。吾欲與汝等。占得近峽一奧區。巖居川觀。艸衣木食。以終餘年。斯亦幸矣。今年元朝後。準擬入峽相地。猶子等兄弟。承仲父志。先^P往周遊。入峽僅數三日。還到龜川。聞仲父疾患非偶。蒼皇奔省。則咳嗽喘息之症。種種危惡。而尚以我仲父。平日氣稟堅定。精力不衰。外來客病。徐當自底於平善。晨昏默禱。惟在於是。卒之藥不見效。病轉深毒。奄忽之間。人事至此。此何事也。此何變也。飲食之失其節耶。藥餌之失其當耶。莫是猶子等行薄釁重。天不憖一老而然耶。不爾。安有端重如仲父。清健如仲父。而不能勝六七日寒疾者耶。去冬。已哭桂坪姑母。今又仲父棄背。痛緒如割。淚眼無乾。孤露生存者。將何所依仰而保遺耶。嗟乎祖先積累之慶。若可以享胡休。仲父愷悌之行。若可以膺厚報。而事之大謬不^P然。一至於此。然則易之積善餘慶。書之天道福善。中庸之大德必得。俱是漫浪語。而子長之是非天道。昌黎之難測天神。果皆怨尤之得正者耶。痛哉痛哉。奈何奈何。幽明異制。日月有時。初欲合塋於叔母墳塋。更念用力他求。或得尤吉之地。則其在安體魄保孤從之道。實爲萬幸。累日從事山家。得亥脉一岡於縣西朴谷里。距家雖數十里。而鷹峯先塋地與之相接。庶幾依歸有所。精魄弗孤。猶子等悲中之幸。惟此是已。嗟乎。言雖顛錯。胡不賜答。奠雖瘠酸。胡不見醊。伏哭筵前。兩涕盈臆。過此以後。何處陪覲。

祭伯從叔文

^P酷哉吾家。何辜于天。兩祖未耋。諸父連捐。若無津涯。家事誰賴。時惟堂叔。同仲父在。名雖二爨。視均同室。寧畦寧畛。孰我孰物。有喜與喜。有憂同憂。相依爲命。前後幾秋。悶余兄弟。未省所怙。母氏低徊。免我赴蹈。雖則免我。孰我教導。粗涉書史。繫公賜也。逮余竊科。喜劇而歎。勛以忠孝。光我祖先。不幸災眚。忍言戊申。賊鋒歛起。闔境風靡。私情孔悲。公義難施。纔脫母命。因赴京獄

。歸命朝廷。恭俟嚴謫。叔於斯時。憂念靡泊。或對人言。汪然涕出。天日孔昭。譴罰差薄。赤羅東畔。是吾曩地。曾未周歲。許歸田里。感戴洪造。拱祝何已。杜訟餘暇。話悅親戚。謂陪巾几。畢此蹤跡。如何 P 如何。家割又毒。仲父先背。堂叔踵歿。無老之慟。倏爾當前。獨立人間。俯仰靡緣。嗚呼曷歸。余懷之悲。彼頑而愚。獲福如期。孔富以昌。亦克終壽。惟此行善。曷不胡佑。既阻鵬路。但有螟嗣。七旬雖稀。仁壽則匱。誰不惜公。在姪則尤。卜葬有期。靈車載途。今宵易曉。厚夜無晨。過此以後。誰極誰因。適有薪憂。杜門呻伏。未效奔走。益切恨缺。哭有餘悲。文不盡情。靈如賜臨。倘歆微誠。

祭先妣夫人文 奔喪後

天之不吊耶。鬼之無知耶。此何事也。此何變也。不肖子平生。罪惡深矣。不孝大矣。先君子棄背之日。兄年 P 纔及晬。不肖則寄妊三月矣。殺身相從。豈非母氏之宿志。而未卽決溝瀆之諒者。徒以不肖等二人在也。既忍痛鞠我。使之免於水火。稍長。更念非現弗友之戒。所以勸督訓誨之者。殆無間於嚴君。雖不肖資性薄劣。不能大有所就。而粗卞銀根。僥倖成名於一科。秋毫皆母氏力也。私竊以爲枯榮遞傳。天道之常。自今以往。或冀有一日之安。而不幸戊申之變。出於夢外。倉猝蒼黃。幾不保母命。當初罪眚。特蒙天日之俯燭。徒配未幾。旋許放還。盖自是後。灰心世事。惟欲杜門訟愆。奉親畢命。此外實無毫髮餘念。夫何白地危誣。又出於勘罪。四年之後。受責投裔。南遷北徙。遽 P 更八九年星霜。陟岵倚閭。情理悲絕。而尙少恃以爲慰者。以我母氏年雖高。而氣力尙彊。且劉夢得云。九年之間。天道少變。庶幾白日回光。歸侍有日。晨昏祝天。惟此情真切。誠未上格。天不降佑。五日毒病。奪我母氏。此何事也。此何變也。天之不吊耶。鬼之無知耶。豈我母氏壽命止此而然歟。將不肖子不孝之罪。通天地亘萬古而罹此毒罰矣。呼天頓地。奈何奈何。人之以有子爲貴者。豈不以生則致其養。病則致其憂。歿則臨訣而茹哀耶。如不肖子。九年相離。忠養缺矣。終至於病不相聞而喪不卽奔。此實天地間極惡大罪。將何以齒列於人數而立於世也。惟欲接踵湔死。 P 奉侍於泉壤之下。而誠微命頑。亦未之得。罔極罔極。奈何奈何。以伯氏嘗冀斷指之至誠。猶未能回春。此則不肖子惡極禍延之致。而天亦酷矣。鬼亦不仁矣。未知母氏之靈。其有知耶。其無知耶。不肖子遭變不死。猶飲猶食。廿許日後。方始奔哭。而北堂巋然。儀形永闕。子之不孝。固宜見絕於人。而母氏舐犢之愛。則似不宜相絕。何不詔之以一言。以通母子之至情也。精魄喪盡。收召不得。略叙至哀之萬一。而顛錯不成言語。伏望鑑而憐之。接儀形於夢寐。而賜教詔如平昔。不肖子終天之痛。或可以少洩矣。罔極罔極。奈何奈何。伏惟。

祭亡室淑人順興安氏文

嗟嗟室人。棄我何亟。廿餘人生。年貌可惜。兩歲夫婦。恩愛輕絕。人情到此。烏得不悲。思之心痛。言亦涕洟。往事如夢。不能盡記。略舉顛末。文以抒意。緬惟執贄。是癸巳春。言結其 P 嗚。載詠束薪。洞房花月。琴瑟以友。幽閑氣質。得自天賦。塞淵心行。可範閨嬪。摯而有別。待我如賓。羞顏未開。久而愈新。得其爲人。我心則愛。一篇女戒。古訓昭載。持以贈君。吾意有在。君性開爽。不迷指示。一言一行。必思顧諟。自修餘暇。推以規吾。厥規伊何。讀書飭軀。顧余鄙夫。不能克從。悠悠至今

。未免恹恹。斯實吾過。可堪愧負。然吾所期。庶幾偕老。P 永受發藥。以無大過。今焉已矣。嗚呼其奈。嗟君既筭。艱厄何酷。尊母遘瘡。宿癢添飭。昏朝侍側。目不交睫。屬冬之孟。我以書擲。西成告訖。北陸載陰。卜吉廟見。盍迨其今。得君回答。辭意懇悲。母疾彌留。不忍遠離。願察余誠。少緩行期。嘉君孝思。許君視藥。曾未幾何。奄遭大憾。我適在豐。聞訃最後。亦既聞之。來哭靈宇。憫君羸弱。且懷胎妊。猝當襁故。羸悴頗甚。形容氣魄。非復前日。相對以慰。勉其節抑。指陳古義。言不厭悉。君亦首肯。謂當佩服。厥後及葬。我又相紼。膠擾之中。獲接顏色。榮衛頓鑠。咳喘又劇。心焉竊憂。甄義明責。丁寧昔日。何不遵克。日無念我。一死由天。虞哭既畢。P 我將言旋。適患感冒。委頓床席。調治累日。厥症少歇。不得久留。歸期云迫。我憐君憊。君憫我疾。黯然消魂。兩情脉脉。察君顏面。殊異平昔。欲言無言。背面却立。一雙珠淚。琅然霑臆。臨當解携。何言以諭。人間離合。古來必有。云胡罔念。而至對泣。君聞我言。愍然不答。出門反顧。中心是惻。春風一別。夏月奄腓。日復一日。魂夢幾費。忽得伴信。言君被疾。遙聞此報。心劇驚惕。時丁山變。累速我獄。抽身無隙。未克親趨。爲探添減。更遣長鬚。長鬚來傳。君疾是痘。君家兄弟。搬挈村塢。家無至親。誰其將護。幸有尊叔。早夜相守。察其寒暖。時其飢飽。問醫問藥。靡不用極。私心默禱。望幸千一。P 屈指計日。幾至四十。一家呼慶。憂慮頓釋。如何不淑。別症添發。臼中有火。因上生風。不吊昊天。乃遂不興。以君心德。應享胡福。緣吾積惡。禍至此酷。當其疾病。既未親藥。及厥隕命。又不臨訣。人生斯世。孰無是哭。幽明茹恨。念我獨兮。匹馬渡洛。薄言臨哭。寂寞興泉。人事異昔。秋蟲吊機。鳳梭閑擲。黃塵沒壑。鸞鏡誰拭。如見君容。熟視難接。如聞君音。靜聽不覺。虛窓夜月。獨留陳迹。清輝皎然。髣髴精魄。春衣一襲。臨死襖襪。今來見此。一倍摧裂。吾豈敢忘。服之無斃。生前好緣。倏如風燭。地下他年。誓永同穴。銘吾之心。刻吾之骨。謂余不信。有如皦日。丹旒翩翩。白楊蕭蕭。秋山物色。P 倍增悽搖。有奠不食。有言不答。嗟嗟室人。胡遽相薄。言亦不極。情亦難裁。君如有靈。其亦歆哉。

祭淑人東萊鄭氏文

嗚呼。父母兄弟妻子。是謂六親。六親者。至親至切。不須與離者也。不幸而六親之中。有作數百里之行。一二朔之別者。則居者有攀送惘然之意。行者有反顧可憐之色。此實人情之必至。而今昔之所同也。矧伊遭震剝驚蕩之變。行賚居送。俱不得其常。而仍成數千里嶺海之行。繼之以十年不返者乎。矧又減等恩移。庶幾全釋之有望。而終未克合併。仍成千古幽明之訣者乎。此則悲絕中最悲絕者。雖如釋伽老子P之淡然忘情者。想亦不能不隕淚於斯矣。吾之幼少時。孤苦愍凶。尙何言哉。母氏忍死顧復。免我於水火。諸父述古訓戒。開我以詩禮。逮歲己亥。僥倖得一科而歸。母氏喜極而悲。垂淚而拊余頂曰。天之弗吊。吾家極矣。自今以往。或者悔禍而啓佑之乎。汝當早夜祇謹。以承天意可也。一家內外。又交口致慶於君曰。二十四而得爲官人妻。實遐鄉稀事。非君之厚德景福。何以致此。嗟乎。孰知夫賀語纔騰。灾眚踵至。遽遭娥林萬不料之變耶。于斯時也。親命之危。僅一髮耳。况可論妻子耶。幸而老慈獲全。百口亦無恙。而爲伸私情。全沒公義。揆以王法。罪不容赦。聖上哀卞P莊之有母。恕仲約之無軍。略施徒配。俄許放還。自是以後。君常語余曰。吾家福薄。乍得一邑。遽遭此變。前道事可知。不如棲身畝畝。效陶翟之耕耘。以沒年齒。斯亦幸矣。其言甚協吾意。方欲奉母兄入山林。爲墾荒食力計。嗟乎又孰知人言罔極。三數年後。再就理而仍島配耶。興陽是南海極邊。去故土千有餘里。初欲携君以來。與同甘苦。更念親年已老。若見全家搬挈之撓。則必大傷心不自聊。故姑寢是計。而幸望天日

之回光。在謫五年。王世子誕降。遂恩移于錦山。錦山距家比興陽。不及三之一。歲纔一周。又付處于忠原。忠原雖不加邇於錦山。而兩邑大夫。皆肯 P 揣人情。許其歸覲。歸覲之際。母氏有喜色。兄弟環侍怡愉。妻子笑語欵欵。其樂何如也。及厥既覲而歸。老親爲之不樂。伯氏爲之淒咽。妻子爲之竚立以泣。其悲又何如也。自念累蒙移轉。今到中道。前頭快釋。卽次第事耳。且親年雖近大耋。而精力尙康。無小小疾患。早晚大歸。行將有歸。侍團會之樂。嗟乎又孰知移此多年。猶未脫於丹書。而遽遭昨年巨劫耶。吾不忠不孝。離親去國。終至於親有疾而未之侍。親既歿而未之憑。廿許日後。方始緩緩奔哭。極惡大罪。無所逃於天壤間。顧今親不在矣。妻孥無可恃矣。三年喪後。猶未全釋。則逝將挈妻兒歸曩寓。共喫晚景苦辛。 P 差足慰久別心事。嗟乎。又孰知大喪後僅一周。又遭我卿卿喪耶。去冬十月。載卜親葬。而其時村痘大張。當夜移殯。僅僅克襄。以山下逼邇痘所。改討寓苦於新堤。期以刻日搬移。虞哭既畢。余亦匆匆還曩所。去留情懷。比平昔尤惡。厥后因金友下去。略寄一書。得其回答。則移新堤不數日。痘警又發。又移于田垌。而再從弟又始痘于其處。故現今移住于院堂竅谷中云云。聞來頗極危怖。而亦乏使。未克再探。俄又星紀遽更。而余之老隱寓所痘火。又燎原矣。朝東暮西。在在寓突不黔。二月中旬。余與萬昌。艱辛轉移于德周。三月初吉。因遊山僧。始通此間奔挈之報。而其僧不 P 以時返。無緣得回書。不知君已於四月之初六不興。不寤而恰過一望之後。方始承凶。悲夫病而不視。喪而不臨。比之昨年終天之痛。雖固有間。而均之爲不近人情。夫孰曰六親之親。而年年乃爾耶。每覽昔人銘旌下淒咽。未嘗不太息流涕。庸詎知此事當我之先也。吾素不能治生。妻子常有飢色。分析以來。寒乞轉甚。卽今初終與葬具。凡百草率。萬不能無憾於情。生離死別貧病。良覺悲苦也。尤可痛者。吾雖十年居謫。而君能在家料理。家事有所恃。祭薦有所賴。子女亦皆依仰。今君已矣。家事更誰主張。祭薦更誰奉將。子女亦誰救護耶。固當挈歸于曩寓。而既無可容之 P 屋。又無可畊之田。可使之奴。向後未知更如何也。此等事入念解覺。頭促白而涕汪汪。君何不以善處之意。接我於夢寐而明告之耶。嗚呼。君之生世四十五年。與吾夫婦又二十五歲。而十年以來。余作嶺海間人。計其居家同苦樂日月。則不過十五年矣。吁人生其短矣。世緣其倏忽矣。雖死生一度。人所不免。特先後早晚差異耳。吾亦飽喫風霜。血氣凋落。自夫去年大故之後。肌肉消瘦如枯藤。頭髮衰颯如亂絲。若此不已。幾何其不從君以死耶。死而有知。其地下相從之樂。定應不減於人間。如無知。亦可以回暫時之悲。而爲無窮之不悲矣。以此自慰而慰君者。其亦太蹙 P 短而尤切悲也

哀辭

族兄上舍公 重模 哀辭

嗚呼。吾門近益衰。尙倚公以爲重。今公又不少留。此曷故焉。惟公美質高才。又能好學而文。結髮爲學子業。甚有聲梁楚間。朝夕期公插羽翮。騰風濤。以張大我門戶。不然。猶靜裡劬書。既以淑其身。間率村秀才子。相爲成就。亦一事也。奈何既拾馬科。旋罹奇疾。溘溘六七年。奄然就盡。向所期二事。未克諧其一。此已悲矣。抑又有切悲者。 P 老親年近七旬。何不侍傍而致養。一子纔長成。何不終教以立身。嘉婦承序。亦何不福履以顧綏也。豈暝暝之中。有能制其死命者。使公不能自力而然歟。悲夫悲夫。略道公志行梗槩。以叙余之悲哀云。辭曰。

吉日兮辰良。送公歸兮山之陽。公生世兮僅卅餘。何大限兮苦不紓。憶公平昔兮轉痛裂。慈詳豈弟兮才又超絕。出則有爲兮處有守。吾於公兮竊期不朽。再入太液兮摘蓮荷。俄不幸兮抱劇痾。北牖下兮歲月多。神不勞兮迺公何。公之死兮正酸辛。鶴髮千丈兮堂上春。有婦變婉兮纔入門。後公數月兮逝作孤魂。
 P 孰無禍變兮疇不喪亡。念公家兮增噎傷。直欲執此理兮問彼天。天冥冥兮不可緣。晷雨淫淫兮火傘慄。星言夙駕兮就窀穸。朱旗導前兮素嬰以隨。風色昏黑兮真宰爲悲。青山日暮兮墳土晞。良士一去兮不復還。送之以言兮情不極。嗚呼已矣兮只堪慟哭。

李子聃 猶龍 哀辭

不佞畸于世。少所還往。獨吾子聃。辱與之交。既又聯名。修藍田約。每年輒真酒。相會于城南村。蓋將以勸德業而規過失。其相須相期之意。奚庸淺薄而已哉。嗟乎。吾黨今年。是何運氣。既喪校洞兄。又失吾子聃。
 P 向之所謂同約而相須者。只餘若干人。地上後死人如正模。安得不哽于喉而泣于背耶。惟子聃有志行。有詞華。位于朝。可以黼黻王猷。藏于家。可以誘率鄉後。卒之命蹇時乖。迄未克諧其一。而抱疾滂滂。三十一而遽歸。此已悲矣。更有絕悲者存焉。子聃出后于伯父。今其兩庭老親俱無恙。有丈夫子一人。時未及長成。使此行或可少緩。則必不忍捨夫親若子而死也。乃瞑然漠然。一往不復。豈子聃孝慈之性有衰哉。是知冥冥之中。有能制其死命者。使子聃
 P 不能自由而然。豈不重可悲乎哉。今國恤方棘。因山未經。排批聲律。似或未安。遂製古體二十句。庸以道情素而紓悲哀云。

惻惻復惻惻。死別悲消骨。君年纔過卅。世緣何倏忽。莫是悼焚濁。杳然以高揭。天維主下人。報施初不滑。如何天亦老。是理久恍惚。彼頑而獲福。此哲反見別。從古揔如斯。太史亦嗟咄。哀哉雙老爺。撫膺悲緒惛。孤妻抱弱子。血泣淚欲竭。永念平生事。我痛更不歇。初隨翰墨場。到處揖餘醇。逮修藍田約。契誼尤密勿。年年一樽酒。會遊城南月。追逐非閑謾。道義期存沒。其如善良儔。福祿也不膺。族兄大歸日。哀誄纔綴筆。
 P 嗚呼子又逝。吾黨轉孤抗。朱旗導靈輜。走向山一髮。可憐我良友。曷爲入土窟。聊將一言贈。此別千古濶。

李子達哀辭

嗚呼。吾友子達。天質瑩然以清。又能服庭訓知學問。發爲文辭。亦斐然可觀。乃若發軔華國。特分內事耳。不然。猶山間咬齋。做得實工夫真事業也。若之何二。不諧一而遽死。年又遜孫郎一歲。嗟呼。子達何短也。又何冤也。雖然。此猶謾悲。更有絕悲者存焉。夫以子達平日。既孝而友。又信而慈。而迺棄親離兄。遠妻屏子。愬若不孝不友不
 P 信不慈者然。是果子達之本心耶。嗟呼。壽短一定。聖智莫逃。則子達於司命者處分。亦獨奈何。吾知子達長逝之魂。私恨無窮。而猶能順變觀化。不拂天理。此足見子達修俟之懿。於子達何問哉。吁其孔悲矣。葬有日。適有故。闕臨訣。替叙數行哀語。以紓余之悲悼。且以慰子達於幽昧云。辭曰。

子之茂兮。天得何豐。玉雪其表兮。水月其中。聞詩聞禮兮。既博以通。吐而爲言兮。燁然其光。出遊翰墨兮。譽聞孔揚。喟余畸人兮。世無偕偶。獨子不遐兮。追從伊屢。清姿雅度兮。寔余所慕。相期千

載兮。莫逆之好。鵬程在前兮。謂子遐驚。厥或未遇兮。處而有守。惜哉不諧兮。棄我而先。人間倏忽兮。二十五年。才高命蹇兮。何辜于天。吾將上尤兮。閭闔無緣。霜天十月兮。輾轡曉駕。子之爺孃兮。倚門淚瀉。子之妻兒兮。扶柩欲絕。蘓川飲泣兮。武山慘色。嗟哉子達兮。尙復何說。

誄文

密菴李先生誄文

嗟呼。法門衰敗之秋。吾密菴先生。又至於是乎。惟先生敏得於天。學得於家。積一生林下工夫。用底于造道成德之域。執此而遇於世。則於尊主庇民。猶反手也。而迺時命不偶。沒世窮厄。經綸志業。卒不免零落於煙霞。雖先生不自以爲恨。而人之惜先生者。寧不有恨於是耶。雖然。先生於隱約婆娑之中。益大肆力於此學。研窮者貫徹而愈高明。蓄養者崇深而愈博厚。晚年齒德俱高。蔚然爲斯文宗匠。吾南人士。賴先生之力。尙不昧一線正脉。則先生一時之不幸。未必非斯道斯人之大幸。亦何必深爲先生恨也。正模從幼僻陋無師資。得拜先生八九年于茲。顧緣頹惰無志。迄未能執經請益於函丈。而至於書疏質疑。則殆未有虛月。先生亦憐其願學而無聞。開示獎掖。無少餘蘊。自幸愚魯。因此啓發。不遂爲小人之歸。近來患難曩廢之餘。蹤跡乖舛。杜門畏約。久不敢煩隸通候。而迺其嚮德私情。則未嘗少替於前。寧知今日先生棄後學而觀化也耶。愴哉痛哉。重恨疹疫巧值。既不能奔哭於初喪。薪憂重發。又不果趨訣於窆窆。只以數行蕪拙。仰陳慕仰素忱。而兼叙公私無限之慟云。

遺狀

祖考處士府君行狀

府君諱文錫。字鳳瑞。鵝洲人。上世有諱允濡。爲麗朝版圖判書。以清直著名。生諱祐。爲麗朝按廉使。父卒。廬墓泣血。有雙竹抽生。以孝感聞。朝廷旌其閭。士林尊尙之。享涑水院。六世至諱元祿。奉親孝思。克追祖武。亦聞事。旌閭。早遊周慎齋之門。得傳學問淵源。贈戶曹參議。享藏待院。兩世懿行。俱載三綱行實。人目爲孝友家。於府君爲高祖。曾祖諱乞。號城隱。壬辰。與伯氏倡義。戊申。爲晦齋先生伸辨疏。辛亥。爲退溪先生辨誣疏。嘗除永嘉教授。贈左承旨。祖諱適道。進士。從寒旅兩先生。得聞旨訣。丁卯丙子。倡義陳疏。嘗赴祥雲郵官。又除健元陵參奉。肅謝。號虎溪。考諱塚。中進士。文行超世。有士林重望。以六行。累入齋郎薦。號忍齋。妣安東權氏。湖陽處士諱益昌之女。奉承家訓。有幽閑之德。宗族皆矜式焉。府君以辛巳二月二日生。生有美質。溫潤聰穎。少多病。不能刻意讀書。既長。能奮志文學。不惟屑意於詞章。而必以敦行孝弟爲先。其視聲利紛華。澹如也。文詞清麗。筆法亦端重。流輩咸期以遠到。而累屈場屋。終未成一舉名。世皆咨惜。而府君不以介意。方益加溫習。爲暮年活計。且訓誨子弟。期以無墜先業。不幸寢疾經年。以乙丑十一月十七日終。春秋僅四十五。噫。以府君慈詳之質。敏悟之行。而既不果立揚。又嗇其壽命。天之報施。果安在哉。配月城孫氏。吏曹判書諱仲暉之后。忠義衛諱鉉之女。仁恕高明。多識前言往行。配府君無違德。事舅姑以孝。訓子弟以義。有古女士之風焉。府君沒世。先伯考僅受室。自餘稚弱滿前。祖妣痛念早寡無賴。既勤

蠶績。又篤於訓誨。以能持門戶保先業。歲庚午己丑。先伯考及先考。又相繼早世。妣荐遭悲疚。衰疾沉篤。以庚寅十二月二十五日棄世。享年七十。府君初葬于縣西新洞。祖妣亦各葬于縣南文巖。歲乙未。移合于遜道洞午向之原。男女各三人。長德溢。次德浩。次德洵。女李英中，權惺，李厚謙。伯考二十七而歿。有二男。卽彥模正模。仲父有一男。仲父歿後。亦夭。以堂兄之子禮模爲后。先考亦年三十無子而歿。祖妣命正模爲后。李氏一子憲柱。權氏二子長▣▣次師閔。李氏三子。長基稷。次洪胄。次洪源。正模猥承餘慶。早竊科第。俄而獲譴南遷。再^P移而到忠原者今七年。竊念府君歿已五十餘年。諸父皆已早世。諸孫等又無逮事者。故只記其族世子孫。乃其才德言行。則無以攷述其詳。執筆攬涕。愴慕曷極。

伯祖芝軒府君行狀

吾家世不壽。比正模生。獨伯祖府君在世耳。追憶當時。招呼拊弄。宛然如前日事。而歲月侵尋。伯祖下世居然四十五年。感念今昔。曷任愴慕。一日堂弟義模等。以家傳相托。顧正模孤蒙重此惴約。其何能收召精魄。從事於筆硯間哉。祇以家門叙述。有非他人之比。故不敢辭而畧記如左。府君諱禹錫。字龜瑞。鵝洲^P人。始祖版圖判書諱允濡。以直道顯。以按廉使諱祐。孝感名。俱載麗史及三綱錄勝覽等書。高祖諱元祿。聞道於周慎齋門下。亦以至孝旋門。贈戶曹參議。號悔堂。曾祖諱乞。克述孝弟。好善而文。贈左承旨。祖諱適道。早捷蓮榜。遂不事舉選。累以齋郎徵。不就。以丁丙扈從勳。除祥雲郵官。旋即棄歸。除健元陵參奉。肅謝。有士林重望。號虎溪。考諱塚。中進士。行誼文章。爲世推重。妣安東權氏。學諱▣宣之孫。湖陽處士諱益昌之女。柔嘉貞淑。女德茂備。爲婦爲母。皆可取法。以戊寅某月日。生府君。少敏牖惠和。孝友以類。與我祖考。克述詩禮。填唱箎和。人目爲難^P兄弟。天性介潔方直。見人有非違。輒面斥不少貸。宗黨咸敬憚之。文辭筆翰。俱清麗端楷。嘗屢中鄉解或居魁。而輒見屈於禮部。知舊無不咨惜。而府君等視窮通。不少介然也。自少有玄晏之癖。既老而溫柔采篤。中夜起坐。恒誦四子韓歐等文。以自家家貧。瓶米或罄。而靖坐竟日。未嘗問有無焉。歲乙丑。我祖考喪逝。府君深以獨行踽踽爲悲。遂謝去病聲工。專意於訓誨子弟。不幸以乙亥二月十一日終。春秋五十八。噫乎清文懿行。迄未免沉屈。又不享耆耄者。天果何心哉。府君初娶延安李氏。通德郎世美女。甚有婦道。產二男二女。歲戊申歿。繼娶星山李氏。學生某之女。^P亦賢淑有行。產一男。歲庚申歿。延安李氏。葬于後洞坐巽之阡。府君及星山李氏。連窆于鐵坡向卯之原。男長德潤無子。以義模爲后。次德海有三男。義模，器模，禮模。禮模亦出后。季德滄早歿。有二男益模，賁模。女權得泰，宋煦。俱有一子。側室子一人曰德溶。亦早夭無后。竊念府君言行之美。必多有可述者。而卽今家長老零落已盡。以正模謏聞。何能發揮其萬一哉。聊記其始終。俾雲仍畧有所考据而追慕。以爲乞銘庇後之資爾。

伯考處士府君行狀

府君諱德溢。字大哉。鵝洲人。麗朝版圖判書諱允濡。^P以清直名於世。寔爲鼻祖。按廉使諱祐。卽判書公之子。遭喪廬墓。泣血三年。有雙竹抽于墓前。事聞。表其宅。其後移居于聞韶元興洞。有諱元祿。號悔堂。天資近道。學於周慎齋。奉親孝思。遙追先祖。朝廷又褒錄之。因贈戶曹參議。兩世懿行。

既載於三綱行實。士林又俎豆之。高祖諱佺。號城隱。恂恂孝讓。稱爲厚德長者。贈左承旨。生三子。長諱適道。於府君爲曾祖。天分甚高。早中司馬。杜門養閑。宰執高其行。累辟齋郎。不就。除祥雲郵。遍踏關東名勝。旋即棄歸。號虎溪。祖諱塚。進士。以文行見重。嘗應館薦而卒不顯。號忍齋。考諱文錫。聰明穎悟。克世家學。而有才無命。P 四十五而卒。娶月城孫氏。明廟朝名臣諱仲噉之六世孫。忠義衛諱鉉之女。以甲辰四月四日。生府君。少穎秀異凡兒。且外內訓誨。克哲且嚴。耳濡目染。敦行孝弟。記性又甚敏。文業日進。流輩皆自以爲莫及。宗戚鄉黨。方期以遠到。而內舅孫公汝斗。尤奇愛之。貽書勸勉。動以古人相期。孫公固望士。而其言如此。卽府君之伏一世可知已。歲乙丑。聘宣城李氏。故持平諱珙之曾孫。學生諱星耆之女。花山大姓權公諱□□之外孫也。以壬寅九月十一日生。生長名家。飽聞女戒。既歸我府君。祖考適有疾彌留。府君與妣躬親粥藥。夙夜焦遑。至仲冬。奄遭巨劫。府君以棄養之P 促。爲至痛。居喪極毀瘠。送終盡情禮。既闋制。孝養祖妣。敬愛無失。退又勸課羣弟。相與誦詩禮。所以克家而爲政者。無間然矣。不幸於庚午六月得疾卒。革時頗疑染瘟。人莫敢入視。獨宗從兄德潤，德海等。素重府君。直入救視。病至難爲。然後去。遂於二十六日棄世。得年只二十七。時一兄纔啐。正模方在娠。先伯妣痛念早孀靡依。將欲自裁同穴。顧念老親與幼孩。低徊而不忍也。兄弟既免水火。又念非現不友之戒。日夜痛加程督曰。汝等須百倍其工。僅可以比父教之萬一。不肖等天稟驚劣。雖不能一遵教戒。而到今粗卞魚魯。秋毫皆伯妣賜也。正模年二十九。倖占巍第。宗P 黨以爲榮。而妣不色喜曰。吾悲獨見此慶也。因以出身事主之忠。守拙嘗世之道。惓惓教戒焉。逮正模得娥林。奉板輿往赴。無幾何。小醜竊發於鄰邑。出其不意。長驅迫城。時吏卒一空。無奈賊何。迺於寅夜背負。粗伸私惱。而其志則將欲圖後效。以贖厥罪。方伯不諒啓罷。西上俟罪于金吾門。自上憐其意恕其罪。徒配未一年而全釋。庚戌冬。繡衣更以誣語構啓。再就理島配于興陽。乙卯。用王世子誕慶。移于錦山。又一年付處于忠原。奔走惴約。首尾八九年。妣驚憂震剝。積慮成疾。而尚冀鷄竿式遄。婦侍有日。嗟乎。其如正模不孝之罪。上通于天何哉。己未春三月。P 妣感疾采篤。兄獨侍憂遑。至於斷指嘗糞。而猶不得回天。竟以其月二十九日辭堂。享年七十八。天乎天乎。有罪如正模者。直爲降殛於其躬足矣。何忍移之於老母也。疾而未得侍。殮而未得憑。過廿許日。方始奔哭。此生此恨。曷其可忘。府君歿。葬于葛畊嶺向丁之阡。及妣喪。又附葬。而以墓東地勢不便。附于墓西而稍下。長彥模有二子二女。季卽正模。以祖妣命。出后于季父。有三子一女。竊念府君敏德懿行。必多有可述者。不肖等既未承事。固不敢沾沾稱道。至於先伯妣。則五十年承事之久。豈敢懼其嫌而沒其善哉。靜淑而幽閑。敦重而端嚴。妣之天得也。處患之堅貞。P 訓子之純切。妣之行蹟也。自餘日用常行。無不暗合於理。至其鎮服之量。細大之務。周悉備具。無不宜之。古所謂女士者。殆無以過之。此非私言宗族之所公誦也。敢記世系志行之梗槩。以俟世之直而不華者。以爲乞銘垂後之資。至於溢美而爽實。則正模之所大懼而不敢者也。

先考處士府君行狀

府君諱德洵。字君允。系牒具見於先伯考家傳。祖考有三男。季卽府君也。庚申九月十八日生。天得聰岸。祖考奇愛之。歲乙丑。祖考辭堂。繼於庚午。先伯考夭棄。府君因以失學。祖妣深憂之。府君惕然感發。遂務P 記覽爲詞章。出語斐然可觀。筆翰亦適緊可愛。既長。又能敦行孝弟。克述家風。見者咸稱其詩禮家佳子弟。初娶碧珍李氏。進士諱命元之女。耕隱李先生之后。未及廟見而歿。年二十六。只

一女在襁褓。旋又不育。府君悼念不已。再娶咸陽朴氏。尼山郡守諱宗杓之孫。通德郎諱成燿之女。府君少清羸善病。至是疾轉革。以己丑六月二十二日棄世。年僅三十。妣朴氏哀痛成疾。亦以翌年沒。年二十五。時祖母耄耋在堂。而天之禍吾家至此。聞者爲之感動。李氏生於壬戌月日。歿於丁亥。葬于遜道洞向乙之原。及府君葬于妣西。朴氏生於丙寅月日。歿於庚寅。祔于其下。後祖^P妣命正模出后。以世其祀。歲己亥。正模猥竊科第。戊申。知娥林縣。既而遭賊變。上憐恕其罪。初施薄罰徒配。未一年而得釋。三年後。御史李滄羅織更啓。再就理而島配于興陽。留五年。王世子誕生。用其慶移錦山。又一年付處于忠原。首尾今十年。前年三月。遭伯妣喪。今年四月。又遭妻喪。子女時無屬托。蒸嘗又不能展誠。是緣正模罪釁積重而然。而論以祖先厚施。天何嗇報之甚耶。曩居惴惴中。謹此收召精魄。略書享年幾某日卒而已。乃其敏德懿行。既不能發揚其萬一。至於二妣。則尤無以考据而稱述。執筆和涕。昊天罔極。

仲父槃窩府君行狀

仲父諱德浩。字聖欽。槃窩號也。鵝洲之申。著於高麗。有按廉使諱祐。見王氏運訖。與治隱吉先生。携歸鄉里。號退齋。以孝聞。朝廷褒錄之。鄭文莊公表其墓。享涑水書院。六世而至諱元祿。號梅堂。嘗遊諸先正之門。得聞淵源之學。以孝聞旋閩。又載錄三綱。贈戶曹參議。享藏待書院。生諱乞號城隱。壬辰。與伯氏倡義師。辛亥。爲退溪先生抗辨誣疏。贈左承旨。於公爲高祖。曾祖諱適道。號虎溪。國子上庠。早從寒，旅兩先生門。得承旨訣。丁卯丙子。倡義斥和。除祥雲郵官。旋卽棄歸。除健元陵參奉。卽謝。祖諱塚。早^P擢上庠。累登館薦。文章行誼。爲士林重望。號忍齋。考諱文錫。孝友文行。克世家學。娶月城孫氏。吏判愚齋仲噉后。忠義衛諱鉉之女。以甲寅十二月二十日生。天稟慈詳。孝友。歲乙丑。祖考棄背。府君時年十二。執喪哀慼。如成人。見者咸異之。逮庚午。伯考又早世。時大喪相繼。家事無津。府君年未勝冠。而能服勤奉養。教育幼孤。一家衣食之須。既皆由府君出。而乃若不肖等早免水火。終卞魚魯。又皆仲父賜也。間以餘力。治學子業。亦清麗可觀。而屢舉不中。晚得龍額一選。而亦未克大闡。鄉黨皆稱惜。府君不以屑意。專意奉親養閑。見人役役於名利。爲之羞慙若浼。性厚重寡^P默。未嘗出俚言。亦未嘗言人過失。有來言者。亦勿酬答。嘗往遊於葛菴李先生之門。得聞爲學之方。既還隱然有求道之志。潛心經籍。幾至忘寢食焉。先考於府君爲季弟。而又於己丑短促。府君恒以獨行爲悲。且悶其無后。白于祖妣。以正模爲后。祖妣年深多病。有時危訊。府君輒血書禱天。願以身代。歲庚寅。祖妣下世。府君叫叩違違。哀動傍人。附身附棺。靡有遺憾。府君既躬行孝弟。教子弟又循循有法。正模得科時尚少年。府君不色喜而深以爲懼。常以行身事君之義。早夜戒飭。此可見隨事警誨之一端也。晚年移居于縣南考槃洞。構茅屋數椽。扁以槃窩。取古人蒹軸^P之意。去故里十里而遙。正模等每以不得同居娛侍爲恨。戊申之變。慨然流涕。與上舍兄濂。確議倡義。推上舍公爲盟主。竭誠募兵。贊畫甚多。未克發旋復罷。是歲正模出宰居烈。以遭變全母。薄譴而旋釋。府君益灰心爵祿。欲携挈子侄入峽窶居而未之果。以庚戌正月十日。終于寢。享年纔五十七。是年二月。葬于安平朴谷巽向之原。仲叔母李氏。卽延安大姓。縣監軫之五世孫。處士聖裕之女。淑慎和溫。配府君無違德。庚子七月六日。年四十三而歿。祔葬于遜道洞王考妣墓下。府君仁恕溫和。自是天得。雖未果進爲於世。而所以在家爲政。良有可觀者矣。待丘嫂。如事^P親闈。恤他子。必先己出。而至若奉先之孝。重宗之誠。則固已卓卓然高人數層矣。尤篤於周窮卹匱。當春則必以斗斛。隨緩急分俵於親戚。因以推及

鄰里下賤。故卒之日。無論親疎貴賤。皆出涕相吊曰。善人亡矣。噫。此可以食報於天。而夷考平生。絕無好事者何哉。長子善模先府君夭。次子俊模亦夭。從伯子彥模。上言于朝。以堂從子禮模爲子。一女適金宗鐸。側室有二子。謹模，慎模。竊念府君之歿。今已十許年。其間正模又遭重劾。流移南北。孤露餘生。更無所憑。輒書志行梗槩。以爲永世寓慕之資云。

贈淑人順興安氏行畧

淑人姓安氏。順興人。麗朝贊成事諱文凱。其鼻祖也。曾祖諱道徵。以文行伏一世。祖諱機石。龍驤衛副護軍。父諱履順。母咸陽朴氏。諱某之女。以庚午月日生。性柔順和溫。甚有婦道。自未笄時。已有聲稱。歲癸巳。歸于正模。正模衰稔古賢婦行蹟。爲閨覽一篇以遺之。淑人深感相勉之意。既惓惓服膺。而又以劬書飭躬之道。早夜進戒于正模。正模雖到老無聞。而當初不全暴棄。則淑人實有力焉。是年秋。朴夫人得疾彌留。淑人恒侍側憂遑。躬親粥藥。正模欲及時行見姑禮。則淑人以母疾不可離。願少展行期。辭意甚懇。正模遂許之。及冬抄。朴夫人奄不起疾。淑人素清弱。時且有娠。自侍湯時。已積傷成疾。既遭喪。哀毀無人色。正模深加愍然。爲之寬譬。後年春三月。聞行襄禮。正模又往赴之。淑人毀瘠益甚。殆不可支。正模又多方責諭。則淑人曰。人之生死有命。豈有以毀憾損壽者乎。既葬。余將歸。淑人送于中門之內。爲之泫然霑衿。正模深恠其然。問之則淑人却立不答。既歸僅一月。淑人遽痘。因墮胎。舉家出避。淑人叔父獨留視疾。竟以五月初二夭逝。得年纔二十五。吁其短矣。當時相送。便是千古之訣。故心動先告別懷之苦乃爾也。是年八月。權葬于其所居南卯向之阡。將欲待時歸葬于先人兆次。而歲月荏苒。居然二十八年于今矣。正模丙申。改娶東萊鄭氏。己亥。忝竊科名。又生三子一女。戊申。正模宰居烈。以先私全親。薄配卽釋。庚戌。更被繡衣誣啓。逮繫被刑。仍配興陽。乙卯。移錦山。丙辰。又移忠原。己未。先伯妣下世。正模千里奔喪。至恨在中。庚申。鄭氏與一女二子。在家遽痘。鄭氏又不救。卽今子女飄搖。蘋蘩無托。嗟乎。天之不吊極矣。顧今正模垂老。往迹已陳。聊書淑人系牒及當時所見之一二。以示迷豚輩云爾。

淑人東萊鄭氏行畧

淑人姓鄭氏。東萊人。從仕郎東部參奉燭之曾孫。學生堯相之孫。處士之弋之女。母清道金氏。學生世泰其外祖也。初處士公杜門安貧。鄉人高其行。有三女。淑人卽其仲也。以丙子五月二十一日生。少染家訓。有幽閑之德。年二十一。歸于鵝洲申正模。正模出后于季父府君。而不善治生。家業甚寒。淑人甘忍貧計。竭誠奉祭祀。又能致孝于先伯妣。伯妣甚愛。天性凝厚朴直。未嘗少撓於貧。絕不爲苟且事。亦不以小少財利。較爭於人。正模以閨範示之。淑人手書一帙。覽誦體行。正模爲學。每至夜分就寢。淑人於內室。亦坐待撤讀。未嘗先寢。尤以執麻臬議酒食爲務。見一家婦女遊放自便者。輒心非之。己亥。正模中科第。淑人時年二十四。人皆以婦福稱賀。而淑人不以自夸。又連生三子三女。二女不育。戊申正月。出宰娥林。淑人從之。未一月。小醜竊發於安陰。一夜間長驅迫城邑。時吏卒一空。隻手無奈。又伯妣在堂嬰疾。正模遂馳報于棠營。一邊背負而出。淑人跋涉從行。足爲之血。方伯卽啓罷。正模僅奉板輿達于家。厥明卽西上。俟命于大理。上特恕其罪。徒配鄰縣。未一年而全釋。淑人自

是無意世事。嘗謂正模曰。吾家福薄。乍得一邑。眚灾踵至。前頭事可知。莫如奉親入山。墾荒營生之爲便也。正模聞而喜之。方覽相四峽。欲擇其可處而居之。庚戌。御史李滄。以罔極之言。構誣于朝。正模逮繫于鞠獄。仍配于高興。高興距家千里。P 淑人積憂震剝之餘。瘦瘁日甚。一家婦人。有吉宴會。雖強邀。未嘗赴焉。乙卯。正模恩移于錦陽。丙辰。又付處于忠原。兩邑既稍近於家。邑大夫又肯許由覲。嘗一再往來。淑人喜極而悲曰。人之夫婦。如天地陰陽。缺一不可。吾何辜于天。而生別此久。家事無津。寧欲自裁無知也。正模慰諭之曰。累次恩移。今到中途。前頭全釋。卽次第事耳。君須圖治家。上以慰老親。下以保子女。不亦可乎。淑人自是。略留意家事。百口賴以全保。伯妣年高而氣尚強。正模日望其快釋歸侍。乃於己未春。奄忽下世。正模千里奔喪。心事隕絕。葬後卽還纍寓。痘患孔熾。遂移接于德周。時伯妣初 P 葇纔隔月。淑人與二子一女。同時遘痘。竟以庚申四月初六日。不救。年纔四十五。噫。天亦不仁者矣。隣近上下婦女。雪涕悲之曰。淳仁婦人。何遽至此也。是年八月。葬于遜道洞西岡。卽先考妣墳山後麓癸坐之阡也。初伯妣既葬。淑人曰。所以忍情在家者。爲姑氏在也。今人事乃爾。喪畢。吾亦從往于纍所。正模哽愴不能答。而心以爲然。今淑人又至此。此何變也。正模罪釁充塞。既不果臨訣老親。又不克保其室家。俯仰人間。廓落無憑。自今以往。蘋蘩於何托。屬子女更誰芘依也。惴約哀疚中。僅以收召精魄。畧記世系及行蹟。而援筆淚落。萬不記一。

墓碣銘

處士延安李公墓碣銘

正模有通家之誼於延安李氏者。蓋久矣。以故於其世德家範。知之實稔。歲戊申。正模纍居于赤羅縣。李台俊丈臨問甚厚。因徵其曾祖處士公墓銘。正模不文。屬此畏約。不敢應命。李丈之請至累反愈勤。正模不敢更辭。敬受其家乘而讀之。公諱東美。字公述。其上世仕唐。從蘓定方東來。仍留于延安。厥後珪組相望。爲海東望族。有諱某。某官。是公高祖。有諱某。是公會祖。有諱某。眞寶縣監。是公祖。有諱忠可。成均生員。是公考。娶安東權公曙之女。以萬曆庚子生公。有異 P 質。篤厚慎重。未嘗有子弟之過。稍長。通明經術。知名於士友間。嘗俱中鄉解。未占蓮榜。上特賜小學一部以獎之。公少篤志學業。蓋爲一科悅親。及年不惑。二親俱逝。公遂無意功名。謝去病聲工。卜築於雲樹鄉。種竹蒔梅。日哦其間。專以教子弟。獎後進爲事。而於忠信篤敬。隱惡揚善等訓。尤惓惓焉。自結髮至白首。未嘗言人之不善。蔚然有石家不言躬行之風。鄉黨推稱偉人長者。賢愚無不歸心焉。崇禎後三月日。考終於寢。年七十三。是年九月。葬于默房山卯向原。初娶箕城黃氏。知中樞貴中之女。無后而歿。再娶咸陽朴氏。訓導文燁之女。生三男二女。男曰以深，以沉， P 以潛。女都爾龍，吉尙彬。以深四男。曰大裕，在裕，聖裕，泰裕。以沉一男四女。男得裕。女宋之泰，都萬鼎，李重基，孫漢機。以潛二男五女。男善裕，時裕。女申益重，呂天學，都爾賢，宋之鼎，宋道天。曾玄以下。多不能盡錄。而台俊丈。卽公之傳重曾孫也。公天得孝友。且襲詩禮。制行和平。蓄德深厚。而終老林泉。不見知於斯世。或者未食之報。將發於後人也耶。是爲銘。銘曰。

維豐厥德遐不祿。用遺後昆未艾福。斯石不泐彌萬億。

二恥齋先生文集卷之五

附錄

年譜 伯兄 [申彥模]

舍弟屬纊之報至。未死兄無以定情。抄起年譜以誌寃。

肅宗大王十七年庚午六月日。先府君棄世。時君寄妊纔三月。以辛未正月初四日庚寅辰時。生于安東豐山縣新池洞外第。

十八年壬申。君二歲。

十九年癸酉。君三歲。

二十年甲戌。君四歲。○一日。與羣兒遊嬉。聞他兒呼父聲。來謂母夫人。他兒皆呼其父。我則誰呼爲父。以至悲泣。他日。又曰。暫啓墳山。一見父顏後。卽還葬如何。其孺慕至性已如此。

二十一年乙亥。君五歲。○穎悟夙成。自能言時。聞人讀書。輒解傳誦。至是母氏及伯姑母。口授以六甲數遍能誦。

二十二年丙子。君六歲。○仲父府君授以摳衣詩一卷。不數日能倒誦。因願學他書。而仲父慮其早學受傷。姑爲不教。則號泣不食。

二十三年丁丑。君七歲。○春。老少諸人。上山玩花。他皆爭摘花藥食之。君獨不食。父老問其故。對曰。未薦廟前。不可先嘗。父老益奇之。自是寢必早起。起必盥面。

二十四年戊寅。君八歲。受史畧于仲父府君。七月之間。能畢七卷。間受孝經小學。爲夙夜誦法之資。

二十五年己卯。君九歲。讀通鑑。初受陽節潘氏序。日未半。誦不錯一字。歷代人君治亂之蹟。人臣忠邪之分。無不通曉。時立巖孫處士汝斗公。亟加愛重曰。申甥雖亡。有子如此。其不亡矣。○冬。往留于豐山外宅。孤山李先生惟樟。亟稱歎不已。比古魏舒衛玠焉。

二十六年庚辰。君十歲。○君孝行本於天性。每於親側。必柔聲婉容。得魚果。必先獻于王母及母氏。每歲元朝。拜王母及母氏。因卽往省于先府君墓所。家距墓所稍間。而不以風雪少廢。亦逐日往省。

二十七年辛巳。君十一歲。受四書于仲父府君。過一二卷之後。文義已自解釋通曉。

二十八年壬午。君十二歲。○每以未承巖顏爲至恨。欲爲追服。王母及母氏泣謂曰。以汝保生爲幸。何必爲此等事乎。君不得已止之。然於人所不見處。食素飲泣三年。如心喪者然。

二十九年癸未。君十三歲。○章句製作之外。行文立論。遺語超越洪暢。有不可涖涯矣。

三十年甲申。君十四歲。端陽節。往外宅。外族內外老少咸集觀秋千戲。余謂君曰。往彼暫遊如何。答曰。此雖外家。親黨內外交集之所。不必往焉。○流頭日沐浴。必於人不見處。

P 三十一年乙酉。君十五歲。赴義興鄉解。兩場製作。一筆篇就。人莫不稱賞。

三十二年丙戌。君十六歲。○素性不喜遊嬉。惟篤行小學。雞鳴盥櫛。瞻謁家廟。因省重闈與親。侍務悅親心。不以祁寒少避。

三十三年丁亥。君十七歲。三月。齊會賚薇于雲嵐寺。會中出七言陽字韻。他皆止於玩物卽景。而惟君所作。有因物玩理底意思。諸長老俱稱歎不已。九月。作自叙以示意。蓋志學根基之語也。○又叙敬說。

三十四年戊子。君十八歲。正月。作室慾存心二箴并序。○夏入遊鄉庠。言辭舉止。雖老師宿儒。無不敬服。宋侯堯佐亦稱之曰。小學模樣。復如靜菴時氣像。

三十五年己丑。君十九歲。六月。李父府君早世。季父無嗣。王母氏欲命君繼世。而更曰。徐待其有室立定可也。母氏乃依此命而從之。

P 三十六年庚寅。君二十歲。十二月。王母夫人孫氏辭堂。送終節次及服制儀度。皆考出家禮。一無差錯。

三十七年辛卯。君二十一歲。○書請近思錄于立巖孫處士公。日事爲講劄。

三十八年壬辰。君二十二歲。○好讀朱書節要。博求廣通。晝夜不輟。更爲抄書一帙。以爲平生看閱計。

三十九年癸巳。君二十三歲。聘室于順興安氏。往來甥館。龍咸有識之士。皆願一識。洪主簿相民氏。一見相許。其後遺書安公曰。申君真無雙士。緣何擇壻乃爾也。不但爲李膺之慶云。

四十年甲午。君二十四歲。五月。內子安氏卒。安氏未及廟見。而以痘疾歿。是時。老親及一室。俱未疫。故不卽返葬。於其所居興泉南麓。以待後日返柩計。冬。往見息山李處士。息山。卽奉朝賀觀徵之孫。名萬敷。來寓尙州。獎道後進。故馳往見之。

P 四十一年乙未。君二十五歲。春。作定志說。是歲二月。慶山試所。有痘忌。未疫人多赴之。君作是說。堅坐不動。夏。拜書于息山李公。極論爲學節度。且示承教之意。公答以不敢當。

四十二年丙申。君二十六歲。正月。聘室于東萊鄭氏。○春。作有所思長篇詩。○九月。拜書于急山李公。○冬。往葬外王考于豐山大牛洞。奉母氏往十一月。觀丙別于漢城。君不喜科臼。而親命有切。故黽勉從之。

四十三年丁酉。君二十七歲。春日。有遣懷詩一篇。○次退溪集古詩韻。

四十四年戊戌。君二十八歲。立春日。次退溪先生小詩韻。○八月。入鄉校。參釋菜禮。李提學眞望

。訪問才行兼備之士。皆以君爲對。 P 李侯見之。嘖嘖不已。書藍田遺約條目序。君與鄉中信友修稷。取藍田呂氏鄉約之意。名以藍田。因作弁首文。十一月。聞外舅氏訃。

四十五年己亥。君二十九歲。春。赴增廣試于榮川。進士試居二等。觀東堂于寧海。以策文居一等人。○秋。赴大小會試。大科又居一等人。殿試例。或於四六則舉皆借手。而君以爲此亦欺君。遂製進。諸僚皆莫不稱歎不已。十二月。有奉送李侯向洛詩序。李侯。卽白軒相公之曾孫。白軒於高祖考虎溪公。最親厚。故李侯於君。益加敬愛。及其棄官而歸也。有別章。故君作序文以送之。

四十六年庚子。君三十歲。六月。肅宗昇遐。赴客舍。哭臨成服。九月。分館圈槐院。○十一月。上去免新。京中僚友。馳書槐院。蠲減夜役。選補承文院權知副正字。以注書入侍。趙相顯命以同 P 庚同年。又同爲本院假官。君之書役。趙公多爲之。○在政院時。貸朱子封書名臣言行錄，臣鑑資治等書于李佐郎重煥所。日與諸搢紳相講明。往見朴舍人貞。朴公有志行。爲世推重。故卽往見之。十一月。乞暇歸覲。歸路。入飛鴻亭。見申徵士弼貞丈。

景宗大王一年辛丑。君三十一歲。正月。被承文院催召不赴。○二月。子邦烈生。○拜書于申徵士 弼貞丈。以致仙遊洞之願。○三月。答柳學諭 升鉉 書。○八月。答李佐郎 重煥 書。○又答李佐郎書。

二年壬寅。君三十二歲。以權知正字。被本院催促。又不赴。○二月。次冰溪書院洗心亭韻。呈李密菴。裁。○先是李公到冰溪院。馳書相邀。君往見之。至是又折簡。以致勝地拜晤。未展蘊奧底意焉。又與李密菴書。○三月。與李提學 眞望 書。○九月。往見姜 P 修撰 樸 於英陽。時子淳爲英倅。以書邀之。君往見之。十月。遊內延山。有遊山錄及詩。○河上舍 瑞龍 來問性理文字。

三年癸卯。君三十三歲。正月。聞外姑金氏訃。送終凡節。竭力顧瞻。與李密菴書。請借看朱書講錄刊補。李公輯朱書疑義。名以講錄刊補。四月。往遊聞慶仙遊洞。○七月。與申徵士書。○十月。挽金瑞洛。○十一月。赴京入城。聞痘氣熾盛。卽發還鄉。

四年甲辰。君三十四歲。正月。往赴道南書院講席。權弼善相一爲洞主。前期馳書約會。并邀李息山，吳致重。講近思錄抄錄疑義而歸。且有酬唱詩。四月。答李密菴書。○又與李密菴書。約會屏山書院。○六月。薦入持平望。又薦正言首望。有廷臣特啓。○七月。與 P 余同往青松。遊周王山。有詩及遊山錄。八月。景宗昇遐。進參哭斑。三年除服之後。遇國忌必行素。十月。與李密菴書。○書慰李君直丈。且有別紙。時李公遭兄喪及子憾。故以慰之。又有鄉人養他子爲嗣者。服制可疑。且國恤因山前。爲人挽詩未安。故別紙及之。十二月。授通善郎。除司甕院主簿。不赴。

英宗大王一年乙巳。君三十五歲。正月。聞內舅上舍李公訃。○答權正郎 相一 書。○二月。答李密菴書。辨戒懼兼動靜說。○三月。以拱水洞移卜之意書于金上舍。瑞虎。○拱水洞在安東丹邱上。卽上洛公遊賞臺榭之地。勝致幽絕。故有移卜之意焉。四月。河上舍來訪論學。偕往藏待書院講討數日。七月。子光烈生。○十一月。河聖則請朱子帖。大筆書贈。畧叙其 P 後。○挽孫持平。德昇。○挽權修撰 斗經。○跋呂泉權處士配李氏旋閭銘後。李氏。卽我母氏外曾祖母也。權斗寅丈爲旋閭銘君爲跋語。答權掌令 台仲 書。論搢紳疏。○與趙司諫 德鄰 書。

二年丙午。君三十六歲。正月。有說書薦。○挽洪判書 萬朝。○挽盛參奉 大夏。○挽曹處士 善長。

○二月河聖則委訪。極論爲學之方。○三月。往遊安東龜潭書堂。○七月。答李密菴書。又辨戒懼兼動靜說。○八月。挽鄭上舍之錄。

三年丁未。君三十七歲。二月。再遊龜潭書堂。與諸士友有酬唱詩。○八月戊戌。除兵曹佐郎。○丁未。赴京城。P以未及陵行見遞卽還。○除江原都事。又除兵曹正郎。皆不赴。○八月。作八智齋舍記。○挽洪翊衛相民。○十一月。子弘烈生。○十二月。拜居昌縣監。自台府必欲赴任。有周旋除署經。使速歸養之意。故遂治發。乙巳。發向京城。辛亥入京。

四年戊申。君三十八歲。正月丁巳。行肅拜禮于延英門。避痘署經甚非。便欲棄歸。都承旨鄭錫三，副承旨李仁復，修撰姜樸，趙顯命，崔燦，權責諸僚。挽止甚勤。故移住于漢江上流靜僻處。遊碧波亭。敬次肅宗大王親題四韻詩。○丁卯。承吏曹招邀。暫入城內。領相下堂迎坐。以叙前日未識之恨。歷問古今治亂及道學統緒。又問嶺南人才。君以錦陽，魯谷兩處士及飛鴻亭丈薦之。領相皆錄于冊。戊辰。曉漏下。赴闕拜辭。午發行。○丙P子到任所。○戊寅。謁聖于鄉校。因見諸生。諭以勉強學問之意焉。辛巳。自任所來覲。○二月己丑。奉板輿。赴任所。牧民。以程伯子視民如傷四字爲準則。尤致念於扶風化興學校。正名分節財用事。揭十條于官門外。三月朔朝。謁聖于鄉校。又諭諸生。以禮義相先之道。因設白場。行相揖禮。己巳。畧聞清州賊報。○庚午。賊報頗騰。而監兵營及鎮管。迄無傳關戒嚴之事。君心甚憂恠。欲狀報上司。而軍任以下皆言如此重大事。不可以塗聽輕易論報云云。故將報旋止。二十一日辛未。有人自安陰古縣。來傳古縣谷中。有潛伏嘯聚之狀。君自聞清州賊報。寢食靡甘。至是尤極痛惋。傳令于將校輩。使之從速聚隊。因欲徵發軍丁。以爲戒嚴堅守計。而守令專無擅發之例。故姑待上司調發之關。而竟寂然。壬申。不知何許人來傳賊書二度。其一卽檄書。其一簡札。乃賊酋熊輔，希亮P等所送也。君見凶書。不覺豎髮嚼齦。促令捉入。持書漢已逃去矣。卽齎其書。星火馳報于三營。因招軍任輩。言及發軍之意。則皆以爲上司令前。徑爲徵發。必蒙專擅之誅。獨首吏慎克終以爲賊勢壓境。勢迫呼吸。何待上司之令。君更以急急招徵。則吏校駭散。邑里俱空。無一人應令者。獨坐空衙。計無所出矣。癸酉。賊兵自安陰席捲長驅。爲掩襲殺掠計。守土之義。當效死勿去。而以老親嬰疾。無人護出。遂背負而出。賊以無答書。益肆凶怒。將欲乘曉屠戮。君憤不顧身。而邑里俱虛。士卒駭散。張空脊背白刃。莫可抵當。且老親疾患況劇。而余遠在鄉里。聲息莫通。守土之義莫重。而母子之情亦切。不忍留待賊鋒。思欲先移老母。繼圖效國之計。背負老母而出。隨從者無一人。賊講正急。揭榜虛門曰。有生致邑宰者先賞以金。更以厚爵。一境軍吏。怖其威而利其貨。皆無意奉公。而獨千搃數輩。迫到所住處。垂淚而言曰。變出不虞。備禦無策。且以老親之故。決意暫出。以爲伸私情。圖後之計。其擇義精矣云云。賊將多出米布饗軍。遠近投入者。至數百人。人心之離叛。如此其極矣。甲P戌。留接于縣北朴巖。奉老母於閑淨處。卽是還衙。至于朴巖村。村民遮道垂淚曰。城主下車之後。惠普弊祛。邑民無祿。賊變猝起。明府若去。吾何以生。爭進酒肉。皆不受。搆報狀。使家僮更懇于營門。變出後。所報回題。姑未見。君卽欲親赴營門。告實狀聽指揮。而進退路絕。無路前進。且無一吏隨從。故更走家奴以懇。馳書于知禮倅，星州牧。知禮倅李世鈞。領軍來住于星州新倉。星州牧李普燦。亦以左防將結陣于新倉之南。以藉力濟事之意馳告。夕發文通諭于本邑民人。以示收聚討賊之意。夜聞清州賊沒敗報。○丁丑。早朝。得星州牧知禮倅回答。知清州賊敗報果的。又火急傳令于上下民人等。卽以逆順之意。作爲曉諭文字。走奴傳令。使之星火來聚于加柞倉。君親往馬邑郊。躬自招諭。則聞令赴會者幾數百人。將點部伍整軍容。自營門啓罷。因送將校。使之合符交龜。到此地頭。莫可施措。戊寅。馳往于監營。星牧P大夫人。使妓傳言致食物。星牧亦出

郊迎慰。恨其未及同力濟事。夜初鼓。到營下。方伯責先私。方伯以一道大將。有事變。宜急傳關指揮。而清州賊變後。無一番行關。及其賊發列邑文報隨屬。而皆以到付題送而已。一未有徵發戒嚴之題。及至事謬之後。乃反歸咎於守令。豈常情之所可測者哉。己卯。呈書營門。備陳實狀。懇請在營下。以觀賊兵之勤滅。而方伯不許。庚辰。又呈書。○癸未。拜辭老親。馳向京城。○乙未。入京城。○戊戌。待罪于禁府門外。洪佐郎重寅，李佐郎時沆。各送一力以助使喚。己亥就理。李陝川廷弼，吳安陰遂郁，李三嘉延秀。共就囚講討。己酉。進原情。諸僚見原情。莫不慨歎。或爲之隕淚。五月辛酉。禁府開座。構上議處文字。洪員外重寅。爲金吾郎。頻來叙晤。因累致食物。知義禁鄭錫三，金東弼。都事沈得行。頻頻慰問。因言於判金吾。使之從實上讞。丁卯。始以徒三年照律。君既上原情。禁府又啓此人不可遠離親鄉。批曰。求忠臣必於孝子之門。P 戊辰。配於軍威。○己巳。與李三嘉同爲放出。○辛未。治發嚴程。○戊辰。馳入家庭。拜老親。○己卯。到配所。有詩一絕 九月。輦侍老親。留于峩川。居謫奉親似未安。而邑宰金公屢勸。監司朴公巡到訪見而許之。故遂奉侍。○邑中才子李屋根，李道根，洪澄，洪沉及其他諸人。負笈來從。

五年己酉。君三十九歲。正月。河上舍來訪。○三月。次感春賦韻。○撰延安李氏墓碣銘。○製延安李氏祠宇上樑文。○五月。特令放釋。本以三年徒罰。而未及周年而全釋。六月。河聖則又來訪。以致特恩遄放之賀。○十月。挈眷歸鄉。○十一月。作自訟箴并序。

六年庚戌。君四十歲。正月。爲入峽棲息之計。與余偕往東 P 村。周覽可居處。○仲父府君棄世。追想前日保養教誨之恩。哀毀益切。二月。葬仲父府君于縣西朴谷里。占山之節。葬需之助。身親勞苦。以至無憾。聞淨洞上舍族叔訃。此叔清真有識鑒。於人少許可。獨於君。每加器重。逮君登科之日。貽書摺紳曰。曾祖三兄弟。而德涵曾祖。占庭試壯元。官至修撰。季從祖亦占壯元。官至掌令。伯從祖以文章行誼爲世推重。而早登上庠。不復應舉。丁卯之亂。倡義赴援。中途聞南漢不守。各道義兵皆罷歸。而從祖則以爲賊兵未退。不可輕罷。因率義旅。詣闕告由。自上嘉之。特除祥雲道察訪。不久棄歸。以講學教授爲事是爲正模之高祖也。其曾祖亦以文行有名。時稱嶺南名士三。塚而小科之後。不克大闡。其祖與父。皆抱才早世。正模幼孤奉偏母。誠孝異凡。志操篤實。無書不讀。而於性理上文字。尤爲著力。老師宿儒。莫不敬重。今科巍中壯元。能繼先蹟。而文藝乃其餘事耳。然嶺外孤蹤。朝無相識之人。須念連家之誼。司儕之分。分館時極爲周旋。副此屬託如何云云。六月。王大妣魚氏昇遐。○十一月。聞李密 P 菴訃。有誄文。○十二月。答趙巡相 顯命 書。趙相書中。有滄桑世變賢良見棄之語。

六年辛亥。君四十一歲。正月己丑。以青信先塋事。往尙州丹密縣。判書先祖墳山。在於青信。古老相傳而尙未分明。君自擔當探尋有此行。○壬辰。以李滄誣啓。拿命逮至。君自丹密。還至龜尾宗人家。承拿而行。滄以媚嫉之人。誣啓全釋數年之後。更有拿命逮至。二月。承問目陳供辭。○辛亥再問。又供辭。時國族李台一。囚在隔間。請受中庸。君嘉其志。贈一絕詩。李友又言。時輩慕公文學行誼。既薦望兩司。又薦玉堂。朝野注望。不啻范馬之於宋朝。而倉卒變起。狼狽至此。匪公之不幸。實世之不幸云云。夢見慈顏書二絕。○三月諱日。泣書一絕。○乙酉。與居昌人面質。○四月。遠配興陽呂島。興陽。僻處海隅。而人知好賢。自 P 君來謫。有北學之志。而請業者甚衆。或稱雲菴先生。或道天放先生。而其中申復東。有同韓文公之區冊也。次金七灘 世欽 詩二絕。往在戊子。金公來謫于此。至是。申復東袖示其所藏金公詩二絕。感而和之。五月。和余四韻及古詩長篇。○讀啓蒙本圖書篇

。有一絕 六月。兩日先諱。皆曉起盥櫛。東向拜跪。以盡優然之誠。有寓感詩。 七月。聞余往。來待于興陽楊江院。○八月。送余于楞伽寺南溪橋上。掩淚以別。有贈別。 有二恥齋銘并序。○有游，楊，尹諸公。不著伊川行狀辨。○有二獨箴并序。○九月。母氏生朝。謹次朱晦菴壽母詩四絕。○書諸葛武侯事蹟後。○作石門菴記。○有弘毅說。

七年壬子。君四十二歲。 正月元日。作自新箴。○編素行錄。 P 自謫居後。歷述古聖賢隨遇善處之道。類次軼取中庸素位而行之義以名之。獨自體驗。不輕出示人。 冬避痘往石門菴。○立春日。有祝春詩一章。

八年癸丑。君四十三歲。 正月。得監賑御史周饋。李公匡德。提學眞望之子也。卽賜書問及饋物。又遺詩曰。竄逐非眞罪。功名誤善人。好餐南土飯。禍福等車輪。 爲金烈婦權孝子。作旋閩文。○三月。移寓白雲菴。有雜詠及序。改佛堂舊號。扁以精舍。有七言及五言詩。 十月。下山寓村。

九年甲寅。君四十四歲。 正月。遘感疾危篤。病中。夢見一神人。自天降。贈二句賦曰。風逾著於朴素。道自明於治安。既律己之灑然。顧警民之何難。 三月踏青日。與諸生煮花。有詩一絕。 爲柳君士直。作有斐堂記。又有題四韻詩句。 ○八月。與諸生共賞蓮花山。有詩二絕。 作觀水亭記。○十二月。赴申叔度冠禮。今世行冠禮者寡。而此人欲行之累請。故 P 暫往施禮。因贈四韻以勉之。

十年乙卯。君四十五歲。 正月。答人喪禮問目。京人李穡遭喪。後時成服。問除服必以成服日與否。 二月。以元子定號。赦慶移錦山。○三月。與余別于村前江上。余贈一絕詩君卽和。 四月。與諸友。共遊吹簫峯月影山。有詩二絕 五月。乞暇歸觀。○七月既望。泛舟廣石亭。移住大山書堂。成四韻。○十月之望。又泛舟廣石亭。效赤壁遊。有詩二絕。 十一月。與諸友遊新安寺。此寺洞中。有龍湫。曾爲愚伏鄭先生所遊賞。故再續勝遊。以追先烈。因成四韻。 十二月。又乞暇歸觀。

十一年丙辰。君四十六歲。 二月。子邦烈欲爲父訟冤。君以爲居謫之道。惟當恭俟處分。痛加禁遏。○三月。 P 世子冊封。赦又付處忠原。○四月。讀李栗谷四七往復書。有四韻詩。○題四韻詩于岳武穆傳後。○有廣石亭雜詠十六絕。○五月。乞暇歸觀。○讀朱夫子遠遊篇。敬書一絕。○十一月。自德周寺。移寶蓮洞。

十二年丁巳。君四十七歲。 正月。在寶蓮洞宗人所花峯之下。構成數間精舍。製上樑文。○四月。撰祖考處士府君行狀。○六月。乞暇歸觀。過行兩日先諱。還赴付處所。

十三年戊午。君四十八歲。 二月。序四書撮要圖說。○又序申龍厓先世事實卷。○三月。與諸益遊白巖。白巖本金 P 生習字巖。巖中有水如石臼。素以名勝擅。至是申上舍泰。登唱珍字韻二首。因贈君。席上誰爲珍。嶺南第一人。會中因續和。 端陽節。再遊石巖吟成四絕。○爲申上舍。作聾隱窩記。因題壁上韻一絕。 八月。乞暇歸觀。○九月。移寓龍安驛。李戚象靖爲連原郵官。出米銅以資。又源源相從。書請移來故從之。 十月。校正悔堂先祖遺稿。又裒輯年譜。畏約之中。雖爲先之道。亦所不堪。而重違門族合辭屬託。不可固辭。 十二月。先集及年譜成。李戚象靖爲外孫。故以先集示之。答書曰。十分精當。無一字欠。○李戚又見君所編素行錄。深加歎服。欲其廣布於世。

十四年己未。君四十九歲。 正月人日。題古詩一篇。寄呈金兄君瑞。仍請貸周易及退陶語錄，眉叟記

言。以爲靜裏看閱。三月。母夫人李氏棄世。○四月。乞由奔喪。忠倅金公始燻適往京。未能趁卽呈由。還官後 **P** 始乞得許。優助行資。○奔喪後。有祭文。七月。定葬地于先府君墓西。還赴忠原。○十月癸未。歸過窆禮。畧叙考妣貫鄉世系及生卒年月日。爲刻石埋壙。發引前。又有祭文。庚寅。還赴壙所。

十五年庚申。君五十歲。正月元日。質明設虛位。告祭于先妣氏。○有喪禮記疑十九條。○記鄭烈婦行。○四月。聞內子鄭氏訃。○五月。聞先妣練祥退行於六月上丁。請由來參。孿仲兒下來過親祥後卽還。有廬墓說。○有心喪人毛 匭 頭，鬚網巾記疑。○八月。歸葬鄭氏于遜道洞丁向之原。○狀先考府君，仲父府君，季父府君。○又狀淑人順興安氏，東萊鄭氏。○又狀從祖府君。○陽復日。書箴及序。與柳秀才 東暹。○又 **P** 書一箴賜子光烈。

十六年辛酉。君五十一歲。人日箴戒子光烈。○記三亥烈婦行。○有寒食記懷文。時伯兒往觀。因欲上京訴冤。君更加禁遏。使不得赴京。三月。過先妣再募。○禫月後。有叙哀一語。○六月。書古詩長篇。以寓喪餘之懷。○效楚辭體。寄楸谷金友君瑞。○書潘氏論漢文漢武說。○七月。書聾隱窩辭。寄呈申上舍。○有憂中樂辭。○敬書退溪先生解釋朱夫子觀書有感後。○遊伽葉山。有遊錄。有陰厓辭。伽葉山蘭草寺之南。有東陰厓西陰厓。己卯名賢李公籽所遊樓。故感此作辭。又書華夷相勝說。○九月。先妣生朝。泣血書四韻。○處困篤志箴戒伯兒。○十二月。雪月夜。與諸 **P** 友乘冰驚溪。有五言一絕。七言四韻。立春日。作立春箴。許遏。卽許留守稠曾孫。從學之久。書示此箴。

十七年壬戌。君五十二歲。正月。在青龍寺。與許瑾，許瑢。留日講討朱書。答南國老 耆 問目。國老作大學圖，心學圖。來問。畧識所疑以答。三月。避痘下山。有送春詩一篇。○四月。有遠遊詩次韻。○己亥。製古體一篇。寄許明遠。○是日午後。有不平氣候。○庚子。痛勢漸劇。神氣雖損。而猶堅坐不卧。辛丑。痘漸現。○壬寅。諸士友來會。鄰近士友逐隊來問。送米豆與饌物。其中許明遠叔侄。許瑢，許瑾，李萬甲，李燁，柳東暹，金聖河。或在十里外。或數十里外而俱齎糧來留。日夜侍湯。○癸卯。通病報于本家。病中手書二張。一則寄吾。一則寄伯兒。文意筆畫。無減於平常。且女婿隔數日。書中言決不可退行。以定日成。禮之意通示。夜口呼古詩一章。使仲 **P** 兒書。以示諸友。乙巳。症勢危篤。起居。不須人扶。冠帶莊敬。一如平日。丙午。別症疊出。諸友。奔遑求藥問醫。多方救療。戊申。一向危欲。是日午。子邦烈及再從弟益模。奔走進見。君猶能起居。攝衣冠。問鄉井事。○ 豐豐不厭。己酉。邑倅賚藥問病。李侯命坤。聞之驚動。使人賚藥及豆米。并惠猪鷄鰓魚諸等物。庚戌。謝諸友。先是。數以救病之意謝之。又曰。幸以晚交。相與追隨講學。亦此世不易事。今又罹疾。令僉君子俱勞瘁。實不安。辛亥。病勢已革。諸症危惡。猶處之晏然。每以天數已定。夭壽不貳之言言之。壬子。取水楊湯盥洗。辰時終。士友齊會治喪。遠近相識者。無不蒼黃赴弔。哭之甚慟。相議曰。古人儒宗之喪。歸衣服貨財。吾儕今日何獨不然。遂各自隨力出布帛衣衾等物。又曰。申先生平日居儒素。未嘗見其朝官態度。送終之際。亦豈不遵其規模。遂做朱夫子深衣大帶之制用之。戊午。成地殯。邑倅聞之。送布綿棺板。又送官匠。使之治棺。九月。子邦烈。呈書陳情于忠清道伯。監司李公宗城。見書 **P** 墮淚。快許軍丁。其外喪具糧資及喪人所騎二夫馬。一一備給。又轉囑于嶺伯金公尙星。使之遠運無滯矣。十二月己酉。喪車登程。諸士置奠哭送者甚衆。致賻者亦不可勝數。許璈，許遏，金聖河則隨柩。至烏嶺而後。哭別。丙辰。達于故宅。先是。湖伯慮中途遲滯。預通路程記于兩道所經官。又命運官輩。到處檢護。翌年癸亥閏四月壬申。葬于五土山南璋龜峯壬坐之原。距家二

里。遠近人咸涕淚曰。天之不憐善人至此。生民何所賴云云。三月。承全釋之命。咸昌倅朴思秀書曰。今月二十一日䟽決時。自上特放。營門又傳朝報。始知由忠清監司狀啓。其後子元烈赴京。見右相趙顯命禮判李宗城參判吳光運。則皆悼惜垂涕。卽通禁府出示放秩。遂奉以歸。告于神位前。七年庚午五月。大朝溫陽舉動時。莊獻世子啓請復職。同年九月。世子又啓于大朝。再請復職畢。○後百十四年。

Ⓟ 新聖御極元年甲子。特蒙復職之典。八月。五世孫相憲。卽發京行。奉牒以歸。年號用雍正。十月晦日。邀多士告廟。

三十五年戊戌。文集成。

[주-] 訃：計

言行拾錄[男邦烈]

祖母嘗謂不肖孫曰。汝祖父喪事後。吾往于豐山親庭。汝父始生。形容端正。良知良能。又過人。親庭之人。無不愛如圭璋。孤山先生尤加撫愛曰。此兒全體。都是規矩準繩。必將美且大安而成。雖古所謂胎教。無以加此。余聞胎教之言。每深瞿然爾。

又曰。汝父跪膝拱臂。故衣之當臂膝處必先弊。坐Ⓟ榻。亦穿當膝處。

又曰。幼書耽讀。所學雖十餘張或半卷。而讀一二遍。洞然成誦。既誦後。亦不放置。晨夜必溫理。須臾不息。於生產財利。澹無拘攣。雖牛馬。不知其已畜。田園亦未知其已庄。聞者咸服其無物累。

丙申冬。赴丙別于漢城。行至小鳥嶺。見路傍有皮袋裹物。若不見而行。未及一里。見人有回馬來急。問之則乃錦商失錦囊者也。指示其處。使之覓去。其人感之。

祖母又曰。汝父讀書。專尚學問。不喜科文。或時強作。而人稱紆餘精切。有德之言。自然成章。淨洞進Ⓟ士重愛之。及歲己亥。以吾言赴榮川監試。得二等。迺曰。此亦少慰親。不必更見東堂。淨洞。校前兩進士。合辭勸赴寧海。又得策文一等。人皆服其實際所發。膾炙於世。

省試考官曰。時文例多逃竄。而此一策。獨天然由中而發。譬如大河安帖之中。平地波瀾。因風自湧。實爲萬世法程。當爲榜首。擢第一。

常有有若無。實若虛之心。故雖登第之日。亦持謙挹出入步趨。每後於人。諸新恩戲之曰。壯元爲殿。

既登第不求仕進。益專意精思力踐。必究道德仁義之實。博求約守。克盡性命體用之妙。又以兼濟Ⓟ鄉後爲己任。有以書及門者。必諄諄教諭。思盡成己成物之工。每以名實難副爲戒。

景宗朝詔舉賢良。李提學眞望啓曰。以臣平生所知言之。惟義城申某而已。有孝行有學術。一見可知爲有道人。若用此人。則人才不患不得也。其後又應旨書進十人。而首書先考姓名。由是朝廷將欲大擢。

初參持憲望。俄薦正言望。當是時。

朝野咸想望風采。願一見之。公卿大夫士會政堂。則必曰。申某久置不用。非朝廷之福。又曰。用人之道自孝始。聞其奉親固窮。無以爲養。曷不先任外以養親。俾遂其孝也。遂除居昌。肅拜時。李^P相下堂迎見。極論古今。達曙疊疊。別後不忘曰。乃如之人。宜早入廊廟輔導之地。不宜置百里之才。

莅邑之初。首除劇弊十餘條。民皆悅之。民至官庭。教以孝弟睦婣任恤之道。對諸生。勉以力學舉禮之方。旬月之間。治績有聲。而竟以賊變。不克大施。一境民人。至今稱惜。

辛亥再罹時。金教官 瑞一 唁之曰。兄天資甚高。平生讀聖賢書。透得義理重關。點檢身心。無愧神明。雖遭時不幸。數年之間。再罹遷謫。是亦天命使然。聞其被逮時。辭氣從容。就理亦然。曰。平日定力。於^P此可見矣。

張知縣 孝一 語人曰。余在京時。見申居昌就理事。掌獄諸官皆滄黨。其威猛不可形言。而申公處之自如。苟無素性定力。何能乃爾也。

先考與滄黨。素無相忤。而彼專以羅織吾南爲奇貨。誣啓推鞠。嚴加定配。罔不由於滄之所弄。而猶寘之尋常。未嘗言其惡。雖有問之者。只答以遭時不幸而然。亦不言其構捏之由。每以程集中孟子既知天。安用尤臧氏之語。示諸子焉。

居謫。每逢忌日。則必致敬致齋。待雞鳴盥櫛。東向跪。噫欠再拜。或爲位陳酒果。叙報本無路之痛。

^P 一生忠養之心。在遠益切謫中如得珍物。則必待便而送。以助養親奉祭之羞。人或感之。樂爲使役者多矣。是以在興陽時。得黃橘石清。則僧龍淵輩。遞番傳致。在錦山時。得官賜魚梁生鮮。則士人黃玟。張鳳漢等。躬傳于家。在忠原時。得官饋粟穀。則崇善居李忠義。馱運于親所。蓋傳輸之言。一不開口於人。而人之樂用不厭。如此矣。

到處從遊者甚衆。寒暄應酬外。惟古人嘉言懿蹟而已。至於時政得失時輩長短。則一不言及。雖有來言者。答以不知。然而猶聞君德有進。政事有得。則喜而不寐。若見饑饉災異。則憂形于色。爲時^P 眷眷之心。不以升沉而有間。諸子全集。則每隨人開示。循循有序。勉以切近之道。於科作請教者。則答曰。自我謝事于今數十載。更不對時人文字。諸君不必枉求於此。

嘗謂諸子曰。居今之世。固不可脫却科場一路。而一向偏著。終是乖却心性。汝等須讀書飭行。或有山林慕古義者。則行其志。或有立科名。扶門戶者。則亦行其志。但不可彷徨欣憾於得失之間可也。

教詩氓章註。士君子立身一敗。萬事瓦裂。歎曰。此非可警處耶。或有无妄之眚者。豈可以一敗而遽摧哉。惟當堅守其志。益修其業。恭以俟命可也。又^P 至狼跋章。公孫碩膚。赤烏几几。復歎曰。後之罹患者。當如是矣。

又曰。學貴在不言而自得。若有安排布實之心。則非自得也。今人之不窮理不踐實。而徒取先輩文字。以美觀瞻者。都是安排底意。此吾所以潛心默會。極其歸趣。未嘗別立意見。品藻聖賢遺訓也。

與人言。若論文論道。則必反覆參訂。辨析不遺。辭氣和暢。使各盡情。必至於至正至當之歸。

接人也。氣像和藹。處獨也。法度森嚴。雖曩居之中。益懋提省莊敬之力。未曙而起。必盥嗽衣帶。靜坐對案。終日乾乾。恒若入廟趨朝之時。

Ⓟ 中州諸士友勸之著書。答曰。古聖賢遺訓。布在方策。更何必強立意見。別件論述爲也。

韓公光照謂金聖河曰。余見權弼善相一於京邸。問申公造詣。曰申景楷天姿高。不大段用力。而自然好學。自然行孝。觀其四體。無非德學所積。又觀其道南講席之規。儘可師而不可友也。遭時不幸。盛名致忌云云。吾對曰。不幸何論。吾欲從師。權公曰。子計得矣。今子已從師。則吾亦偕子往從。子其先導之。金公曰然。申丈真古人也。勿以今人待之可也。

高安州 裕。與崔進士 亨洛，李進士 魯 相言曰。申先 Ⓟ 生罹患事。實如太陽沒微陰者也。方其營關寂然時。暫爲背負全母。孝也智也。既保親命。不終日而旋入封壇。發文招諭。得數百人丁。嚼齒爲赴賊。忠也義也。事理當前。無傷天性。

挽詞[金星慶 畿湖軸]

真知吾道樂。存亡幾居諸。萬事羞今態。一生好古書。行藏天可質。榮悴子何如。半世江潭上。是心常靜虛。

Ⓟ 可歎浮世事。春夢一番疑。忍對今秋菊。獨斟去歲卮。山河收淑氣。鄉塾乏明師。爲吊南州士。斯文更屬誰。

挽詞[許昶]

勢迫黃猴冠忽深。妖腥虺毒震娥林。兵戈空鬱書生膽。印綬難縻孝子心。沙蜮巧投伺影弩。瘴烟寧燬在胷金。丹霄未上鴉鸞語。九地悠悠恨共沉。

一見清揚意轉酣。春闈梅岳盡情談。尙論晦退淵源接。細究儒禪道脉參。吾道賴君方有托。文情啖蔗覺逾甘。遺篇更灑存亡淚。相仗窮途面發慙。

挽詞[金字楫]

Ⓟ 碧山學士身巖居。巖上春容藹有噓。學士卽今朝玉帝。巖中誰復做熙閭。

有賢在世拋經綸。上帝深憂大道淪。人衆此時愛莫助。故教司命催儒臣。

挽詞[崔夢翼]

惟孝與忠斷斷賢。懷奇抱道嶺雲邊。吾東普澤雖無分。此境作成庶有緣。天意冥冥年不假。門徒處處鉢誰傳。我其醇醉忘年者。忍對春風坐塑壇。

挽詞[金聖河]

純深孝友出天真。種德如何未食仁。志業經綸違厥施。文章道學見乎醇。涪容始信看髭日。楹夢俄驚啓手辰。吾黨卽今窮否極。更誰先覺效斯民。

挽詞[洪重敷]

有人如玉生南中。藹蔚高標擅我東。朝野咸期治一變。身名胡至厄三窮。千言庭策今猶膾。萬倍工程老益崇。棘路永終何足恨。所嗟惟在法門空。

挽詞[許鍾]

學士當年此謫居。吾儕伊日競趨裾。幾薰君子經邦業。多仰眞儒繼聖書。天意若將微有監。主恩良幸復如初。因茲更恨仁無壽。長憶典刑涕作瀦。

詞[崔宗岳]

謫裏樞衣學坐春。飽厭和氣純乎純。敬誠本自天生篤。博約元從素履新。憂患寧侵忠孝肝。風霜不敗繼開身。片宵楹夢胡爲孽。人遽失匠道失真。

挽詞[柳東暹]

自從二恥先生歿。小子如何哭斷腸。小子斷腸非爲私。學淪道廢是堪傷。

叨陪杖履最多年。竊幸老成寓大專。霜冷魯郊麟趾踣。傷心無路起窮泉。

挽詞[申道復]

皇天鍾淑氣。夫子起東壇。學述洛閩旨。道承洙泗梁。雖沉瘴癘窟。庶望經綸張。鵬舍竟頽折。堪嗟命

不祥。

挽詞[洪重寅]

失儒宗後出儒真。舉世望如瑞世麟。甘雨和風功用妙。青天白日道儀淳。專城纔遂毛生孝。臨亂其如管仲親。觀過可知仁有裕。千秋公議定應純。

挽詞[蔡城 嶺南軸]

有母不爲俘。趙苞未必死。儂山風雨路。星月照心事。

北方多是非。南嶺如劒鋌。艱關孝子輻。應趁舊萱堂。

天挺一師表。卓然不世姿。行成齟齬歲。名大壯元時。居烈管情見。中州賈鵬悲。仰瞻西嶺月。千載照心期。

挽詞[鄭泰膺]

東南運會棘。天不慙斯人。毛屈曾由母。仲奔豈爲身。求忠須在孝。觀過可知仁。陽復定何日。擡頭望北辰。

挽詞[南聖集]

憶昔忠峽候公年。蕭寺秋深近午天。定力推知髭髮勝。存工方見笑談娟。吾林幾屬斯文望。異地廣關後學顛。千里旅棺初返路。故園消息忍堪傳。

挽詞[南聖弼]

常怪浮薄論。不樂成人美。惟公斷斷心。俯仰皆無愧。憶昨狼狽初。娥林風雨至。兇鋒山岳震。奸徒肘腋起。斗膽雖自鬱。空拳奈難施。平生學問力。熟講義與理。既受保障任。臣職當一死。顧念偏慈老。空衙我獨倚。思惟報國義。宜先奉母避。非乏臬卿舌。深鑑趙苞事。今爲陪負行。明將討賊意。逢時嗟不利。有志還無位。三年惠州飯。顏色空憔悴。聖上察其冤。詔許歸田里。如何白玉潔。更被蒼蠅累。長沙千里路。孤臣數行淚。閉門對黃卷。頤心安素履。那知覆盆裏。重值家運否。雷水未成解。鵬鳥還爲祟。殮殯無親戚。攀號哀二子。歸旋撓鄉山。萬事堪一喟。如公未易得。抱負非偶爾。伯仲顏閔行

。P羹墻晦退趾。文章大鳴盛。學優初登仕。誰知經國手。反作明時纍。紛紛訾毀流。嗟不諒人只。念我從公遊。公不我爲鄙。幸荷忘年交。竊得附驥喜。轉頭人事變。千古幽明異。一聲來哭處。山哀浦亦思。

挽詞[權繳]

生民有大道。忠孝卽天秩。惟親及事君。所在力當竭。噫嘻我申兄。聞道自少日。堅堅豎脚跟。恂恂資學術。蔚然君子姿。自是邦之傑。念昔涖灘歲。梟獍肆凶孽。兄時守百里。禍機迫倉卒。非是死國難。祇以存母切。天仁應有眼。鬼幽恨無舌。賈賦幾歲年。屈佩自芳潔。伯強又何虐。仁壽竟奄忽。蕭蕭達川P雨。歸旆影明滅。幽幽九地下。衷情誰更列。所貴在安命。死生志惟一。天乎奈命何。靈庶解噎鬱。一痛送君去。悲風吹不絕。

挽詞[柳正源]

大鳥大鳥生南州。五彩輝輝毛羽脩。一飛搏雲霄。一鳴震海區。彼哉啁啾槍榆輩。有口有翅徒自羞。爭言瑞世姿。行看漸達用爲儀。無人借以上林枝。棲棲棲向枳棘卑。天胡爲生梟與獍。使汝嘒嘒音政悲。大鳥復大鳥。嗟嗟奈何汝命奇。汝翮鍛汝足紕。嶺頭雲關外雪。南枝幾年繞歸夢。半夜啼盡林中血。金雞對仗無消息。子鵬斜日還告孽。塵寰擾P擾一蟻蠓。肯較寄歸夜朝同。奇毛異彩尋無處。惜哉好音過耳空。虞殿餘儀不再來。岐下遺響但悲風。大鳥復大鳥。爲汝上訟司命公。

挽詞[柳觀時]

子有才識兮。子有學行些。而兼有之兮。獨無其命些。玉之貞固兮。織纈浼之些。蘭之峻茂兮。狂飈敗之些。倉卒之不遑於應變兮。亶由爲親些。忠莫能白兮。仁孰知之些。哲人志士兮。自古名無完些。惟彼白日在上兮。庶幾照覆盆些。十載湘潭兮。一心康莊些。吁嗟乎涪州氣力兮。慳愴然春陵喪行些。德未普施兮。文違廣張些。一時有晦兮。百世無偏P些。短句心聲兮。聊寓無限之冤些。

挽詞[權惺]

天生睿質化無爲。曾孝之純顏學孜。兒戲靜籟自持日。冲年坐榻欲穿時。揚名匪以占魁策。所向人稱不世師。乍試武城膏災至。天生本意邈難推。

挽詞[張緯仁]

姨母崩城日。兄時遺腹兒。形容自雅正。才德出良知。胎教忠孝篤。巍科黼黻期。俄然遭不幸。大道痛無施。

挽詞[張緯邦]

德行文章備一身。幸看衰世有祥麟。高才早合登廊廟。厄運那知值戊申。向上篤工行患日。戀君忠悃詠蘭辰。青箱一錄心期在。長使儒林淚滿巾。

挽詞[張緯恒]

墨綬黃堂畫。青袍白馬兒。封壇臣合死。星夜母誰持。國有當時法。人無此義知。迢迢嶺海路。鶻血送靈輜。

挽詞[南聖民]

子而能孝弟能恭。悔老門宜生我公。文得易書詩禮力。學聞伊洛閩濂風。香名半世空媒孽。恩譴三移任轉蓬。耿耿一心歸宿處。監臨下士有蒼穹。

挽詞[許邊]

光嶽千年降。悔堂六葉孫。文章窺閩域。道學泝淵源。未下雞竿詔。竟招鵬舍魂。生離恒自苦。死別復何言。

不謂看今世。天姿迥出羣。羹墻退陶學。寤寐紫陽文。夢斷紆黃綬。心思卧白雲。經綸斂一木。空負平生勤。

挽詞[金聖時]

江潭暮雨送銘旌。峽路楓林暗復青。厚地惟應歸飲恨。皇天曷不降臨情。文章妙歲魁庭策。志業窮途抱聖經。萍水晤言蕭寺畔。秋山物色倍霑纓。

挽詞[許寶]

玉潤金精吾道人。明時見逐一冤臣。經綸繡世胡無分。忍作涪江泛旅輶。

春將墨字謾相贈。冬掩寒窓紛寫旌。可惜十年髭勝力。只追千古蔡翁行。

挽詞[鄭棟具]

春風香積寺。晚拜道德光。內蘊縱未測。外發槩其詳。天然渾粹地。磅礴體康莊。有坐凝泥塑。有儀映金塘。仁山何巍巍。智水亦湯湯。坦蕩心無礙。博約溫如陽。可歎命世師。胡在禦魅坊。伊昔發軔初。璜聲動四方。黼黻王猷期。笙牖時世望。如何全母誠。P反媒黨論謗。世痼固如斯。先生不少傷。寧存流放感。深甘嶺海茫。義理自怡悅。患難視平常。白首青楓路。髮短丹心長。孤忠貫宸極。至行摩穹蒼。既遭達行界。思盡唱明場。鱸席誨不倦。屋漏工逾剛。積累且飽飫。研窮極高彰。賤子從學日。一視去皮糠。玉札開迷轍。金篋刮膏肓。長侍揖薰醇。擬免爲顛狂。天意竟難謀。遽然白雲鄉。公還浩無期。欲續斷梯梁。山頽今幾時。志士日慨慷。幸有聖主恩。放釋歿後揚。恭惟追賁典。永永垂無疆。

挽詞[鄭泰東]

嗚呼吾子胡不祿。可惜其孝與其學。學如堯子自P然好。孝似宗聖素心篤。方其發軔萬里時。謂子經綸能致澤。如何一朝全母誠。反被三遷偏黨酷。道州編管道州糲。古今一轍非子獨。最恨孤忠未上達。天鑑應照子心赤。時之不幸道莫容。儒林典刑更誰屬。金玉粹質鸞鳳儀。欲起窮泉嗟邈邈。嗽然大哭呼靈龜。老聶無階天門闕。

挽詞[安光世榮世]

東南運氣一何衰。不意我公又至斯。發軔當年人手額。割雞纔月治兼葭。嗟無至孝全親許。誰識貞忠難拜時。大德元來天必顯。區區世間復奚噫。

祭文[許寶]

P昔聞南土。云馬之冀。惠性種種。并駕迭起。公生苦晚。莫覩是際。志遇朝暮。世後百載。邈彼津梁。艱厥涉濟。澗栢終孤。溝梗且際。晝鵬詠罷。點蠅莫制。時乎乃然。命也可奈。山房邂逅。交何遽結。我性樸遯。公學質實。片言襟契。不貌以腹。期一枕聯。論討詩易。癘疫大行。均懷畏約。三春鼈縮。莽蒼送目。耿耿莫紓。只一瓜瓞。塵案更展。宛昔清揚。筆祖陶山。詞襲古程。其心髣髴。我淚縱橫。愍茲二難。子子惇惇。濱死守殯。夏盡秋更。千里返櫬。白地經營。世無范子。麥舟誰付。願我初心

。大謬而負。噫哉我公。行備德優。俄榮且枯。霎懼長憂。人噓又噉。天哉誰尤。然^P悲卽目。幽吟楚些。招招歸去。魂兮認麼。

[주]襟：襟

祭文[李萬甲]

吾先生景楷。其果知萬甲之以先生稱子乎。噫先生生嶺南。萬甲生畿甸。初何嘗窺得其造道成德之何如。而祇以洛人手額傳誦之實。就息山從而叩之。則息山曰。平生交遊中。惟景楷居最。蓋其至性孝親。本自良知。聞道又甚早。收斂精微之工。自得於成童未及之時。觀其論道悅學謹身敬物。皆吾師也。萬甲聞此言。益慕之。恒願一接而未能也。及其遭流竄而轉移忠原也。始得見君子之光。蘭芬月輝。先生之神彩也。金精玉潤。先生之道氣也。^P竟日危坐。渾如泥塑。先生之德容也。祇天敬畏。死而不貳。先生之功用也。既見其人。參以前聞。則息山之言。儘有據矣。洛人之誦。亦無溢矣。然則萬甲雖未嘗學道於吾友。而稱之以先生者。豈無義乎。噫吾黨近益衰。惟倚先生若砥柱矣。今又不假其年。天不欲詐我東耶。斯文誰爲之主張。後學誰爲之倡道也。環顧斯世。法門一空。嗟嗟先生。何處覓來。諸士相吊。靜江之號痛不盡。

祭文[金聖河]

有名德門。孝慶發只。或杜或閻。赫華閻只。篤生偉人。賁烈烈只。騫德振華。標望絕只。妙歲魁選。聲價^P蔚只。文章道學。爲世傑只。需時而庸。將施厥只。板輿下邑。以親屈只。武雞單魚。民庶活只。下車未幾。凶煽孽只。亂生于猝。計莫遏只。賊急勢孤。奈親耄只。禍在俄忽。負而脫只。孝先保慈。忠思竭只。營啓職罷。策無設只。謂苞去城。在冶綫只。逢時不祥。一步跌只。天日監衷。恩薄罰只。人言罔極。重以律只。十載湖海。困三黜只。南遷北移。瘴癘窟只。然猶宿德。素履謐只。處困而亨。貞且吉只。指天爲正。動忍拂只。旻不佑善。毒降割只。楓林暮烏。哀啼血只。枳樹離鸞。驚斷匹只。至恨終古。痛纏骨只。忠江之北。于蘭掇只。山寺棲遑。又巷篲只。梅山晚移。我^P僑昵只。山仰方切。齊趨謁只。粹容溫辭。道氣溢只。洛塑坐春。勝涪髮只。篤敬方直。外內澈只。水月金玉。表裏潔只。動靜語默。率以律只。厄窮患難。確操一^P只。雲谷遺書。膺弗失只。陶山餘訓。口若出只。不鄙夷我。導迷轍只。玉札投症。金篋刮只。叩蒙而牖。勤誘劫只。契遇雖晚。情知密只。春風杖屨。共花月只。暇日觴詠。同礪樾只。遷僑分華。與成說只。考槃窮經。餘歲卒只。暮境從遊。期相故只。余時觀國。行告別只。婦棹未稅。凶音忽只。自我之出。曾幾日只。珍重一言。便成訣只。一夢人間。萬事倏只。天荒地老。理難詰只。惟彼蘭茸。乘且絃只。亦粵奸儉。壽而^P佚只。云胡仁德。報賞闕只。威鳳投棘。世抹擻只。良驥遺野。身窮汨只。雞書未降。鶴歸警只。廈誰支矣。棟遽折只。嗟公之德。孰覩悉只。孝友純仁。天性實只。性理淵源。自聖帙只。窮格喫緊。鳶魚潑只。博約擇執。跟豎屹只。素行一錄。心所恬只。學可經世。文猷黻只。天何不怒。其速奪只。命之不幸。公何怵只。道之不明。公實咄只。言旣不傳。行無述只。不知何慍。哀湮沒只。斯文更誰。吾道闕只。邦國殄瘁。痛貫結只。薄俗嗟嗟。澆舌聒只。吹毛而疵。謂白涅只。蒼蒼在上。心可質只。順受而歸。公任達只。所嗟窮厄。存又

歿只。二棘欒欒。哀靡恤只。扶欄叫昊。行涕雪^P只。顧余不佞。早泣子只。詩禮無庭。冥^適趙只。
幸承提誨。徑茅豁只。攝齊受^箝。力期竭只。我生無祿。公去猝只。俛俛斯世。我何轄只。拊念此生。
慙負竊只。自公斂鞞。秦視越只。山川夔邈。故園濶只。江潭風雨。畸魂洸只。嶺雲千里。丹旌揭只。
。冬日慘悽。寒風淅只。哭訣南天。遠將緋只。一曲哀辭。淚泉徹只。英靈鑑恕。歆茲齎只。

祭文[洪一輔]

申公寔我登第時榜首也。是以知之有稔。蓋公之文。雍容典雅。豐約中度。不大聲色。而義理自勝。條達踈暢。公之行孝弟忠信。踐履篤實。不區物我。而^P德宇自純。坦蕩粹白。執此而遇於世。則可以扶文氣變士習。可以尊吾君庇吾民也。而遭一不幸。懷寶莫施何哉。況且聖人之言曰。求忠臣必於孝子之門。蓋謂孝子而後爲忠臣也。公之至孝。當賊勢充斥之時。今日爲奉母謹避。明日爲討賊死國者。其在忠孝兩全之道。可謂得矣。而竊恠夫當時營門。元無戒嚴之令。反有罷官之督。使公不得措手於一兩日之間。嗟乎嗟乎。此不過遭際不幸底時也。而世之仇善良者。反以此爲^虛忠。并與夫全母之孝而不自白焉。噫嘻悲夫。若使公眼。恕管仲之有母。卞趙苞之徒忠。一賜收用。任之以黼黻。畀^P之以位育。則移孝爲忠。此其時也。啓沃盡忠。亦可曝矣。而不顧古聖人求忠必孝之訓。不念程叔子趙苞徐庶之論。惟務擠斥。惟設網羅。末世譏訛。堪可痛哭。噫碩輔丕責。若天有鍾。蒼生重望。本不偶然。而好惡有眩。是非不公。至使經世之文。範俗之行。尊主之道。庇民之德。都輸入於舂陵一虛歸之輦轎。昔人所云。人衆勝天者。其果有得。而天定亦勝之理。終將無驗耶。固知怨天不可。而於人則自不得不致尤。未知此義。能爲微顯之意耶。其憤不得正之語耶。臨風大吼。天地如裂。復何言乎。

祭文[許鎰]

^P嗟嗟廣文而至斯耶。嗟嗟申君子其眞死耶。嘗聞邵二泉之言曰。願爲眞士大夫。所謂眞士大夫者。豈不以眞行眞道學眞文章也。公以至孝聞。以問學顯。以文章名。此非二泉所稱眞士大夫者耶。方其冲年。自得小學之道。甫及志學。已成性理之工。又於天陞對策之日。大揚其經綸之文。世之以學士名者何限。而例多一藝耳小技耳。夫孰如公之眞箇孝眞箇學眞箇文之兼備也。是以洛士誦之。朝野望之。銓閣推之。旣薦擢於兩司。又擬望於玉堂。視之若古之眞侍講也。而惜乎。時運不幸。命道多舛。專城便養之地。倏變爲賊藪。孝子全^P親之情。在所不已。而今之時與古之時不同。誰憐移孝爲忠之志而引之也。誰闡觀過知仁之法而發之也。孟明微眚之宥。初頭公責。而終焉重咎者。實由媚嫉之偏也。固知羣陰之中。孤陽莫容。而猶幸其素來眞工。愈積於涪行之力。其生也。屹然有眞士大夫之餘望矣。今其逝矣。復誰爲士大夫於斯世也。然則老我之哭之慟。招之哀者。非但爲吾子慟也。眞爲邦國慟。眞爲吾道慟。天其聽歟。鬼其知歟。

祭文[安邦哲]

有截烏道。楓林黑只。有翩丹旒。侯誰戾止。縣監哀^P啣。海蠅悲吊。淒淒客舍。羈魂誰慰。遙遙脩途。旅櫬誰護。公喪纔迎。我淚先落。發軔昔年。那知今日。蔚然聲華。藉藉京外。自期人期。將以有爲。誰謂一官。遽誤平生。十載窮謫。一疾云喪。父子兄弟。生離死別。鬼神茫茫。天地漠漠。行路尚涕。矧我至情。踰嶺躬謁。一未遂誠。今於中路。始哭公靈。情義安在。負罪幽明。握哀之手。吐我之衷。辭不盡意。言不盡情。一盃敬薦。尙冀鑑誠。

祭文[李魯]

自古善人君子。遭不幸而爲世所棄。齷志而歿者何限。而未有若吾兄之甚者焉。何者。公在腹三月^P而先大爺棄背。幸而不滅於姑氏崩城之日。而孝友之性。實出於賦生之天。老成之名。已聞於童子之時。觀其容則粹盎之和也。語其學則誠正之實也。平生受用。無不近理之工。而不待師教。揔自心得。溫然有生知安行底體段。未知古君子資質之美。踐履之篤。俱果能如此否。至於文章藻華。乃公餘事。而不免屈首從事於場屋之間者。以我姑氏在耳。方其對策龍庭。巍占科甲。妙年高名。膾炙於人口。蒼生重望。藹蔚乎世路。或者天不虛賦。展盡所蘊。而豈料夫安陽一檄。遽作禍階。狼狽中途。飲恨而終耶。嗟乎娥林時事。尙忍言哉。凶逆猝發。遠^P近蒼黃。吾兄一生。但知忠孝。則公於是時。豈不知死守之爲義。而只緣人心汹汹。既無收拾之暇。而鶴髮奄奄。實有迫切之情。自念母子。與其俱死於賊。孰如將母而圖後也。不得已背負。免禍於賊藪方張之際。而旋赴賊藪。以死自誓。若使其時營門啓罷少緩一日。則全親報國。忠孝無缺。而獨惜乎人不我揆。事與心違。當日所遭。弟所備悉。而切恨夫今世無程子。誰卞趙苞之事。爲愧於義也。赤羅徒年之配。既爲勘斷。而彼繡衣者。獨無人心乎。奚忍構誣於白地事去之後。而必欲擠石而後已也。何幸聖上裁處。待以不死。五年於瀛洲。二^P年於錦陽。六年於忠原。三度流移。一味自訟。怨尤之心。不形於色。憂愛之心。自溢於辭表。楓林十載。髭髮勝昔。尙非素患之工。實得於中。其不隕獲於顛沛流離之際乎。自號二恥。心事足質。禁子訟冤。安分可知。庶幾天日重明。照此覆盆。而風樹不待。奄纏蓼莪之悲。金雞未曉。謾灑林烏之血。皇皇澤畔。號隕靡訴。而一暮纔周。又遭胖合之痛。何其積善之餘。殃禍之至此酷也。固知兄能理抑。不以無涯傷有涯。而本匪金石腸肚。何嘗學釋伽子氣味。而終不爲之十分摧裂也耶。東床迎壻之日。聞公染痘之報。此乃兄雅慎之疾。而年又向衰。衰年^P毒疾。勢不相敵。而猶此不以爲深慮者。不但公氣稟之厚。心德之良。可得期頤之壽。亦念公抱負之大。似不如此而止。祝手計日。竚俟平復。而半夜楹夢。凶聞忽至。天耶鬼耶。將厭世溷濁。乘化而歸盡耶。抑大限止此。雖欲少延而不可得耶。千里客土。四顧無親。生扶死殮。只有兩孤。而幸賴忠原賢士友。義氣薄雲。出米肉以救其病。辦衣衾以殮其屍。哀死之情。恤孤之恩。萬出尋常。觀其挽誄文字。可知好善之意。而豈非兄片片赤心。自令人景慕之至此耶。人之知與不知。在吾兄無所加損。而惟彼平日詡詡笑語。自許以知己之列者。乃反吹毛索^P癩。邈然若不相識。然雲雨翻覆。世態堪傷。而末路高義。不圖見於忠原諸士也。吾兄學問之醇正。造詣之深淺。固非謏見之所可妄議。而才美如吾兄。心德如吾兄。誠孝如吾兄。求之今世。罕見其儔。向使得意明時。以普厥施。則經綸可期。斯文可任。而生丁不辰。有才無命。一番蹉跌。萬事瓦解。天意固如是耶。第所仰慰於幽明者。幸有丈夫子三俊。雅奇絕等。揔是孺家兒。倘或天心悔禍。人意稍定。次第成就。能自樹立。則安知嗇施於身者。果不食報於後耶。今此大歸之日。告訣者不止於此。而情溢辭蹙。不知所云。

祭文[金瑞一]

天生我友。不偶錫之。日旣錫之。曷又鞠之。公初發軔。人推厥轂。謂行萬里。毋臭爾載。命不謀時。名亦鬼忌。遭一不幸。衆尤攸歸。再罹遷謫。路轉險危。十載江潭。日白心丹。隨時處變。欲效兩全。奈彼黨論。冤不或寬。湖流不盡。人命詎幾。櫬歸陳坂。萬事已矣。湖士誅行。言觀其章。零陵泉石。幾被昭光。素行一錄。質神不貳。之心之學。斷斷君子。我最知公。早托契誼。十駕相推。齊以臭味。丹邱卜鄰。信誓在心。江山虛待。猿鶴尙吟。存亡異路。宇宙無期。楓林夜青。我夢依依。山浦阻遠。魂莫爾招。悠悠日月。載遄^P祥菴。艸看再宿。恨不瀉臆。以事觀情。孰知我憾。覆巢餘卵。三長殊毛。公死不死。典刑是模。講誼在茲。握手何言。感古傷今。哭盡淚昏。嗟嗟景楷。何處覓來。書帷晝掩。壑愁風哀。斯文沒地。世道關天。羣疑遇雨。霈及神人。泉道閉幽。說向誰是。眷焉顧懷。痛曷窮已。

祭文[金星慶]

嶺之南。彬彬多文學之士。古稱鄒魯之鄉。而顧余懵陋。殊不知近世有某士爲眞君子。某儒爲吾道人。歲丙辰。申學士自湖南移于忠原。始嘗往候。時余年已五十。而方遂識荆之願。一見傾蓋。歡若平^P生。蓋公實南州之望士也。自幼稟賦純仁。孝友天性。而其所立定脚跟處。實在於吾儒行誼上。於聖賢書。莫不耳順心得。如誦己言。而尤致力於程朱諸書。其學以直內方外。爲本領用功之地。以致知力行。爲終身究竟之法。孜孜不怠。進進不已。則如愚魯鹵蔑劣者。亦何嘗涯涘於其間。而窮格之學。操存之工。宜不在於往哲前賢之下。而近世則無有焉。世之談者。但高公之文章。早擢上第。而未能知公之雅致。不在乎文章科第等事。則烏可謂知公之萬一哉。况公之忠出自孝。平生用力。罔非尊主庇民之工。故佩符之初。仰盡分憂之責。爲政^P一朔。已成朞月之治。及其當賊鋒也。先效管仲三北之情。以保母命。繼圖趙苞敵戰之義。以死國難者。昭昭然日星可照。斷斷乎質神無貳。而擾擾叔世。鮑叔之知心旣罕。程子之公眼又絕。寧不慨然於是乎。雖然。公是達道者。不以困厄怵迫。爲形于色。以樂天知命。爲安於心。蓋性本好靜。且素慎者輪痘。而終不免以是而歸化。聞者莫不巷弔街哭。雖行路。尙且^P淚。矧余於公。有知遇之感。其所敬重而慕嚮之者。有非淺淺相識者比。則聞公之喪。曷不失聲長慟。咎造化而怨鬼神耶。於乎仁天已老。報施茫茫。子平之事。時未斷節。而東湖之夢。^P遽爾告灾。丹筆之伸。尙爾無聞。而孝子之痛。窮宇靡逮。則公雖動忍於生前。亦將於悒於地下矣。於平方其鳴道學而躋升擢也。人爭手額。世皆嚮風。望之若祥麟瑞鳳。悅之如陽春和日。當時責任之重。若天降之。而卒不能大行其志。惟恩譴惴約之中。益奮勵前學。積累飽飫。磨礪沉涵。中晚所就。益高明而愈博厚。尙使假之以年。復遇於世。則經綸更施。黼黻更期。雖或不然。亦將以繼往之業。爲開來之需。一振士風。立幟後學。少塞夫天之降任之意。而仁壽又匱。二不諧一。使諸士無所薰陶。使後學無所標程。遑違一世。滔滔殄瘁。則祚宋天意。^P終如是耶。有疑而無可質之人。有過而無警悟之益。此生於世。益覺孤糶。

[주] 湏: 涓

祭文[鄭之鏞]

昔者吾友申公。與不佞托契深密。相與之誼。無異兄弟。吾友遭時不幸。偏配忠原。壬戌春。歸化于配所。其旅櫬過吾近域。時余丁巨搨在苦塊。無由迎柩而哭之。三年之內。一未得奠酌。以至喪碁已畢。每念平素。恨結心曲。迺者其胤訪余浦上。相對道舊。有淚瀕河。嗟乎吾友。有宏才邃學。又能策名清時。聲望藹蔚。一國大夫士。莫不期以遠到。終使其宏才邃學。未能見試於世。何天之豐其賦畀其施^P也。幸而吾友有丈夫子三人。皆秀而文。或者天意悲吾友之冤而保佑其遺嗣。俾能成就而顯揚之。以繼述吾友之志業也耶。吾之所祝惟此而已。古人雖云宿艸不哭。早晚當哭奠于墓道下。以洩此悲恨。既以是語其胤。又爲短律以歸之。

幽明負友恨崢嶸。今對庭蘭涕自零。宿艸誰云哭不可。擬將雞酒酌英靈。

二恥齋先生文集卷之六

附錄

祭文[許邊]

於乎。公之學。其源蓋自經傳中出來矣。該洽博通。辨之也明。把握得定。守之也約。推而爲文章。則自然辭達而理勝。用而爲經綸。則可以成物而澤民矣。其恢恢之手。試於割雞。而適值不幸。反媒禍階。公之賦於天者何其厚。而厄於世者何其酷也。兵若易集。則賊可抗城可守。公之爲巡遠爲臬卿者。直易易也。而惜乎營關無警。擅發有沮。於斯時也。兵不可猝然集。賊不可徒手抗。姑保親命。繼圖勤王。雖令漢庭老律斷之。不過日觀過知仁而已。P此豈公之責哉。公之謫。凡三徙而至于忠。在公則不幸。而於余則幸矣。得其興起感發之力。而朱書一編。尤賴講教。至於承型範。學得傳受一脈。固前頭事。而雲霧之中。遽失南指。於乎公之臨歿也。自知疾不可爲。從容暇豫。無異平昔。絕筆一章。莫非析理知命之語。而眷余而言。俾加點綴。此可見爲學之定力矣。公歿之後。時時點檢。寄贈遺篇。辭意珍重。筆法適健。不覺涕淚霑襟。於乎粹然之貌。何處更見。溫然之談。何處可聞。學之源絕矣。師之道喪矣。後生迷其方。士林失其依。俛俛斯世。吾道賴誰。千里南天。相紼無期。撫柩大慟。白日無晶。

祭文[許澈]

昔歲己亥。國有慶策多士。當時中選之人多巨擘。先輩論榜中富於文辭。兼之以窮經學潔行義者。獨推申君子一人。不佞竊歎于中曰。人之有文章難。窮經學難。潔行義難。一之猶難。而况兼人之三所難乎。思欲瞻德宇而承警咳。湖之距嶺五百里遠。無由致身於杖履之側。耿耿一念。數十年于茲矣。不幸戊申之變。公佩娥林綬。載下倏發之賊。不暇制抑。而一從緩急。欲效兩全。而爲黨論所嫌。營罷甚急。天日監衷。徒配旋放。沙中之蜃。又從而伺影。此莫非盛名之致忌也。自南海再遷而移于P忠州。忠州卽余土也。因公所不幸。而余可以獲幸於君子矣。始奉清塵。粹於面者。溫雅之氣也。見於言者。恬靜之志也。講論經旨。發揮蘊奧。既驗於嶺表諸君子推重之書。搜刮諸家。文辭滂沛。備載於素行錄。然而後。向之先輩所秤衡文辭之必推申君子者。信乎其有徵矣。得遂摳衣請益之願。諄諄誘掖。縱高堅之難及。疊疊陪談。幸依歸之有所矣。雖以不佞不敏。而隨指南於迷塗。醒昏夢於醉界矣。天不憖遺。公何厭世之混濁耶。死生寄歸之理。公所無憾。而不佞無窮之恨。容有既乎。俛俛斯世。誰與之從。攷德之無所矣。承誨之無地矣。此所以P畫焉痛怵然傷不止也。

祭文[柳稹, 柳和]

先生易簣之後。門生等之羹牆寓慕。爲如何哉。執經受教之恩。銘肺難忘。寸寸趨進。擬覲髣髴。而巋然古宅。只存遺胤。相對道舊。携手展墓。未知先生之靈知耶。先生之柩安耶。噫先生之道。何時明也。先生之冤。何時伸也。歲在癸亥三月二十日疏決時。大朝特許全放。又於庚午東宮再請復職。軋心洞鑿。有是漸矣。若是因此昭雪。極加褒崇。則先生之冤。庶可紓矣。而此則在天之事。非人力之所能也。

。惟人力所能者。文集刊行。墓碑豎立事^P耳。文集刊行。則先生之道。載方策而復明。墓碑豎立。則先生之德。與貞珉而不泯。民彝所同。必有觀感興起者。而目今吾黨奄奄。士趨擾擾。貨物何由而辦出。梓木誰爲之經畫也。嗚呼日月之光。必將依舊而重明。義理之感。亦應悠久而益深。所以表先生之緒而闡先生之幽者。豈無其時也哉。欲報師德。視天罔極。折旋進退。君德宇之儼臨。陟降秋天。如春陽之薰襲。無涯之感。莫逮之思。

祭文[伯兄]

嗟哉景楷。嗟哉景楷。君將捨我而不少留耶。君之愛我。出自天性。凡厥南遷北徙。會合有時。猶以別^P多會少。恒切看雲眠日之思。或發之詩句之間。或形諸書牘之上者。積成卷軸。况此大歸之日。必眷我采深。愛我愈篤。徘徊顧戀。不忍捨去。而祇化兒操縱其來去。而無以容吾弟天性孝友之篤。天固不仁矣。鬼亦孔惡矣。吾安得不頓地呼天。以至怨鬼神咎造化也耶。嗟嗟景楷。奈何奈何。於乎痛哉。粵在庚午。先君子棄世。時則余及晬而君在姪矣。母氏聖善。忍痛鞠育。俾免水火而成立之。君則體顏曾之孝。志洛閩之學。餘力爲文。以至巍捷甲科。昔之與先君子分厚者。咸曰申某能顯其親矣。母氏亦一解愁顏。少慰崩城之痛。惟厥報生育之恩。^P盡幽顯之孝。孰有大於此者乎。我之無似。亦喜有賢弟。冀令聞不隕樹立宏深矣。夫何一不幸而出宰之初。賊變猝迫。雖效全親之孝。而未免失守之責。二不幸而人言罔極。躡紀竄謫。母氏康疆。遽爾辭世。而君未能在側終孝。三不幸而奄邁毒疾。天不顧佑吾弟。經世華國之手。繼往開來之學。卒未免浸沒於楓林楚水之中。天之報施吾弟。若是其舛齟。抑獨何哉。嗟乎嗟乎。尙何言哉。人之所貴兄弟者。患難相救。疾病相扶。死生相訣。而我之於君。一不如人。辛亥檻車之時。以老親寬慰將護之無人。未能同往訴冤於輦轂之下。逮夫邁罹毒^P疾。未能馳往而救療之。終焉凶音來至。又未能奔走而憑尸號痛焉。於乎人之種德者。有不能食報於身。則必能豐之於後。而君之一女變婉者。纔笄哭夫。繼捐性命。卽今三子。靡所依賴。韓子所謂天不可測而理不可知者。誠是先獻語也。

祭文[從弟禮模]

粵昔堂兄之方娠而失怙也。孰不曰天禍斯極。而及其志聖學而造中正之域。對庭策而鳴道德之實。則人莫不想望風采。艷慕德義。咸曰天之降斯人。豈偶然哉。必也達而行道。則任伊傅之責。亦或窮而在下。紹洛閩之學云爾。而堂兄慮世路之險^P巖。恐窞海之危津。雖菽水屢空。而甘忍寒苦。不求榮進。不幸爲親纒屈。狼狽中途。上不見其志之大行。下不蒙其澤之普施。是則關時運係邦厄。其於堂兄何哉。幸而聖上有鑒。廷臣無偏。察管情而戒苞莖。徒薄罰而俄全釋。夫何繡衣之誣。又從而再發。遠投荒裔。此莫非盛名之致忌也。自古君子小人之不能相容。例皆如此。又何必深爲堂兄恨也。迺自南海。始移于錦陽。自錦陽而又付處忠原。十年之憔悴已甚。一竿之放赦猶遲。切切思親之懷。耿耿憂國之心。或寓於詩句之間。或形諸書牘之上者。益勤懇不置矣。夫何征鞍未御。連哭萱^P荊。天之不祿我堂兄之德。而毒降奇異之禍者。乃爾甚耶。猶可恃者。堂兄卓然有浩大之養。毅然無疾病之侵。將來壽限之靈長。推此可卜矣。不意壬夏以知命之年。遽爾觀化於忠江之北。此何事也。此何變也。於乎惟我堂兄。繼

開之任。致君之業。澤民之功。斂焉而莫之施。內而門戶之托永替。外而人民之望日孤。以至師道而誰使之傳。後生而誰使之進。斯文而誰使之任。志士增殄瘁之感。指蒼天而辨詰。古所云龍亡虺逝。山哀澤愁者。正爲今日道也。嗟乎堂兄易簣之後。自上特放釋之命。爰及於癸亥春疏決之時。此與宋理宗追復西^P山之事。畧爲相倣。惜其不少延而蒙此典。使地上後死者。采切莫追之感。此可痛也。竊惟俯燭如此。其追崇伸理之政。必將權輿於此。靈其知耶。嗚呼寥落人間。萬事如夢。但見虛幌掩翳。月吊風穿而已。

祭文[再從弟義模]

惟公重厚其德。溫恭之容。孝友稟於天資。文章得之經學。妙齡騫翥。夙蜚英於登龍。中歲藏名。暫屈跡於五馬。妖氛搶攘。忍說戊申之年。恩譴荐仍。遂有南北之竄。盖其時運之不幸。是以命道之多舛。太行孤雲。幾灑思親之淚。夜卽秋月。徒勤戀^P國之忱。寂彩雁於雲間。誰憐惠飯之久喫。賦鵬鳥於斜日。堪悲賈生之不還。奚但親戚之含哀。抑亦遠近之相吊。新阡突兀。已矣雅操清標。故宅荒涼。惟有老兄弱息。於乎一生承誨。尙冀疑難之必質。十載阻濶。豈意幽明之遽分。臨佳城而遐思。恍若覲德。嗟九原之難作。無處承顏。拙語蕪詞。豈余悲之可洩。瓣香單酌。惟尊靈之庶格。

祭文[再從叔德潛]

君自兒時。異凡超衆。孝親敬長。有順無疆。文行德業。經傳自知。孝宜移忠。學可扶時。青年折桂。在君分內。望重名盛。難進易退。百里有命。宣由特除。^P出爲世用。非君本意。偏慈榮養。人勸屈志。莅任纔月。逢時不幸。有賊猝迫。處變倉卒。內無謀士。外有敵人。而况老母。無人將全。背負謹避。夷吾其效。營罷孔刻。報國無地。天恩罔極。徒流卽放。自是以還。訟愆未遑。齋名二恥。懋我初服。奈彼簧舌。終更吹毒。絕島海外。有嚴其程。中移錦陽。後付忠江。覆盆日照。庶幾不邈。惟我宗黨。咸願特釋。田園歸來。獎進後學。天不助佑。命何崎嶇。痛哉親喪。慘矣胖憂。在謫哀苦。千古無儔。胡然忌疾。更纏厥躬。初聞患報。只祝神明。後承凶音。理不可測。天耶命耶。胡至此極。靜言思之。我心長慟。聞君之死。孰不悲^P痛。可惜其學。可惜其行。回也之短。冉子之命。然猶少慰。庭蘭有三。家傳學行。庶復無忝。君我所望。不過此哉。爰保性命。爰持門戶。言出衷曲。君其知否。

祭文[再從弟器模]

猗歟夫公。天賦其頤。毓秀之氣。挺特之姿。在腹而孤。生乏嚴教。素性好學。豈待師導。涉獵經傳。若決江河。纔於韶齠。文辭滂沛。及厥稍長。超然自得。潛心默會。靜裡紬繹。志學其年。趨向已正。萱堂亞庭。昏定晨省。廟宇墳塋。瞻掃拜謁。日勤其誠。不廢風雪。間以餘力。強爲時文。至若決科。宣爲榮親。無意仕進。不召不起。微官薄祿。暫隨旋棄。艸廬林下。若^P將終身。明窓斐几。整襟養真。四子諸書。時乎溫理。周程遺訓。日以玩味。榮顯以來。益篤其志。聲聞藉蔚。舉世聳服。譽望有洽。戲魔伺隙。赤羔歲暮。娥林出宰。毛檄之奉。以母氏在。豈料一官。反爲禍根。黃猿春末。凶醜起鄰

。蜚書不日。長驅席捲。雖有智謀。何遑禦諸。公於是歲。志惟死綏。奈彼鶴髮。無人扶持。苞義雖重。徐情孔惻。傷孝成節。往哲有鉞。侵晨背負。星月照心。豈敢苟活。將有斐忱。纔保母命。繼圖王事。旋赴賊藪。招募人士。倘無營戲。成功可期。不幸啓罷。用武無地。情陳金吾。王鑒如燭。薄配旋放。感荷洪造。終賜嚴譴。此曷網罟。羣^P邪蔽聰。偏黨仇賢。天門九重。孤忠誰伸。人皆稱冤。公獨無尤。公視夷然。順受遠投。涪江行色。復見瀛洲。程敬雖篤。屈騷寧休。離親去國。忠孝俱阻。是庸自訟。二恥爲號。至誠所格。暫回日光。中移錦陽。晚付藥城。累蒙微典。尚靳大霽。人誰援引。天地亦昧。親喪僮痛。在遠荐值。以凡人處。殆難堪理。然惟我公。處變以常。素志確然。髭髮益莊。衛學初心。弗以窮忽。適追古聖。絕遠今俗。到底唱徒。勤諭入德。歸來叔季。人才苦乏。傳鉢雖寡。尊師揔切。斯文擬托。疇不歸讓。宗黨所祝。金雞速降。言歸舊鄉。載怡親戚。暇日獎掖。重輝州塾。嗟哉道窮。羊腸之^P險。騏驥終繼。井石愈嶮。生之不辰。胡至此哉。去年是月。患報輒來。心情震蕩。不能自全。惟祈神明。速賜痊安。尚擬少間。疾趁承顏。未踰旬。遽承凶音。時耶命耶。天實難謀。初何豐斯。後何嗇止。冥冥一理。不可詰止。哲人其萎。孰不涕悲。嗟余蒙駮。尤無所仰。鞭策久離。誨音日喪。金石之響。粹盎之容。於何聽聞。於何拜承。前冬孟月。旅櫬載旋。始於其時。哭往筵前。有悲埴臆。有淚徹泉。

行狀[李敦禹]

粵我英宗大王之四年戊申春。二恥齋先生鵝洲申公。以^P事責嶺之赤羅縣。未一暮。朝廷原而有之。後四年辛亥。黨人又羅織之。責湖南之興陽縣。凡三遷而首尾七年。在湖西之忠原。卒以喪歸于鄉。明年癸亥。有全釋之命。後七年庚午五月。莊獻世子原其情請復官。至九月又如之。竟未施行。後百十四年甲子。卽我新聖御極之元年也。至七月。穰虹流大慶。咸雪域中之幽冤。特復公知府舊啣。公會孫冤壁。以是歲十月之晦。邀多士。虔告于廟。題公之主。走書於敦禹曰。先祖抱冤百年。今幸賴洪造。復見天日。願有以狀之。敦禹辭以人輕筆萎。恐不敢當。於是乎其^P請愈勤。則拊念世契。有不可終辭者。乃撰次之。謹按公諱正模。字景楷。號二恥齋。姓申氏。系出鵝洲。上祖諱祐。仕高麗。官按廉使。父版圖判書諱允濡卒。廬墓泣血。墓前有雙竹抽生之異。以孝感聞于朝。載三綱行實。仍旋閩。享涑水院。至諱元祿。號悔堂。又以孝載三綱續錄。贈戶曹參議。享藏待院。子伋以孝贈左承旨。子適道。進士。以丁丙扈從勳。除郵丞。是爲公高祖。號虎溪。曾祖諱塚。進士。以六行累入薦剡。號忍齋。兩世俱享丹邱院。祖諱文錫。考諱德溢。妣宣城李氏。持平珙之曾孫。處士星耆女。以明陵辛未正月四日。生公於安^P東豐山新池洞外第。時先公下世纔七朔。公生而天性孝。四歲。聞他兒呼父。問于母夫人曰。人皆呼父。我誰呼爲父因泣。又謂母夫人曰。願暫啓父櫬。一見父顏。其孺慕。自幼已如此。天姿穎悟。五歲。聞人讀書聲。輒傳誦。慈夫人教以六甲數遍。輒解之。六歲。仲父公授古詩一冊。不數日。能盡誦。欲并學他書。仲父慮其早學致傷。使止之。泣不聽。七歲。隨諸老少上山觀花。同隊皆摘藥食。公獨不食。父老問其故。曰。未嘗不敢食。自是。每早起必盥洗。見人不盥。則亦必勸之使盥。八歲。受十九史于仲父公。每朔畢一冊。間受孝經小學。夙夜成誦。九歲。受通鑑。初^P受潘陽節總論。日未終。誦不錯一字。凡歷代治亂。人物賢否。無不通曉。外從祖孫公汝斗。適來見歎曰。有子如此。其父不亡。冬。隨母夫人往外第。述作奇警。李孤山先生。稱歎不已。比古魏舒衛玠。每出外。遇魚果。必先供于王母夫人及母夫人。每歲元朝。卽往省先公墓。不以風雪而或止。辛巳。受四書過一冊。文義已

自解釋通曉。對案危坐誦讀。至忘寢食。壬午。以未承父顏。爲至痛。告母夫人欲行追服之制。諸父兄據禮以止之。亦不行。猶食素三月。心喪三年。端陽節。往外第。外門諸族內外老少。咸集觀鞦韆戲。伯氏公要暫往同觀。公止之曰。雖外^P氏。內外交集。不可往。流頭日沐浴。亦必於無人處暫浴。其操履已如此。乙酉。赴義興鄉解。兩日製作。文詞滔滔。一筆篇就。見者皆稱歎。性不好遊嬉。每晨起拜廟。溫清于重闈。務悅親心。對諸父及尊丈。視常下帶溫恭遜悌。丁亥春。會雲嵐寺資蔭。會中拈韻。他作皆卽景探趣。公所作。有因物玩理之意。諸父老咸稱之。九月。作自叙以示意。其畧曰。我朝諸賢接武。學術大明。而不幸百年之間。踳駁特甚。攻詞章者。尋摘而已。專記誦者。口耳而已。若余者。不及於世儒又遠矣。其心則欲師聖而友賢。生苦晚而地又偏。恨不得親拜先聖先師。而其道尙留^P於方策。人能弘之道在茲矣。蓋志學根基。已始於此時矣。又作敬說。戊子元朝。作室慾存心二箴。夏。遊鄉序。不惟著述。必居人上。言語動作。雖老師宿儒。無不敬服。邑宰宋公堯佐稱之曰。小學模樣。己丑。季父處士公下世。王母夫人。欲以公爲後。時未有室。留待長成。母夫人從其意。庚寅。王母孫夫人下世。治喪凡節。一依家禮。辛卯。讀近思錄。日事紬繹。壬辰抄朱子書。爲看閱計。癸亥。聘夫人安氏。洪上舍相民一見公。以書賀聘公曰。申君真無雙士。緣何擇壻乃爾。甲午五月。安氏未見廟而卒。冬。往見息山李公萬敷。乙未春。作定志說。蓋是年二月。^P定式科於慶山縣。試邑痘警。有無互傳。未痘人多赴去。公堅坐作是說。夏。拜書於息山。論爲學節度。且有求教之意。辭不敢當。丙申正月。再聘東萊鄭氏。春。作有所懷長篇詩。有思則得之不思失。堯舜桀跖於是分之句。十一月赴丙別科。公不喜應舉。而有親命。且族叔進士公德涵及進士公濂。要與同赴。公俛從之。行至烏嶺。見路傍有皮帑物。若不見而行。未一里。有急來者。問之。乃遺金者也。公指示其處。其人感之。欲進酒杯。且助行費。俱不受。丁酉春。作遣懷詩一篇。末句云。擬將林泉分我食。求作清高物外仙。又次退陶集古詩韻。有從此萱堂有^P嘗食。庶得燕坐紬遺經之句。又曰。但使年豐衣食足。豈願君門影長纓。其澹然無意於名利。可知矣。戊戌八月。入鄉校。參釋菜禮。時李提學眞望爲邑宰。見諸生問才行兼備之人。獻官以下皆以公對。備陳公居家行誼及問學工程。李公嘖嘖歎賞。己亥春。赴增廣鄉試發解。東堂試。以對策居魁。李侯躬訪閱試券。歎曰。非場屋間口氣。秋赴省試。擢大科。又居魁。登第之日。己以謙退自持。出入步趨。必後於人。諸同年謂曰。壯元卽爲殿。及殿試表題。舉皆借手。公曰。此亦欺君。遂自製以進。李侯又歎服。庚子六月。肅宗昇遐。九月。分隸槐院。十月。入都^P行免新禮。是行歷訪清臺權公相一。到京諸友。以書相告。除夜役先進諸公。皆同心慕悅。菊圃姜公樸曰。景楷腳踏實地人也。因贈一詩曰。玉人閑步到余居。醇酒熏熏一揖餘。虛閣夜闌星宿動。從今可省十年書。選補副正字。趙豐原顯命。以同庚同年。又同隸本院。多有資益。又以假史直堂后。借朱書及名臣錄於李員外重煥。日與同僚講磨。十一月。乞暇歸覲。歷訪申徵士弼貞。以祿米薦於家廟。辛丑正月。被槐院催促。不赴。伯氏以家貧親老。勸令赴曰。退陶先生參下時。亦留連本院。公曰。今之時與古時不同。且爲親赴舉。以至叨竊。已盡在我^P之道。世不我用。亦天也。何可強爲逐逐於仕宦場也。以心近性理書。朱書節要。大學衍義等書。日溫理體認。又逐日記陰晴寒暑於曆書。又記某日覩得某義。某日究得某理。以驗體行之實。三月答慵窩柳公升鉉書。時柳公筮仕在京。公遺書言世路之艱險。甚於羊腸。惟當著力於謹慎二字。則於操身奉公。必有餘裕云。壬寅。又被槐院催促。又不赴。春。密菴李先生來冰溪。貽書要見。公卽往候。又與密菴書。畧曰。前書所云持敬以存其心。講學以致其知。此千聖相傳之正法。如某倥侗。亦自十五六時。已知其然。而到今年過三十。猶存得心未定。見^P得理未精。每望門下。不啻飢渴之如飲食。而迄未趨進。穩討爲人之策云。十月。遊內延。癸卯四月。遊仙遊洞。十一月。又被槐院促教入城。聞痘氣間熾。卽還鄉。甲辰正月。赴道南講會。時清臺權公爲洞主。移書約會。與李息山講

近思錄。有酬唱諸什。六月。入持平末擬。又入正言首擬。七月。同伯兄遊周房。有遊山錄。八月。景宗昇遐。入縣參哭斑。後遇忌辰。必行素。十月。又與密菴書。十一月。除司甕主簿不赴。乙巳二月。答密菴書。論戒懼兼動靜說。與玉川趙公德鄰書。其畧曰。聞執事上十條疏。私竊以爲必有招拳惹踢之變。曾未幾何。聞有絕島^P行。某於此行。不以爲吊而反以爲賀云。丙午正月。入說書薦剡。三月。約密菴與伯氏公及族叔濂。往遊安東龜潭書堂。與近地士友。沿洄水石間。有題詠而歸。七月。又答密菴書。辨戒懼兼動靜說。丁未二月。再遊龜潭。八月。除兵曹佐郎赴京。以未及陵行遞。卽還鄉。又除江原都事。兵曹正郎。俱不赴。十二月。除居昌府使。公爲便養。發肅行。戊申正月。謝恩遊碧波亭。伏次肅宗御題詩四韻。是月到任所。二月奉板輿。爲治以程伯子視民如傷四字爲準則。又以正風教興學校。正名分節財用等事。首揭十條于官門。諭邑中諸生以禮^P義相先之道。三月己巳。聞清州賊報。庚午賊警漸騷。而監兵。鎮三營無發關戒嚴之令。公憂之。欲報營告變。而吏校皆言不可以道聽遽報。止之。惟待上司發關。而寂然無聞。有人歷傳賊書二度。一則檄書。一則簡札。而乃安陰賊酋熊輔希亮等所送也。辭旨凶慘絕悖。公自不覺膽掉髮豎。促令捉入傳書者。已逃去矣。卽齎其書。馳報三營。急招吏胥及軍校。使徵發軍丁。皆言上司關前。不可擅發。獨首吏慎克終以爲賊兵壓境。勢迫呼吸。何待上司之令。公乃以火速徵軍事。布告吏校。則乃相繼逃匿。一瞬之頃。邑府空虛。賊兵自安陰。席捲長驅。時^P公母夫人嬰疾在衙。公念忠孝本無二致。而緩急亦自有間。思欲先移病親於淨地。繼爲收拾散亡。以圖後效。乃背負。從間道而出。隨行者只有奴令數輩而已。遂留接於伽倻峽裏。急還到府。近樸巖村前。村民老少。出迎遮道曰。賊購方急。願明府少遲其行。浪死無益。邑民賴明府下車。蘓枯之澤。浹於肌髓。留此徵發。則庶可以收拾散卒。振作聲勢矣。各皆具酒饌以進。公皆不受。民皆益服。誠心防備。而賊書報營者。尙無回報。又搆狀使家僮赴愬。又急書于知禮縣星州牧。諭以同事之意。時禮倅李世欽領軍赴。星牧李普嫻。結陣干加詐倉故也。^P於是發文于本邑。民人等數百人丁。感應而集。軍容稍成。方赴賊陣。而方伯報罷至。蓋是時。方伯亦深於黨論者。欲因此擠陷。賊書之報。只以到付二字。緩緩題送。又不許發軍固守。不數日。乃罷官奪符。公以離官全母。爲自咎。四月癸未。發京行。戊戌待罪于金吾門外。洪員外重寅。李員外時沆。各來致慰。助以使喚。己亥對理。安陰宰吳遂郁。陝川宰李廷弼。三嘉宰李廷秀。相繼就囚。己酉。進原情。五月辛酉上讞。下議處傳旨。丁卯。該府以徒三年照律。禁堂以不可使離親遠謫。定配所於軍威。己卯到配所。吟一絕曰。白雲阻咫尺。丹極夢嵯峨。^P忠孝平生志。其如兩缺何。九月。奉板輿于峩川里。蓋居謫奉親。公所不安。而邑宰及監司朴公師洙。訪見而許之故也。邑大夫及邑中知舊。助以供奉之資。邑中學子。亦多有負笈請業者。己酉五月。自上特命放釋。乃絜眷歸。十一月。作自訟箴。庚戌六月。王大妣魚氏昇遐。哭密菴。有哀辭。十一月。答趙巡相顯命書。辛亥正月壬辰。繡衣李滄以戊申之事。搆其無據之說。誣啓於朝。證以其時首吏之已死者。又有拿命。二月。進供辭。又與居昌人對質於禁庭。事皆歸虛。滄黨猶欲甘心。竟遠謫湖南興陽縣。四月。至配所。縣僻在海隅。而公至請^P業者甚衆。號公爲白雲先生。或天放先生。五月。和伯氏四韻及古詩長篇。有自甘承玦荐。敢恨賜環遲之句。讀啓蒙有一絕。六月兩日親忌。皆曉起盥櫛。東向拜跪。以盡優然之誠。自號二恥齋。蓋以離親去國。忠孝俱缺。爲二恥。有齋銘。九月。壽母生朝。次朱先生壽母詩四絕。壬子元朝。作自新箴。編素行錄。冬避痘于石門菴。癸丑。移白雲菴。乙卯二月。以元子定號之慶。量移錦山。五月。乞暇歸覲。留數日還配所。十二月。又乞暇過歲。還配。丙辰二月。子邦烈欲入京訟冤。公以爲當恭俟處分。何敢奔走稱冤。禁遏之。三月。以元子冊封之慶。^P又付處忠州。四月。讀栗谷四七往復。有感書四韻。又題四韻於岳武穆傳後。五月。讀朱子遠遊詩書一律。丁巳六月。又乞暇過親忌。戊午二月。序四書撮要圖說。八月。乞暇歸省。九月。移寓龍安。時我高王

考大山府君。知連原郵事。捐銅買米。資累糧。又欲源源相接。請移近郵。公從之。己未三月。丁母夫人憂。四月。奔喪。八月。還配所。十月。又歸葬卽還。庚申元日。俱饌設位。祭告母夫人。四月。閤夫人鄭氏訃至。五月。乞暇參退行練祥。八月。又歸葬鄭氏。辛酉三月。先妣再暮日。以痘梗未克歸參。於累所設饌哭祭。伯子來觀。復欲入京訴冤。公又止之。六月。書古詩。以寓喪餘之懷。壬戌三月己亥。午後氣不平。庚子漸飮。辛酉痘粒見。壬寅夜口呼古詩一篇。庚戌謝諸友。壬子取水楊湯盥洗。以是日辰時考終於謫舍。享年五十二。諸生齊會治喪。九月。子邦烈呈書于錦嶺兩營。錦伯李公宗城，嶺伯金公尙星。皆優給擔丁及喪具。以十月丙辰返槨。明年癸亥後四月壬申。葬于縣南五土山璋龜峯向丙之原。至是。又承全釋之命。蓋三月二十一日疏決時。自上特教放釋也。配順興安氏。文懿公后。處士履順女。再配東萊鄭氏。贈判書龜齡后。處士之鈺女。有三男一女。男長邦烈。次光烈，弘烈。女適趙居正。邦烈一男四女。男瑞教。四女金學東，南時潤，李星斗，南憲龜。光烈一男成教。二女鄭秀噉，南朝澈。弘烈男女某某。於乎。公以超拔穎敏之姿。生十世文獻之庭。肇自上學。已至此學爲己任。劬書耽讀。須臾不息。收斂身心。不教自得。嘗曰今人之不窮理不踐實。而徒取先輩文字以美觀聽者。皆是安排之意。學貴在不言而自得。若有安排底心。則非自得也。是以其爲學也。以平易爲主。其行己也。以庸常爲則。無甚高遠特異之事。而自有人不可及之妙。爲文章。惟取理順。不務剗刻。而自然簡潔嫺麗。省試坼號。考官見公對策。相對稱賞曰。譬如大河安流平地。波浪因風自湧。天性至孝。自受小學以後。日晨起省親。怡愉如也。必令親多食無飢。重衣無寒。謫居時。凡遇先忌。必致敬致齊。或爲位祭告。以盡如在之誠。每有佳味珍饌。必藏而待便。人皆感化。多有不遠千里而躬自擔致者。早登名道。時望方隆。則每憂名實之難副。務自韜晦。有除多不赴。所至從遊甚衆。而每寒暄之外。無閑雜說話。只言古今懿蹟義理冝繁。至於時政得失人之臧否。則不一言及之。雖退處邱樊。澹然若無意於世。而國有善政。則喜形于色。歲值饑饉。則憂形于外。聞人之善。必使之擴充。見人之過。必使之改革。律己嚴整。故興陽之蕩女歸潔。孝愛爲則。故錦山之悖子終孝。忠原豪族之病狂者。亦能執禮而知畏。凡有請業。必隨其高下而諄諄誨誘。思盡其成物之道。前後三遷。所至學子全集。而皆誠心教導。間多有興起者。人或著書立言以垂來學。則曰古聖賢謨訓。布在方策。何必強立意見。別建論述也。蓋出於謙挹不自居之意。而所著詩若文。亦皆可傳。所編素行錄。出於經歷艱險之餘。而先人深加歎賞。欲其廣布。則其傳於世。又無疑也。若公者。可謂有體有用之學矣。是以景宗初。詔舉賢良文學之士。李公眞望以公對曰。斯人也。有孝行學術。可知爲有道人也。及夫英廟嗣位。又應旨薦剡。臺諫春坊。次第擬望。公卿輔弼。想望風采。而皆憂其貧。無以爲養。於是乎遂有居昌之命。而不幸莅任屬耳。潢醜竊發。遂使聖朝便養之恩。反爲我公載禍之階。於乎唏矣。方其奉檄南出。志切君民。則四字之準則。十條之揭目。力學學禮之訓。孝弟敦端之教。庶可見治績之自著。而國運中否。強寇壓境。則君親一體。緩急殊塗。此公所以斟酌乎情義之間。處得乎權經之中者也。獨惜乎營司之所以處之者。始也慢緩。終焉刻覈。使我公不能效國耳之初心。則黨禍之錮人也。有如是矣。高承宣裕曰。方其營關寂寂。暫竊負避席口。孝也智也。不終日而旋入招諭。得數百人丁。嚼齒爲赴賊之計。義也忠也。營司之歸咎私罷。俾不得容手於爲國除兇之赤心。馴致再搆再黜。而等視順受。坦然無楚囚湘累之悲。其素行定力。眞可師法。韓知郡光照曰。申公一身四體。無非德學。眞可師而不可友也。不幸盛名致忌云。此數君子者。并公之世。知公之深。而其言如此。則可以斷公之終始矣。癸亥後八年庚午。有溫泉行幸後赦慶。秋又有元孫誕慶。先世子兩陳請復官。而未承俞音。惜其歲月滋荒。子孫單弱。抱此睿聖邸下鑑燭之冤。戴盆蔽屋。未見天日者。且百有餘年矣。今幸聖明嗣服。繼述志事。不煩遺孫更籲。而有此昭天漏泉之恩。公之道其將自此明於世耶。不揆僭佞。謹就公年譜及言行諸條。畧加彙括。以塞慈孫

之請。且以俟後來立言君子之有所裁擇云爾。

聖上元年甲子長至節。通訓大夫前行弘文館副校理。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韓山李敦禹謹狀。

[주] 被：被

墓碣銘 并序 [張錫龍]

世之所極難者忠孝也。莫盛者學問也。苟有以兼^P行之者。朱夫子所謂巍乎凜然其遺事也。光明正大其君子也。近古二恥齋申公。卽其人也。先生諱正模。字景楷。號二恥齋。姓申氏。系出鵝洲。上祖諱祐。仕高麗。官按廉使。父版圖判書諱允濡卒。廬墓泣血。有雙竹抽生之異。以孝感聞于朝。載三綱行實。仍旋閩。享涑水院。至諱元祿。號悔堂。又以孝載三綱續錄。享藏待院。子伋。又以孝贈左承旨。子適道。進士。以丁丙扈從功。除郵丞。是爲公高祖。贈吏議。享丹邱院。曾祖諱塚。以六行。累入薦剡。享丹邱院。祖諱文錫。考諱德溢。妣宣城李氏。持平珙之曾孫。處士星耆之女。以^P明陵辛未正月四日。生公於安東豐山新池洞祝館。時先公下世纔七朔矣。公生有至性。四歲聞他兒呼父。問于母夫人曰。人皆呼父。我誰呼爲父。又請暫啓父櫬。一見父顏後。欲行追服之制。諸父老據止之。十歲以前。能知事親敬長之道。晨起拜廟。溫清于重幃。務悅親心。作自叙以示意。又作敬說。窒慾。存心二箴。讀近思錄。日事紬繹。抄朱書。爲看閱計。庚寅。遭王母孫夫人下世。治喪凡節。一依家禮。癸巳。聘夫人安氏。甲午五月。安氏未見廟而卒。乙未作定志說。夏。拜書息山李公萬敷。論爲學節次。丙申五月。再聘夫人鄭氏。丁酉春。作遺懷詩。末句^P云擬將林泉分我食。永作清高物外仙。其澹然無意於名利可知也。李提學眞望爲邑宰。問才行兼備之人獻官以下。皆以公對。己亥春。赴增廣東堂會試。以對策居魁。庚子六月。肅宗昇遐。分肄槐院。十月入都。菊圃姜公樸來賀曰。景楷。腳踏實地人也。選副正字。趙豐原顯命。以同庚同年。又同肄本院。多有資益。十一月。乞暇歸覲。以心近性理朱書節要大學衍義。日爲體認。三月。答慵窩柳公升鉉書。密菴李公栽來冰溪。貽書要見。公卽往候。甲辰。赴道南講會。與清臺權公相一。李息山諸公。講近思錄。六月。入持平未擬。又入正^P言首擬。八月。景宗昇遐。參哭斑。丁巳。答密菴論戒懼兼動靜說。丙午正月。入說書薦。八月。赴京。遞卽還。又除江原都事。兵曹正郎。俱不赴。丁未十二月。除居昌。公爲便養。發肅行。戊申正月。謝恩到任所。二月。奉板輿。爲治。以程伯子視民如傷四字。爲準則。三月己巳。聞清州賊報。庚午。賊警漸騷。而監兵鎮三營。無發關戒嚴之令。公憂之。欲報營。吏校皆言不可以道聽遽報。惟待上司發關。而有人歷傳賊書。而乃安陰賊酋熊輔希亮等所送也。辭旨絕悖。公不覺膽掉髮豎。促令捉入。則已逃矣。公卽齎其書。馳報^P三營。時母夫人嬰疾在衙。公念忠孝。本無二致。而緩急亦自有間。故乃陪出。暫接於倂峽中。急還府。過樸巖村。民遮道曰。賊購急。願明府少遲其行。皆一心防備。而報營回題。尙寂然。又構狀。急送家僮于上司。又急書於知禮星州。諭以合力討賊。邑民散而復聚。軍容稍成。方赴賊陣。而方伯罷報至。蓋方伯深於黨論。因此擠陷。只以到付二字題送。又不許發軍。固守。公以離官全母爲咎。待罪金吾。以徒三年照律。而判堂以不可離親遠謫。定配於軍威。到配所。吟一絕曰。白雲阻咫尺。丹極夢峩峩。忠孝平生志。其如兩缺何。己酉。自上特命放釋。^P作自訟箴。辛亥正月。繡衣李滄。以戊申事構誣啓。竟謫湖南興陽縣。僻在海隅。聞公至。請學者衆。自號二恥齋。蓋離親去國。忠孝俱缺爲二恥。有齋銘。乙卯。以元子定號慶。量移錦山。三月。以元子冊封慶。付處忠州。戊午。序四書撮要圖說

。己未三月。丁母夫人憂。四月。奔喪。八月。還配所。庚申四月。夫人鄭氏訃至。八月。又歸葬。卽還配所。壬戌三月己亥。氣不平。庚子。漸飭。辛丑。痘粒見。壬寅夜口呼古詩一篇。庚戌。謝諸友。壬子。考終於謫所。享年五十二。十月。返櫬。明年癸亥四月壬申。葬于縣南五土山璋龜峰向丙之原。至是承全釋之命^P矣。嗚呼。公以棟樑之材。而不遇盤錯。瑚璉之器。而終處坎屯。惜乎。未試其廊廟籌謀。筮簣黼黻之治。而生平著述。無非古聖相傳心法。最中敬說，窒慾存心二箴，素行錄，戒懼兼動靜說，四書撮要，定志說。前所稱學問中事也。賊警漸騷。先離病親。急還徵軍。書報上司。爲國效命。前所稱忠孝一般也。前後三遷。所至學者全集。而皆誠心教導。常曰。聖賢謨訓。布在方冊。何必強立己見。別建論述也。蓋出於謙挹不自居之意。而所著詩若文。其傳於世無疑也。配順興安氏。文懿公後。處士履順之女。再配東萊鄭氏。贈判書龜齡後。處士之弋之女。有^P三男一女。男長邦烈。次光烈，弘烈。女適趙居正。邦烈一男瑞教。四女金學東，南時潤，李星斗，南憲龜。光烈一男成教。二女鄭秀噉，南朝澈。弘烈男某。今來請銘者。五代孫相憲也。不可以老洫辭。銘曰。

爲忠爲孝。本無二致。緩急小間。學問推理。臨亂赴陣。罷官奪符。黨裕孔慘。再構投裔。十年賦鵬。一遲唱雞。西神作豎。南音永闕。士哭樑摧。野悲山頹。甲子熙運。復官告廟。屹彼龜嶺。有儼四尺。銘焉不朽。過者必式。戊戌八月上澣。正憲大夫。原任工曹判書。知義禁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後學玉山張錫龍。謹撰。

告由文 甲子九月九日 [從後孫錫祐]

恭惟府君。遭世不幸。入對名策。出宰榮養。兇鋒猝至。衙屬盡空。禍迫慈闈。機遠王城。殉國非難。托親無奈。一從緩急。兩全忠孝。白日在上。青天臨下。角彼繡帟。成是錦貝。事過四載。冤結百年。蹇滯中途。觀化幽泉。殘孫單子。積鬱未伸。逮我聖明。特施宥典。寒谷春風。覆盆太陽。幽冤已滌。復職申命。趨受前牒。用遵象生。茲因令節。謹告虔告。

告由文 十月三十日 [李敦禹 代本孫作]

顯允我祖。忠孝邃學。家傳悔帟。師友密息。爰自弱齡。已豎基脚。立志居敬。存心窒慾。有說有箴。可師^P可讀。以之爲學。禮擬追服。以之爲忠。不欺儷六。厚積博發。高科乃擢。進退邇英。望實隆洽。春坊諫院。次第敷歷。榮進非心。恒懷邱壑。林園日長。益務究蹟。憂違賀玉。戒懼詢密。逮著維春。奉檄南出。十條揭目。四字準則。崇極而圯。潢醜構孽。急齎凶檄。赴愬營闈。衙屬疑難。兵莫擅發。公私熏灼。如焚如烈。言念守臣。義當殉國。平生爲學。綽有覩得。床有老母。西暉奈迫。恩非掩義。時或先急。今其兩全。在吾誠力。巡守若失。臬劄曷懼。遂竊負去。安于椰峽。歸視其城。賊勢充斥。昌人有言。明府莅職。民皆息肩。徵不及骨。昌人有言。聖主明哲。哀彼嘯聚。不^P久勦絕。宜加自愛。寧入虎穴。釘釘相迎。共守壇域。乃復愬營。營聽愈邈。腔沸血熱。援于隣牧。方招散亡。遽被斥黜。爰暨三倅。對理王獄。府啓廟讞。俱從情實。王曰。求忠于孝門。必其罪母。以母重其罰。金吾覆啓。難免一謫。宜定近邑。俾無離濶。乃責赤羅。未幾全釋。歸來故山。歌詠聖澤。儉人罔極。又復羅織。炎炎火維。海波中瀟。天鑑孔昭。再移中邑。金雞未鳴。舍鵬遽泣。仍承釋命。官未克復。莊邸再

陳。洞悉腔赤。事未施行。天運奈若。凡民有冤。雖懇難白。彼強莫遂。我弱奚曝。漠然百年。祇茹冤血。新聖御極。羣枉咸雪。乃於秋初。恩^P自天特。爰命天官。亟復官爵。煌煌誥麻。照曜蔀屋。暘昭陰壑。春回槁木。孱孫祇受。稽首痛哭。感格幽冥。慶溢楣闥。吉日維丁。襟佩齊邀。昭告厥由。依舊華秩。尊靈降鑑。同我歡樂。

二恥齋集跋

文集後叙[金瑞一]

日申君邦烈甫。袖其先大人遺文來曰。先君子平生所著述。不爲不多。而褶變之餘。遺失殆盡。今有江潭隨手錄若干篇。子盍覽焉。余應曰。諾。此吾願也。既敬拜手而再三披讀之。則申君又屬而曰。先君子志行文學。似若有不甚草草者。而時值不祥。誠未見曝。氣候冷暖。遽易於一呼吸之頃。而區區^P哀冤。終無時可洩。則豈非不肖子無窮之痛耶。願子之一言。狀其行以信之。余聞而愀然者良久曰。是托也。瑞一何敢當。何敢當。瑞一無文無德。方少日精未消亡時。猶不敢以此事自任。況今衰耗。何敢當是托。瑞一平日。自爲得二恥公甚悉。且悲公末稍所遭。籍之在心者。有不忍終嘿。畧提一二。攬涕而言曰。嗚呼。公之至行文章。踐履篤實。人莫不以粹然君子稱之。而早擢巍第。聲望藹蔚。求其平生。無一事有愧於身心。則今以二恥自號。何也。公之於忠與孝。果有恥耶。當戊申賊至之日。人心駭惶。烏鼠逃竄。莫有收拾之望。而公以一介書生。莅^P郡纔數月矣。猝當此亂。起視左右。無一隸一卒可以爲號令之應者。八十老母。時在危地。毫忽之間。凶鋒且逼矣。公於此時。但守死城之義。莫念全母之道。徒死無益於一分掃難。而使其親淪沒賊藪之不恤。然後方可以忠孝無恥之人耶。噫。君親一體。忠孝無間。則隨時處變。是亦道理。公之以二恥爲號者。是未可知也。況公以無貌遺胤。自在齠年。奉母至孝。得小曾參之稱於鄉里。及當顛沛亂離之中。亦不少懈焉。夫孝始於事親。中於事君。世豈有能於孝親而不能於忠君者耶。公之平生定力。義理昭然。豈不知效死之義。而倉卒之際。隻手無^P奈。欲先管仲之事。從效趙苞之義。則論以大義。雖曰有歉。參以人情。此亦觀過處也。噫。張中丞之罵賊致命。固千古偉烈。而若使其時。老母在圍中。則未知張公。亦何以處之。爲人子者。當日境界。不可以一律論也。然則公之以二恥名其齋者。固出於無恥恥之。益加自勉之意。人或不究其心。不諒其勢。而只以一時不幸之變。論其得失。則豈不病哉。嗚呼。瑞一嘗斂衽于公久矣。青黃黼黻之煌煌。豈是叔季下人物。而時之不利。命與爲仇。多年楚澤。備嘗行吟之苦。而大荒披髮。至今遺恨未平。恩霈昭釋。又不及於未就木之前。此瑞一之所嘗慨^P惜于心者也。今因胤子君之託。敢自附於鮑叔牙。不以爲悞之義。不計僭學索言及此。後之覽者。不以人廢言。而并有憐於公之前後則幸矣。丙戌長至日。前教官豐山金瑞一。謹識。

跋[申相憲]

惟我五代祖二恥齋府君。忠孝之性。稟於天。卑踐履之學。透於自得。早擢魁第。聲望藹蔚。每憂名實之難副。日溫理讀書。上自唐虞。下至洛建。受授之訣。繼開之統。無不講究理會。而尤致力於孝親忠君底事。丁未冬。特蒙居昌專城之除。至戊申春。奉板輿下邑。賊醜猝發於密邇之地。朝暮席捲。邑^P

里俱空。親命迫在跬步之內。府君以忠孝兩全之道。參情酌義。則君親一體。緩急有間。爲孝之階。觸在俄忽。盡忠之機。猶有少暇。故遂決今日全親。明日勤王之策。護親於淨地。卽還封壇。招集散亡。若使其時。營罷少緩。則全親報國。忠孝俱全。宜有辭於萬世。時丁不辰。事與心違。以府君素所畜積之忠孝。優蒙求忠必孝之聖批。然止水之清。爲汨泥所濁。白玉之潔。爲堆塵所掩。赤羅之初配。由其營罷之孔刻。興陽之再黜。媒其繡啓之搆捏。前後人謀之不臧。至於此極乎。噫。杲卿之忠。張巡之節。巧值府君之境界。果能委^P親於賊藪乎。抑將救親於賊藪乎。世之人以程子之公眼。鮑叔之知心論斷。則必將日府君與卿，巡易地。則皆然云爾。然則府君之忠孝。實無愧於俯仰。而竟抱無窮之痛。已洽百年之久矣。幸遭日月之光。終不掩於氛翳之中。義理之憾。自有伸於公議之正。粵在甲子。新聖御極之初。自天昭釋。特復府君知府舊啣。惇此殘孫。疾趨吏府。奉牒南歸。聖恩如天。神人俱感。自此固知府君之忠孝益明於世。而竊恨夫府君思親戀闕之句。論道講學之文。藏在巾衍。了無繡梓傳世之方。相憲每有時抱卷痛哭。往者族親^P與士友。峻發公議。鳩財拮据。殆將十許年。而今始營刊。則篇帙浩穰。物力凋殘。所刊者便同九苞之一羽。泰山之一芒。其在闡發幽潛之道。豈非一欠耶。且素行一部。出於府君經歷艱險之餘。而大山李先生。櫛其剗削廣世。則有補斯文。可知其羽翼於元集也。從後刊布。則爲子孫者。庶免不明不仁之責。然斯文有顯晦底時。吾道有興廢底運。雖不可強圖。而爲吾祖子孫者。闡先潛光。亶在斯。亶在斯。敢不勉哉。戊戌春正月乙酉。五世孫相憲。拜手謹識。

文集告成文[從後孫相夏]

^P恭惟府君之百世不朽。亶在於遺集之廣其行而遠其傳也。迨今五歷世而珊爛數十篇。韜光晦彩於古笥中。使世之欲尋躅於千古者。無以見是集之有契於前哲。而有補於來學也。此不肖後承之所以深懼夫愈久而愈泯矣。歲丁亥冬。鳩財營刊之論。發自一門。而遠邇之欲其成而應之者。亦與焉。積十年而舉是役。就當世之可堪者。而狀行之銘墓之而附之。因校之精編之簡。而約之以三箇冊子。又一歲而功告訖。於乎府君之志業名實。由是而將煥然可明於萬世人心目矣。敢告虔告。

二恥齋集跋[申敦植]

猗我先祖。世以孝悌忠義。箕裘于家。若退齋，悔堂之至孝篤行。有顏，閔之稱。城隱，厓溪之貞忠大節。有壬，丙之蹟。先生篤生是庭。服襲先訓。已自齟齬。篤學砥行。以忠孝爲本。夫君親一體也。未有孝而遺其君者。亦未有忠而後其親者。先生於娥林之變。匪不能守死封壇。而危迫耄闈。欲盡孝而効忠。以爲報君親兩全之策。雖使睢陽之烈。處先生之地。其處變先後。不過如此。而噫彼狺狺者。初有棠臬之徑罷。再被繡斧之誣捏。竟致嶺海之行。使其移孝爲忠之志。不得暴於當世。儉小之萋斐。若是其酷耶。然先生之文章有敘述題詠。學問有師友往復。忠孝有天地日月。嗚^P呼。先生始受學於我六代祖槃窩府君。於先生仲父也。嘉其天得之穎悟。童年之志學。期以他日棟樑于家。誓龜于朝。領袖于儒。而一自涪灘以後。每謂運之。大而國也嶺也。小而門也家也。無限發歎。灰心世事。求居近峽。以修初服之計。迄今追想。宛見當日之心。不禁涕淚盈臆。曷勝言哉。先生之遺文。藏弄巾衍。百有餘年。而祀孫相憲氏。殫誠鳩財。付諸剗削。圖所以永傳。先生學問之正。忠孝之志。將復明於天下後世矣。

顧余謙劣。亦忝句管。不揆僭妄。略叙所感于中者。書之卷末云爾。己亥正月人日。從五世孫敦植。謹書。